



10

1991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1. 10호

(루게 528)



◆◆◆◆◆◆◆◆ 차 례 ◆◆◆◆◆◆◆◆

작가들은 우리 당 문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관찰자가 되자	4
10 월의 붉은 하늘	6
봄날의 미소	7
걷고 걸으시는 길은	16
김일성 주석께 영광드리네	17
김정일 동지	17
전형화된 농촌관리위원장	18
아, 당위원회 창가의 불빛이여	20
한 당일군에 대한 추억	21
불 켜지 않은 방에 홀로 앉아	22
영원히 한길에서	24
귀익은 발자욱소리	32
당에 대한 철학의 새로운 시세계	33
변함없는 소원	37
당 원	39
이웃들	40
또하나의 꽃분이 틀	47

마흔세번째 제자	48
내가 사랑하는 노래	56
눈내리는 창가에서	57
뿌 리	57
나는 어머님의 자욱을 찾습니다	58
선뜻 문을 열수 없음은	59
단편소설창작에서 특색있는 인간관계의 설정과 세부형상	60
대학시절과 한생	63
민족문학의 어제와 오늘을 두고... ..	64
충 복	68
조선은 끄떡없다	69
시의 운률을 더욱 세련시키자	71
이 환호, 이 기쁨	75
늙은 내외 바다가에 앉아 (외 3 편)	76
고개가 숙여지누나	77
행 복	78

작가들은 우리 당 문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관철자가 되자

오늘 우리 작가들은 당의 문예로선을 받들고 주체문학의 빛나는 앞길을 영예롭게 개척해나가면서 우리 혁명이 요구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훌륭히 창작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특히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로서의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혁명적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지금 보다 높은 창작적양양을 일으키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사회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끝까지 고수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앞에 시련과 난관이 가로막아도 우리 작가들은 당의 령도따라 신심도 드높이 락관에 넘쳐 전진하고있는 우리 인민들과 함께 비겁한자야 갈테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는 확고한 혁명적신념을 더욱 굳게 하며 우리 문학의 당적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나가고있으며 사람들을 투쟁과 위훈으로 부르는 혁명적인 문학작품을 사상예술적으로 더 훌륭히 더 많이 창작하고있다.

하여 오늘 우리의 문학작품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심장에 간직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기 위한 들끓는 사회주의대건설장들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들에서 우리 인민들에게 고무적힘을 안겨주는 힘있는 무기로, 투쟁과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있다.

지금 로동당시대의 거창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고있는 건설장마다에, 수천척지하막장과 쇠물꼭포 쏟아지는 용해장에서, 만풍년을 안아오는 협동농장벌과 먼바다 어로장 할것 없이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과 생활의 앞장에는 우리 문학이 창조한 시대의 주인공들이 대오의 앞장에서 붉은기를 높이 휘날리며 나아가고있으며 천만사람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며 사람들을 투쟁과 위훈, 환희와 랑만으로 힘있게 부르는 시가들이 울려 퍼지고있다.

우리 작가들이 우리 당의 사상부문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영예로운 초병으로, 문학작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주체혁명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혁명가로서의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혁명적본분을 다할수 있는것은 우리 당의 정확한 문예로선이 있기때문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로동

계급과 인민대중의 지향과 의사를 반영하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어느한 정책도 력사발전의 객관적법칙과 혁명투쟁의 원리, 인민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것이란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전적으로 옳은것입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방침을 보아도 거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에 대한 해답이 주어져있고 창작방향과 실천적방도까지 다 밝혀져있습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가장 숭고한 의무로 여겨야 합니다.》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고있는 당의 문예 로선과 방침에는 우리 문학창작의 총적방향과 근본원칙, 구체적인 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주체적문예사상에 기초하여 문학건설의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문학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인민의 지향에 맞게 독창적으로 풀어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나아갈 때 주체문학의 앞날은 찬란할 것이며 승승장구하는 미래만이 약속되어있다.

현시기 우리 작가들앞에는 우리 당의 문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가 되고 관철자가 되어야 할 매우 무겁고도 보람찬 시대적임무가 나서고있다.

최근 우리 당에서는 당과 함께 생사운명을 같이 하며 주체적인 문학건설에 모든것을 다바치고있는 우리 작가들이 당의 주체적인 문예로선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더 잘 수행할데 대하여 높은 기대를 표시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에게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라는 가장 높은 신임과 기대를 안겨주시고 또다시 우리모두에게 당의 문예로선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혁명적인 문필가가 되도록 앞길을 밝혀주신것은 우리 작가들에 대한 또하나의 두터운 믿음의 표시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작가들은 당이 안겨주는 거듭되는 신임과 기대에 끝없는 충성과 효성으로 보답함으로써 작가의 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당의 문예로선의 견결한 옹호자로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

당의 문예로선의 견결한 옹호자로 되기 위하여서는 모든 작가들이 당의 문예 로선과 방침을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가장 정당한것으로 심장에 간직하여야 한다.

당의 문예로선은 우리 문학예술에 나아갈 앞길을 명확히 밝혀주며 주체적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는 당의 문예로선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절대적으로 믿으며 그것을 문학활동에서 드팀없이 관철하여야 우리의 문학을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대로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생활을 통하여 굳게 확신하고있다.

모든 작가들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당의 문예 로선과 방침을 받들고 그것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문학창작을 벌려나갈 때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훌륭한 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하여 주체혁명위업에 보람차게 이바지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당의 문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로 되여야 한다.

당의 문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로 되기 위하여서는 또한 모든 작가들이 당의 문예 로선과 방침과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그 어떤 사소한 요소에 대하여서는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문학발전과 창작활동에서 오직 우리 당이 의도하고 바라는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철저한 립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당의 문예로선과 방침에 어긋나는 그 어떤 창작경향에 대해서도 절대로 묵과하지 말며 오직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고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미학적요구에 맞는 작품을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창작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사소한 이색적인 요소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우리 식대로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또한 당의 문예 로선과 방침을 견결히 옹호할뿐아니라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의 문예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의 방침을 흥정하거나 중도반단함이 없이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집행하는것이다.

지금 일부 작가들과 창작지도일군들속에서는 조건타발을 하면서 당의 로선과 방침을 흥정하려 하거나 중도에서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다. 조건타발을 하면서 당의 방침 관철에서 흥정하려 하거나 중도반단하는 사람은 혁명가적기질이 없는 사람이며 충성심이 없는 사람이다.

작가들과 일군들 속에서 당의 방침에 대한 흥정과 중도반단하는 현상은 이미 당에서 제시해준 창작과제들을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제때에 창작하지 못하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이것은 당의 문예 로

선과 방침을 관철하겠다는 투철한 자각과 무조건성의 정신이 없는 표현들이다. 모든 작가들과 창작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의 문예방침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지난 시기에도 그러하였던것처럼 당에서 밝혀준 창작과제들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다음해에 맞이하게 되는 민족최대의 경사로운 명절들에 즈음하여 창작하는 작품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더 훌륭히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작가들이 당의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당이 밝혀준대로 문학작품의 사상에술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라는 최대의 신임을 안겨주신데 고무된 우리 작가들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을 비롯하여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작품들, 조국통일주제와 계급교양주제 및 력사물주제의 작품 등을 다양한 형식에 담아 활발히 창작하고있으며 그 형상수준도 더욱 높아지고있다.

그렇지만 인류문학예술발전에서 가장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는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와 날로 높아가는 시대의 미학적요구에 비해볼 때 아직 우리의 문학작품들의 전반적 형상수준은 만족할만한 경지에 오르지 못하고있다.

당에서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문학은 문학으로 혁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문학이 문학으로 주체위업수행에 이바지하려면 사람들을 주체의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킬수 있는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높은 예술적형상으로 해명하여야 한다. 그래야 작품이 사상미학적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참된 삶의 진리를 가르쳐주며 혁명에 충실하도록 할수 있다.

모든 작가들은 당의 문예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문학의 형상수준을 높이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모든 문학작품들의 사상예술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 당의 문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관철자로 되는것은 우리 작가들의 최대의 의무이며 가장 숭고한 사명이다.

모든 작가들은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내세워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정치적인임과 배려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문예로선을 견결히 옹호하고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근위대, 결사대가 됨으로써 우리 문학을 영원히 주체의 문학으로 더욱 찬란히 꽃피워나가야 할것이다.

10 월의 붉은 하늘

오필천

붉은 노을

10월의 하늘가에 타오르는

붉은 노을

머리 희숙한 로당원아바이도

홍안의 신입당원 청년도

올해의 마지막 굴착기를 떠나보낸

그 기쁨이 하늘가를 물들인

붉은 노을 붉은 노을

눈내리던 새해의 첫 아침

년간생산목표를

당창건기념일까지 해내자고

당원의 결정을 세포결정에 새길 때

아, 그 순간부터

해빛처럼 붉게 타오르는

우리 당 기발을 우리르며

마음속에 말없이 피워온

10월의 붉은 노을

쇠물은 불로 끓이는것 아니었다

이글이글 타끓는 쇠물빛에

용해공은 자신의 당생활을 비쳐보았거니

당결정과 함께 숨쉬며 끓는

심장의 열도가 쇠물을 녹였다

깎아내는 제품은

바이트의 불꽃이 버려낸것 아니었다

당결정에 한치도 드림없는

마음의 치차가 다듬은것이였다

돌아가는 바이트의 불꽃속에

당원의 량심을 버리고

두드리는 함마속에

당원의 의지를 키우며

로동일과 당생활을

하나로 이어온 나날이여

우리모두의 생명체가 태어난

10월,

이 자랑 높은 10월을

한해일을 다 끝내고 맞는

그 기쁨이 커서

당원들의 뜻깊은 명절인가

아, 10월의 하늘은

우리의 당중앙에

한해의 당생활을 자랑차게 보고한

그 충성의 마음이 비낀

붉은 하늘

봄날의 미소

문상봉

푸름푸름 열리는 하늘갓을 배경으로 수도의 높낮은 건물들이 서서히 웅자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어둡시근한 야산들에 드문드문 가리웠다가는 새벽 빛속에 우렁이 나타나 신기루처럼 마주오던 그 모습은 승용차가 런못동입구로 들어서자 홀연 아아한 산봉우리들마냥 키를 솟구었다.

거리는 아직 고요속에 잠겨있었다. 일요일의 새벽대기를 감돌던 꽃향기만이 차창가를 술술 스치며 불어왔다.

은방울꽃, 장미, 두봉화... 여기저기서 풍기는 꽃향기를 일일이 가늠하시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색깊은 안광에 따스한 미소가 어리었다.

새날을 기다려 한껏 부풀었던 갖가지 꽃망울들이 다투어 피어나고있다. 그것은 거대한 생활력을 안고 바야흐로 펼쳐질 또하루의 서막인듯싶었다.

심신이 상쾌해지신 그이께서는 무릎우의 두툼한 원고에로 시선을 다시 옮기시였다. 방금전에 마감페지를 넘기신 예술영화 《조선의 별》 영화문학이다.

차내등은 이미 꺼졌으나 **김정일**동지께서는 작품의 세계를 떠나고싶지 않으시였다. 작은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끼듯이 장면 하나에도 전대미문의 영웅서사시가 주옥같이 펼쳐져있었다.

신화도 아니요 전설도 아닌 실재한 생활속에서 신념과 의리로 충만된 주인공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모습으로 안겨온다. 김혁, 차광수, 최창걸... 얼마나 매혹적인 성격들인가!

참으로 그네들은 태양의 궤도만을 따르는 행성처럼 아버지수령님을 민족의 구성으로 받들어모신 이 나라의 영생하는 별들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좌석등받이에 몸을 기대시고 흥분을 지그시 누르신다. 작품이 영화로 실현되면 아마도 사람들의 폭풍과 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킬것이다.

그이께서는 작가의 성공을 누구보다 먼저 축하해주고싶으시였다. 그리고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오늘의 벽찬 현실을 놓고 시대와 인간에 대하여 그와 열렬히 이야기를 나누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어느덧 하늘가에 떠있는 송이구름들이 장미색노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꽃향기 그윽한 거리를 뜨기 아쉬운듯 아직도 이리저리 몽실대던 젖빛안개가 가루개를 넘는 승용차의 앞뒤로 칭칭 감겨돌았

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예지로운 눈빛속에 한층 더 심원한 사색이 비껴든다. 당 제6차대회를 앞두고 그이께서는 요즘 매우 분망한 나날을 보내고계시였다.

긴급한 조직사업과 연합회의 그리고 현지에 대한 실무지도와 료해... 이 며칠사이만도 서해연선 창동리로부터 오지의 립산작업소, 삭주땅의 지방산업공장에 이르기까지 수천리로정을 이어오셨다.

어찌 그뿐이라. 해외공민들의 민족적권리를 더욱 개선하는 문제와 교포사업에 대한 관심, 원수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한 전국의 요새화,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전민적적인 통일연합전선의 결성 추진, 복잡다난한 국제정세를 평화와 세계혁명에 유리하게 전변시키는 문제...

열려진 차창안으로는 싱그러운 봄바람이 흘러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마에 드리워진 머리칼 몇오리가 조심스럽게 흔들리였다.

갑자기 그이께서 몸을 움쭉하시며 인도쪽으로 향하시였다. 인도쪽으로 향하시였다. 뻘스정류소에 홀로 서있는 소녀애를 띄어보신것이다.

《운전사동무, 차를 좀 세웁시다.》

예닐곱살가량 똘을가. 이맘때 저 또래들은 아직 잠자리에서 덩굴고있을것이였다. 그런데 저애 거동이 왜 불안정하고 초조해보이는가?

《애야, 너 어디로 가려느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차문을 열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

《무슨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인데 어서 타거라.》

소녀는 손을 급급히 내젓는다.

《아 안예요. 난 아무데도 안갑니다.》

《응? ... 그럼 정류소엔 왜 나와셨니?》

《할아버질 기다리지요뎐.》

속이 편안한 대답이 아니였다.

《오, 그러니 마중을 나왔구나.》

처녀애의 탁 트이지 못한 어조가 심중에 걸리였다. 아무래도 무슨 사연이 있는것 같다.

그이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였다. 가까이 다가가서 자 소녀는 눈이 점점 동그래지더니 급기야 숨가쁜 환성을 터친다.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

그러고도 꿈인가싶어 다시 우러르며 깡충깡충 뛰

였다.

《허허… 그런데 난 너를 어떻게 부른다?》

《제 이름은 목란입니다. 리목란.》

《그것 참, 이름이 좋구나. 꽃들중에서도 아름다운 목란이라… 음-》

《할아버지가 지었대요. 목란꽃처럼 곱게 피어나라구… 해해.》

《그래, 할아버지가 목란이를 무척 귀여워하는 모양이지?》

《전엔 그랬는데…》 하고 처녀애는 눈을 내리깔며 슬며시 고개를 외로 튼다. 어지간히 토라진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지금은 날 고와하지 않아요.》

《그건 무슨 소리냐?》

《오늘 나랑 모란봉에 놀러 가자 하구서는 아직도 건설장에서 안돌아옵니다.》

꽃신 주둥이로 보도블록의 째새기를 우비며 두서없이 말쑥지를 때던 목란은 그이께서 허리를 굽히시자 미주알고주알 다 여쭙었다.

벌써 며칠째 할아버지가 집에 안들어온다는것, 그전엔 하루밤만 늦어도 자기한테 꼭꼭 알렸는데 이상하다는것, 어제저녁 엄마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는 일이 바빠 자리를 뜰수 없다는것이였다.

할머니한테서까지 《일밖에 모르는 그 목석같은 량반이 산놀이를 가면 아마도 해가 서쪽에서 뜰게다.》 하는 말을 듣고는 잠이 싹 달아났다고 한다.

《흐-음, 그랬었구나. 할아버지가 약속을 했는데 두 안오신단말이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허리를 펴시며 이렇게 뇌이시였다. 일요일인데도 아직 나타나지 않는것으로 보아 케가 그른셈이다.

(어떻게 한다? … 그래도 이젠 혹시나 해서 여기에 나와있지 않는가.)

알고보니 목란은 인민대학습당 건설장에서 일하는 건축설계실장 리의천의 손녀였다.

《집이 어디지?》

그이께서는 처녀애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다정히 물으시였다.

《저기…》

목란은 그리 크지 않은 공원의 건너편에 남향으로 솟은 다층살림집을 가리켰다. 가까웠다.

《할머니랑 어머니랑 네가 여기 나온걸 아느냐?》

《…》

목란은 대답대신 손가락을 입에 물고 해시시 웃는다. 잠자리에서 몰래 뛰쳐난 모양이였다.

《허 이런… 어른들이 알면 걱정하겠구나. 어서 집으로 가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먼저 발걸음을 떼시자 처녀애는 눈동자에 행복한 달을 동동 띄웠다. 가슴

은 기쁨과 환희로 하여 터질듯 오르내렸다.

그이께서는 목란에게 팔을 맡기시며 빙그레 웃으신다. 허나 마음 한구석은 허전하시였다.

리의천실장이 요즘 인민대학습당의 지붕형성수정안때문에 애를 먹고있다는것을 모르시는바가 아니다. 어제도 지방실무지도의 로상에서 해당 일군을 통하여 인민대학습당 건설정형과 특히는 리의천이가 맡은 지붕형성안 수정이 한치도 전진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것이다.

진통과 모대김, 시간마다 다르게 우줄우줄 키돋움하는 건물의 기본 골조들과 벽체들, 그것을 불적마다 꾸역꾸역 물려드는 촉박감과 위구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리의천의 이전 고충을 헤아리고계셨다. 그러나 크게 녀려하지는 않으시였다. 누구보다 그의 실무와 능력을 잘 아시기때문이다.

물론 수십쌍의 합각지붕들을 하나로 조화롭게 통일시키면서 시대기상이 나래치게 형성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민대학습당은 수도의 건축형성상 중심축을 이루는것만큼 형식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후세에 남길 본보기건축물로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 자신께서도 지붕형성의 수정방향을 높이 제시하시였었다.

일전에 심의에 제출하였던 리의천의 지붕형성안은 력학적으로 잘 타산되고 건축기교도 세련되어있었다. 그러나 항공높이 나래를 펼치는 새무리의 형상이 답답하고 기계적인, 말하자면 형상의 생동성과 시대감이 덜 느껴졌다.

리의천은 심의의견을 허심하게 접수하고 곧 수정안에 달라붙었다. 밤낮으로 설계탁을 마주하고 침식도 현장에서 했다. 그런데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고 한다.

어제 논의과정에 인민대학습당의 지붕형성안수정을 복선으로 추진시키자는 의견도 제기되였다. 일리가 있는 대책같지만 심중히 따져보면 그것은 믿음이 부족한데서 오는 일종의 우려였다.

그렇다면 리의천의 부진상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실무나 능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 어떤 요인이 지붕형성수정안에 반영된것이 아닌가?…

때아닌 꽃샘바람이 공원속의 나무아지들을 우수수 흔들었다. 매지꽃 한송이가 날려와 목란의 달짝거리는 외태머리우에 내려앉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것을 집어드시고 이윽히 살피시였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이 봄날에 꽃망울도 터치였는데 어째서 열매로는 못되였는가? … 생장기능부족으로 해서 초래된 자연현상이지만 그이께서는 못내 아쉬우시였다.

얼마후 승용차는 뺨스정류소를 떠나 당중앙청사에 가닿았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집무실에 들어서시자 먼저 전화로 창광원지배인을 찾으시였다. 뜻밖의 부르심에 흥분된 지배인의 목소리가 곧 전류를 타고 울려왔다.

《창광원지배인 오영준 아침문안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요일에 수도시민들의 편의를 보아주노라 수고가 많겠습니다.》

《그거야... 저희들의 본분이 아니옵니까. 다만 기대에 어긋날까봐 걱정일뿐입니다.》

《그런 걱정은 마십시오. 요즘 창광원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개원한지 한달도 못되는사이에 벌써 술한 일화들이 생겼다면서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엇그제부터는 삭주로인내외의 이야기가 또 생겨나 화제거리로 되었습니
다.》

《삭주로인내외라... 그러니 예순을 넘긴분들이겠소.》

《예. 평양에 나들이를 온 늙은이들입니다.》

《어디 그 이야기를 나도 좀 들읍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쏘파등받이에 몸을 기대시였다. 이어 수화기에서는 지배인의 음성이 고저장단을 이루며 울려나오기 시작했다.

...평양의 딸네 집에 왔다가 별고 없으면 사흘을 못넘기고 다시 돌아가곤하던 로인이 창광원에 한번 들려보더니 매일같이 드나들었다. 며칠후에는 아예 딸네외와 함께 살겠노라고 삭주에 편지를 보내었다.

처음엔 심상하게 여겼던 고향의 마누라와 아들은 한달이 가까와도 정말 그가 나타나지 않자 부랴부랴 평양으로 달려왔다.

평생 비둘기처럼 의가 좋던 로인내외간에는 난생 처음으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령감이 환장을 해두 분수가 있지, 아니, 멀쩡한 아들네를 놓고 딸네집에 얹혀살겠소? 남들이 웃어요. 머느리망신시키는 로망쟁이라구...》

《별소릴... 여기에 며늘애가 무슨 상관인가.》

《아따 령감, 그애가 시부모공대를 안해서 당신이 딸네집에 간거라구 하잖겠소. 그렇게두 막혔수... 망신이 더 커지기전에 어서 내려갑세다.》

《망신은 무슨 망신. 임자나 갈테몬 가라구, 난 여기서 살겠단니까.》

《에이고, 저 량반이 왜 저러니? 애들이 어찌된 셈판이냐?》

로친은 애꿎은 딸과 사위한테 화풀이를 하였다. 하지만 그들도 저희끼리 무슨 의논을 따로 한적은 없었다.

그날은 마침 일요일이어서 온 일가식솔이 대성산 유원지에 갔다가 오후에는 창광원까지 들렀었다.

그이튿날 안로인이 아들에게 한 말이 걸작이였다.

《애, 네혼자 가서 아예미를 잘 리해시켜다오. 우린 여기에 눌러있어야 할가보다. 어제 창광원엘 가보구서야 령감님의 마음을 알겠구나.》

이 좋은 세월에 정말 오래오래 살고싶다. 좀 보아라, 아버지가 한 십년은 젊어진것 같잖니?!》

바빠맞은 사람은 아들이였다. 그는 부모에게 사정을 하다못해 열려도 보고 애원도 하다 끝내는 울상을 하고 혼자서 돌아갔다는것이다.

《하하... 눈에 방불합니다. 창광원이 하도 좋으니 그런 생동한 일화가 생겨나는것 같습니다.》

그이께서는 고개를 뒤로 채키시며 즐겁게 웃으시였다.

《그 로인들이 오늘도 거기로 가겠지요?》

《예, 틀림없이 올겁니다.》

《그럼 지배인동무가 좀 말해주시오.》

이제 창광원식종합편의봉사시설이 도, 시, 군은 물론 리소재지까지 일떠섭니다. 벌써 완공되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얼마후에는 삭주에서도 창광원 못지 않은 건물이 큰 문을 열고 그 로인내외를 부를겁니다.

물론 아들이면 어떻게 딸이면 어떻게겠습니까만 그래도 이왕 정붙이고 살던 아들 머느리와 고향에서 여생을 즐기는것이 그들에겐 좋을것입니다.》

한순간 수화기에서는 전류흐르는 소리만이 진동판을 징- 울리였다. 이윽고 지배인의 목메인 음성이 들려왔다.

《어쩌면 저희들의 심정을 그렇게... 그 삭주로인들이 자기네고장에두 창광원같은것이 있었으면 하고 울적마다 말하군합니다.》

《늙을수록 정이 깊어지는곳이 고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각같아선 창광원을 아예 떠치고갔으면 했을겁니다.》

어느새 문수와 사동벌너머에서 불쑥 떠오른 아침 해는 창박에 눈부신 빛발을 뿌려주고 해빛이 가득 가득 드리운 정원의 나무아지들에서는 새들이 모여들어 지저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날씬하고 애리애리한 일새들은 아직도 어머니의 젖품을 파고드는 어린애마냥 아침대기속에서 한들한들 조을고있었다.

《그런데 지배인동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었던 화제를 이으시였다.

《며칠밤을 펜 사람도 거기에 가면 피로가 풀릴수 있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창광원의 훌륭한 설비에다 우리들의 정성을 합치면 늙은이들은 원기가 더욱 왕성해지고 늙은이들은 마음의 주름살까지도 펴일수 있습니다.》

《마음의 주름살까지도 펴일수 있다... 허허, 좀

과장기가 있는것 같지만 마음이 술깃하구만.

그럼 한사람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그일때문에 지배인동무를 찾았습니다.»

그이께서는 리의천설장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몇 마디 더 말씀하시고 송수화기를 놓으시었다.

지배인이 《특별봉사》를 하겠다고 근심마시라고 거듭 장담하였건만 여전히 마음속은 개운치 못하시다. 잠전에 건설장을 지나오면서 보신 건축설계실 창턱의 시들어버린 꽃화분때문인가?

공기창까지도 뽕뽕 닫겨져 바깥세상과 격폐된 설계실, 색이 바래진채로 켜져있는 형광등, 시들어버린 꽃화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쏘파에서 몸을 일으키시었다. 저벅 저벅... 생각깊은 발자국소리가 쪽무이바닥을 울린다.

풍만한 대지와 살뜰한 봄별과 간밤에 내린 달디단 약비의 도움을 받은 나무와 풀들이 창밖에서 경쟁하듯 푸르러지고있었다.

대기차운전사가 부르심을 받고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이께서는 손수 가꾸시던 꽃화분들중에서 생활력이 강하고 꽃이 오래오래 계속 피어나는 화분을 골라드시었다.

《이걸 리의천동무의 설계실창턱에 놓고 그대신 거기에 있는 시들은 화분을 가져오시오.》

자신께서 몸소 그 꽃나무를 되살릴 결심이시었다.

리의천은 일생에 지금처럼 자신이 저주스러워진 때가 없는것 같았다.

(나살을 환갑밑에다 건사한놈이 꽃나무 하나 제대로 돌볼줄 몰라 또 시들게 하다니...)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꽃화분을 받쳐들고 안절부절 못하였다. 어떻게 한다?

창피감을 무릅쓰고 사도실로 뛰여갔다. 허나 사도공처녀들은 그가 아무리 사정해도 귀가 먹은듯는 한번 팔지 않고 사도에만 열중하고있었다.

언젠가 건축설계실 마당가에 꽃밭을 만들다 나한테 꾸지람을 들어서인가? 그렇다. 나는 그때 이 처녀들보고 그럴 짝이 있으면 점과 선을 그리며 부단히 기능을 높이라고 분명 말해주었었다. 수시로 파헤치고 들추는 건설부지에 꽃밭은 무슨 꽃밭이나고...

그사이 꽃화분은 점점 시들어 잎사귀들이 쭈그러들기 시작했다. 줄기까지도 말라간다.

리의천은 눈앞이 아득하여 밖으로 뛰쳐나가 하늘을 우러러 소리쳤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의 절망에 찬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아득한 공간으로 날아갔다.

바로 이때 기적이 일어났다. 어디선가 눈부신 빛

발 한가닥이 꽃화분에 와닿자 잎과 줄기가 생기를 띠기 시작했던것이다. 이어 아름다운 꽃송이가 활짝 피어나 진기한 향기를 풍기었다.

리의천은 꽃화분을 चु켜들고 만세를 부르다가 목이 콕 잠기여 눈을 번쩍 떴다.

(?...)

꿈이었다. 여기가 설계실이 아니라 창광원의 귀빈실이라는데 생각이 미치자 그는 쏘파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시계를 보니 세시간은 실히 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신 차를 타고 불시에 여기로 온 그였었다.

《이런, 주책머리가 없다구야.》

리의천은 급히 출입문계로 다가갔다. 그러나 문은 밖으로 채워져있었다.

그는 맹랑한 표정으로 방안을 왔다갔다 했다. 능청스럽게 눈을 껌벅이며 맥주를 권하던 지배인의 사람좋은 얼굴이 떠오른다.

맥주만은 들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긴 그것 아니래도 목욕탕과 한증탕을 거쳐 덕수를 맞은데다 식사전에 안마까지 했으니 천근만근으로 내리덮이는 감을 막을수 없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그사이 겹쌍엮던 피로가 가뭇없이 사라지고 몸은 날것처럼 거뽏해진것이다.

《거참... 조화속에 들었군.》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누구인가 일부러 쳐놓은 창가림을 제끼었다. 이 좋은 창광원에 뒤늦게야 찾아온것이 후회되었다.

그러다 피륙 시간을 다시보고 급히 전화통을 두드리었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줄 모른다더니 내가 지금 이려고있을 경황이 됐는가.

수화기에서는 기다리고있던 모양 지배인의 목소리가 울리었다.

《여보시오, 날 여기다 언제까지 가둘 작정이요?》

《허허... 깨나셨군요, 곧 갑니다.》

이어 문가에 지배인의 너부죽한 얼굴이 나타났다.

《숙박소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무슨 낮잠을 그렇게 체면없이 잡니까? 이거 숙박료를 톡톡히 물어야겠습니다.》

아까 설계실에 들이닥치여 막무가내로 등을 떠밀던 사람같지 않게 룡담이 걸죽하다.

《에이, 난 체면이 없다치구 거기선 좀 깨워주면 큰일나우?》

《그건 나로서도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저절로 깨여날 때까지 놔두라는 분부였으니까요.》

계단을 내리던 리의천의 발이 딱 굳어졌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배인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러고는 부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본다.

《건축가선생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친어머니의 보살핌인들 그렇게 지극하시겠나요!》

리의천은 현훈중에 걸린듯 몸을 비칠거렸다. 란간에 의지한 손끝이 가늘게 떨린다. 그는 수만개의 구슬이 줄줄 쏟아져내리는듯한 물구슬들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문득 설계실창가에서 바뀌어진 꽃화분이 꿈장면과 함께 떠오르며 뜨겁게 눈시울을 지진다. 부끄러웠다. 철부지처럼 지각이 없는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글썽 화분에 물을 줄 경황도, 없었다는것이 말이 되는가...

《아니, 왜 그러고셨습니까? 현관에서 차가 기다리는데...》

지배인은 시간을 보며 그를 재촉했다. 그들이 중앙홀을 지나 현관에 나서니 승용차가 스르르 다가선다. 아까 리의천을 태우고왔던 대기차였다.

《자, 그럼...》

리의천은 손을 들었다.

《또 오십시오, 안오면 아까처럼 붙잡으려 갈텐니다.》

지배인은 차를 따라오며 손을 흔든다. 만나자 친구라더니 참 좋은 사람이였다.

승용차가 큰길에 나서자 리의천은 운전사에게 건설장에 들렀다 가자고 부탁했다. 친애하는 그이께서 부르시는데 건축가가 어찌 빈손으로 가랴.

설계탁우에 수북이 쌓인 도면장들을 하나하나 헤치던 그는 손땀이 탁 풀렸다. 아무리 골라보았으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보여드리고 가르침을 받을 만한것이 없었다.

합각지붕을 편결하는 점과 선은 의연히 엉킨 실꾸리처럼 시작과 끝이 묘연하였고 시야에 비껴오는 모든 건축요소들은 고인물속에 투영된 그림자를 연상시켰다. 그것은 형상이 아니라 허상인것이다.

리의천은 고개를 처연히 떨군채 설계실을 나섰다. 옆구리에서는 빈것이나 다름없는 도면철이 맥없이 건동거렸다.

아스팔트길에 솜보풀처럼 하얗게 깔렸던 버들꽃들이 차바퀴에 휩 말려들었다가는 길가너예로 몽실몽실 풍겨난다.

리의천은 한숨을 소리없이 내그었다. 연필만 척들면 점과 선의 세계를 거침없이 종횡무진하던 젊은시절이 못건디게 그리워진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도면장에 생동한 모습으로 그려졌고 또 그것은 시공자들의 호평을 독차지하곤했었다.

황홀했던 그 시절은 영영 가버리고 어제는 인생의 조락기가 되었던말인가? 이렇게도 빨리...

그는 서글픈 향수와도 같은 그 감정을 묵새기려고 눈을 꼭 감았다.

어느덧 승용차는 풍치수려한 모란봉기슭을 누비

기 시작한다. 청류벽을 옆에 낀 강안도로에 들어서니 대동강의 특유한 해감내와 꽃향기가 한데 어울리어 차안으로 날아들었다.

뒤에서 경적소리가 울리자 운전사는 제동기를 밟았다. 리의천은 급히 차에서 내려 옷매무시를 바로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뒤차문을 닫고 활달한 걸음으로 다가오신다.

리의천은 허겁지겁 달려가 인사를 올리였다. 한없이 인자하신 그이의 존안을 뵈옵자 이즈음에 겪은 번민과 고충들이 한꺼번에 오열로 터져오를것같이 아래입술을 힘껏 깨물었다.

《실장동무, 자신을 너무 속박하지 마십시오. 인민대학습당이라는, 력사에 없던 거창한 창조물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진통인들 왜 없겠습니까. 그럴수록 마음을 옥조이지 말고 생활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리의천의 고뇌어린 눈빛을 일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면목이 없습니다. 이젠 현실의 요구에 저의 능력이 미처...》

《허허, 실장동무답지 않게 오늘은 웬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앞에선 아예 그런 나약한 소릴랑 마십시오. 아... 저런, 저길 좀 보십시오.》

갑자기 말끝을 돌리시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건너편 룡라도기슭을 가리키신다.

파아란 버들아지들이 휘날어진 아래에서 여라문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벽작 떠들고있다. 밀짚모자를 눌러쓴 낚시군과 물속에서 요동치는놈과의 땀을 그러쥐게 하는 《대결》이였다. 구경군들은 발까지 구르며 제나름의 경험과 묘기를 혼수하노라 여념이 없다.

낚시군은 그래도 제 속궁냥이 따로 있는지 여유작작하게 줄을 늦췄다 조였다 하며 물속놈의 맥을 뽑는다. 한참후에야 자신만만하게 나꾸채였다. 두세키로는 실히 뒹죽한 잉어가 퍼들쩍 유보도에 나동그라진다. 와- 와 함성이 터졌다. 그이께서도 몸을 제끼시고 통쾌히 웃으신다.

이윽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리의천과 나란히 강변을 거니시였다.

《실장동무도 역시 낚시질을 즐기겠지요?》

《뭘 별로...》

《허- 취미가 없는 모양이군.》

그이께서는 못내 유감스러운 표정을 지으신다.

《그렇지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에는 물론이고 정신로동하는 사람에게 특히 좋습니다.》

이자 그 낚시군은 내가 좀 아는 동무인데 한때 건강이 너무 나빠져 자기 직무에서 해임된적도 있었습니다. 술한 보약을 쓰고 외국의 소문난 룡양소에도 보내보았지만 차도가 없었지요.

나는 생각다가 낚시도구를 한조 마련해주면서 동의치료와 함께 낚시질을 해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해째만에는 병이 저절로 낫고 몸이 좋아져서 본래의 직무보다 더 아름다운 일감을 맡아나서질 않겠습니까!

나는 저 동무를 볼적마다 귀중한 사람을 하나 새로이 얻은것 같아 마음이 사뭇 즐거워지곤합니다.》

리의천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인간에 대한 그의 보살핌과 사랑이 어찌면 그리도 세심하고 뜨거우실가! ... 그의 마음속에는 자식을 길러본 부모로서도 지금껏 느끼지 못한 정희가 무지개마냥 황홀하게 비껴들었다.

최승대너머에서 목화구름이 뭉게뭉게 솟아오르더니 차츰 개여놓은 포단모양으로 뭉쳐진다. 그 한쪽은 정오에 가까운 해빛을 받아 눈부시게 흰반사광을 내뿜고있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분다. 최승대로 오르시는 **김정일** 동지의 옷깃이 가볍게 날리었다. 모란봉정원에서 빼곡새소리가 은은히 들려온다.

그이를 따라 로대에 올라서던 리의천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질렀다. 아름답고 거창한 대도시의 전경이 눈뿌리가 시도록 안겨왔던것이다.

멀리서부터 높고낮은 산발들이 장엄하게 뻗어내리다 평양을 병풍모양으로 둘러쌌는데 이끼푸른 청류벽아래로는 대동강 푸른 물결이 수도의 새라새로운 모습을 담아내고 유유히 흘러간다.

동평양에 일떠선 산원이며 보통강기슭의 체육관, 대성산유회장... 완공단계에 들어선 창광거리의 기기묘묘한 모양새는 금강의 만물상을 방불케하고 기리기때의 역센 퍼덕임처럼 합각지붕들이 추녀를 높이 쳐든 인민문화궁전이며 대극장은 그의 마음을 더욱 황홀경으로 이끌었다.

그는 가슴이 설레었다. 70년대의 건축무대를 장식한 기념비들속에 그의 정열과 숨결이 깃든 창조물도 빛을 뿌리고있었던것이다.

차일피일 미루다 세상구경을 뒤늦게 떠난듯한 후회감도 없지 않았다.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이 근래에 와서 더더욱 설계실과 건설장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못나던 자신을 깨닫자 길썸한 얼굴에는 어느덧 까닭모를 우수가 비껴들었다.

《실장동무, 여기로 와서 저것을 좀 보시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몇발자국 물러서서 이어 올밀대의 기둥과 용마루 그리고 대들보가 서로 묘하게 어긋 모양새를 가리키신다.

《력학적인 타산은 물론이고 그 개개의 형상들을 얼마나 기교있게 처리하였습니까!》

리의천은 피땀 생각키우는것이 있어 지붕부분에 직업적인 눈길을 주었다. 혹시 이제부터 인민대학

습당의 지붕형성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려는것이 아닐가?

《역시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슬기롭고 재능이 있었습니다.》

《예, 세상 어디를 돌아봐도 우리 조선식건물처럼 지붕처리를 독특하고 예술감있게 해낸 건물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조선식건축형식의 기본이며 우리의 자랑이지요. 선이 부드러우면서 우아하고 섬세하면서도 민족의 기상이 솟구치는 이것을 우리는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금시라도 하늘을 헤가를듯 머리를 쳐든 룡들의 각이한 부각상과 구름모양의 색갈들에서 눈길을 떼시고 이번에는 건물전체를 이모저모 눈여겨보시며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런데... 지내 어둡거든.》

《?...》

《실장동무, 왜 그런것 같습니다?》

《그건 저... 옛날사람들의 미학관이 그렇게...》

《미학이라... 넓은 의미에서 나도 동감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창조자의 립장에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인인가, 아니면 노예인가 하는 시점으로 말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이시였다.

《지난날 착취자들은 근로인민대중을 물질문명창조의 주인으로가 아니라 부림집승같은 노예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천대와 멸시로 짓눌린 인민들에게 밝은 생활감정이 있었겠습니까.》

때문에 이런 옛 건축물에 반영된 시대감정은 대체로 어둡거나 무겁고 어떤것은 비감을 자아내는것조차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무영탑〉과 같은 슬픈 전설들이 생겨났겠습니까.》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가슴에 팔을 엮고 시고 로대로 천천히 다가가시였다. 《무영탑!》 하고 조용히 뇌이신다.

신비로우면서도 눈물겨운, 듣고나면 오래도록 비분에 잠기게 하는 옛이야기였다.

착하고 부지런한 석공의 마치고소리가 지금도 기막힌 사연을 하소하듯 가슴에 되마친다.

남다른 재능을 지닌것으로 하여 그는 한뼘 고향과 집을 떠나 절간의 석탑을 세워야 했다. 애오라지 희망은 하루빨리 사랑하는 안해와 자식을 만나는 것이였다.

허나 무지막지한 착취자들은 석공의 소박한 기원마저 악착하게 짓밟아버렸다.

그의 원한을 못잊어서인가 호수가에 아름답게 비졌던 탑의 그림자마저 물속으로 영영 자취를 감추었다는 《무영탑》!...

리의천은 새삼스러워진 마음으로 저앞의 올밀대

며 칠성문은 물론이고 자기가 알고있는 옛 건물들을 하나하나 머리속에 그려보았다.

어딘가 모르게 침침하고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건축물들... 지금껏 귀중한 문화유산으로밖에 달리는 생각못하였던것들이다.

그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예리한 비판적안광으로 세월의 이끼속에 고삭아버린 수난의 흔적을 통분하게 더듬고계시었다. 그것은 착취계급의 전횡과 폭압으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재능이 빛을 낼수 없었던, 지난 력사가 남겨놓은 생활의 그늘이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윽하여 힘있게 말썽을 이으시였다.

《인민대중이 주인된 우리 시대는 창조물들에 그 어떤 형태의 그늘이든 사소한 세부라도 깃들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민이 주인된 현실 그자체가 밝고 아름다우며 희망넘친 생활이기때문입니다.》

(밝고 아름다우며 희망넘친 생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최승대를 내리신다. 집관목이 등성등성한 룡선으로 향하시다가 문득 허리를 굽히시였다. 거무튀튀한 줄기를 흠타기에 드리운 늙은 산포도나무가 그이의 시선을 끈것이다.

(?...)

잠시 고개를 기웃하고계시던 그이께서 터실터실한 마디를 손으로 가만가만 벗기시였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거기서 펜촉모양의 햇순들이 뽀조롭게 자태를 드러낸다.

(??...)

리의천은 눈을 한껏 치뜨고 입귀를 실룩거렸다. 생명체로서 이미 볼장을 다 본것이라고 단정했던 고목에서 저런 기적도 생기는가?...

그이께서는 음달쪽의 넝쿨들을 해별이 잘 드는곳으로 옮기신다. 그리고도 마음이 안놓이시여 나무등결에 조심조심 비끄러둥이시였다.

(!!...)

일손을 거들어드리는 리의천의 눈굽이 찌릿하게 젖어들었다. 한없이 다심한 손길로 하여 후더워진 정이 혈관을 타고 온몸의 세포들에 퍼져간다. 해빛넘치는 이 봄날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새싹이 자라고 꽃들이 피어나는것이 그에게는 단순한 자연현상으로만 느껴지지 않았던것이다.

《이젠 된것 같습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즐겁게 웃으시며 손을 터신다. 하늘중천에서 왔다갔다 하며 그네를 뛰던 종달새가 은방울같은 목청을 돋구어 봄노래를 부르고있었다.

대동강에 꽃잎처럼 떠가는 유람선이 흰 물갈기를 날리며 배고동을 울리고 청년공원에서는 장기군들이 승부를 겨루는지 《장훈!》, 《명훈!》 소리가

거끔내기로 들려온다.

저 아래 잔디밭에서는 젊은 어머니앞에서 귀여운 아기가 첫걸음을 떼고있었다. 그 거동을 조마조마해서 지켜보는 녀인의 갑작함과 애아버지의 대견한 웃음소리가 끝안을 더욱 화락하게 만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척 환해지신 얼굴로 그 모든것을 정답게 굽어보고계시였다. 만자식의 희로애락을 보살피는 자애론 미소가 그이의 입가에서 연신 피어난다.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생활입니까! 얼마나 신심과 량만에 넘쳐있는 우리 인민입니까!》

바로 저 사람들이 어제는 이름난 혁신자들이였고 래일에는 세상을 놀래울 새 기적의 창조자입니다.》

누리에 더욱 밝은 빛을 뿌려주는듯싶은 그 미소, 한없는 그 믿음에 리의천은 가슴이 뿌듯해졌다.

눈에 보이는것, 듣고느끼는 모든것을 점과 선으로 묘사하고싶은 충동을 느끼던 그 시절이 또 생각난다. 아니, 흘러간 청춘시절이 되돌아온듯싶었다.

늙은이답지 않은 혈기, 열정, 포부들은 수도의 봄풍경에만 취해서 생긴것인가?... 그는 소경이 뜻밖에 밝은 세상을 보았을 때처럼 희열의 도가니속에 잠기였다.

해빛이 함뿍 뿌려진 대기에서 아지랑이가 생의 열기인양 그물그물 피어오른다. 이 강산 그 어디나 봄은 화창하게 무르녹고있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란봉골안의 길목들을 두루 살피시다가 손목시계에 눈길을 주신다. 그러시고는 울밀대를 향해 걸음을 옮기시였다.

나지막한 둔덕을 넘으시던 그이께서 이번엔 청년공원과 지하철도역앞을 차례로 바라보신다. 분명 누구인가를 기다리고계시였다.

(?...)

리의천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사위를 두리번거렸다. 도시전경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바로 이자리가 곧 협의회장소로 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가까이 모시고 일하는 과정에 그러한 격식없는 모임을 수없이 지내본 그였었다. 인민대학습당의 지붕형성안문제를 놓고 대중토론이 진행될지도 모른다.

《얼마전 내가 어느 한 연구소에 들렀다가 그곳 동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이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또 걸음을 옮기시였다.

《사람의 건강과 수명은 문화정서생활의 폭과 깊이에 많이 관계된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정서가 풍부할수록 세포의 활력이 커진다는거지요. 일리가 있습니다.》

리의천은 저도 모르게 긴장해서 귀를 강구었다.

《역시 정서는 인간생활의 영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것입니다. 예술의 생명력도 정서에 의해 안받침 된다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건축은 종합적예술인것만큼 건축가는 누구보다 정서적생활감정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이룩하는 창조물에서 시대를 체현한 형상들이 생동히 살아날것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렇지 않느냐고 묻는 듯한 시선을 보내시자 리의천은 공연히 두손만 썩썩 맞비비었다.

일전에 목란이가 텔레비존의 극적인 장면을 가리키며 손목을 끝자 손을 해해 저으며 서가에 눈길을 더 바투 갖다대던 생각이 난다.

온 집안이 화면과 함께 울고웃는데 그만은 여전히 서재에서 미간을 잔뜩 좁혀가지고 낡은 참고서만 뒤적이고있었다.

마누라가 안방에서 건너보다 못해 움쭉 일어나 다가왔다.

《온 참, 세상일은 령감 혼자서 다 하는것 같수다래... 아니 점점 목석이 돼가는게 아니요?

난 지금껏 그런 사람이 큰일했다는 얘길 듣지 못했수다.》하고는 서재문을 아예 닫아버리었다.

그바람에 책상위의 도면장들이 날아갈듯 펄럭거렸으나 리의천은 안쪽에 대고 골살 한번 찌프리지 않았다. 오히려 문이 닫기자 서재안에 갇든 고적감으로 하여 그 어떤 고마움까지 느꼈었다.

그랬던것이 지금 이 시각에는 자기의 존재마저 무시당하듯한 서글픔으로 뒤채이면서 흥벽을 몹시 건드렸다. 하긴 생활을 외면하고 그와 련관된 모든것을 제절로 하나하나 막아왔으니 누구를 탓할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한결 더 따사로와진 해빛은 후미진 골짜기의 작은 그늘에도 호호호트 비쳐들었다. 질어가는 봄기운속에 나무아지들과 푸른 잎사귀들이 더 한층 운택한 색깔로 자태를 드러낸다.

포석길에 나서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진중한 어조로 다시 화제를 이으시였다.

《혁명가들이라고 하여 투쟁과 생활이 따로 있는것이 아닙니다.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수령님을 따라 난바다의 첫기슭을 떠난 김혁이나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생활과 투쟁은 언제나 하나로 잇닿아있었습니다.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악조건에서도 그들이 있는곳에서는 언제나 쾌기있고 생기발랄하며 혁명적량만이 넘치는 생활화폭들이 펼쳐지군하였습시다.

이것은 오늘에 와서 레외가 될수 없습니다. 생활의 폭이 좁고 정서가 메마른 사람은 창조적사색이 빈곤해지고 결국은 시대의 락오자가 되고합니다.》

리의천은 몸을 흠칫 떨었다. 다심하고 사려깊으

신 그 말씀속에 정통을 찌르는 그 무엇이 번쩍이였다.

(후- 이 늙은 철부지가 큰 심려를 끼쳐드렸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바꾸어가신 레의 그 꽃화분이 불현듯 또다시 떠오른다. 죄송스럽기란 이를데가 없었다.

갑자기 그는 몸의 균형을 잃고 도면철을 떨어뜨리였다. 발을 헛디딘것 이다.

《허, 산길에서 맥을 놓지 마십시오. 발목이 상할수 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손수 도면철을 집어주시며 빙그레 웃으시였다.

《실장동무한테 그것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 많은것을 철할수 있게 크게 만드시오.》

리의천은 한순간 어리둥절하였다. 언젠가 한 동료로부터 일욕심 많은 사람의 물건이 다르다고 시까스름을 받던 도면철이다.

《이제 어방없이 커지는 대건설의 중요구획을 담당하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어느결에 흥분되시어 걸음을 빨리하신다. 예지로 번쩍이는 눈빛은 벌써 우뢰를 몰아오고계시였다.

80년대진군의 첫 북소리는 시대의 기념비가 일떠서는 건설장들에서 이미 울리였다. 이제부터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판을 더 크게 벌리는 것이다.

우선 수령님 탄생 일흔돛전으로 평양시 중심부로 인민적인 중심부로 일신한 다음 저기 문수벌과 평천일대 그리고 만경대지구와 락랑벌 주변들에는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주력거리들을 형성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곳곳에 체육오락시설과 문화후생시설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운택하게 할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심중에 무르익히신 구상을 끝없이 펼쳐보이시자 리의천은 그만 넋을 잃었다. 우주를 휘여잡고 세기를 주름잡는듯한 용단과 담력에 머리가 핑그르 돌 지경이었다.

《할수 있는가? 그것도 몇해안으로... 물론 자신만만 합니다.

오늘 나는 생활을 무한히 사랑하는 우리 근로자들과 그들의 모습속에 충만된 열정과 기백을 보고 더더욱 확신을 가졌습시다.

이제부터 사람들의 창조적로동은 그대로 춤과 노래로 되여 온 세상을 진감시키는 우리 식의 립체적인 대교향악으로 될것입니다.》

리의천의 가슴에 묵직하고도 뜨거운것이 떠-영하고 마주치더니 이어 기세찬 진폭으로 흥벽을 두

드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시대숨결의 환희넘친 전주곡이었다.

그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사색속에서 태동하는 새로운 년대의 장엄한 대교향악을 온몸으로 감수하고있었다.

하늘땅이 들썩하는 창조의 노래소리, 강산에 펼쳐지는 건설의 대륜무. 그이께서 지휘봉을 한번 움직이시자 락원의 절경이 창공높이 솟아오른다. 거기에서 메아리쳐오는 행복의 노래소리...

(정녕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색은 그 끝이 어디인가?)

리의천은 그 거룩한 세계의 한쪽 가늠에라도 가보았으면 하는 동심에 사로잡혔다.

《사실 건축가로서 실장동무의 전성기는 이제부터이지요.》

세월과 더불어 커만가는 사랑과 믿음이 한마디로 집약된 말씀이었다.

그는 감격으로 목이 껍 잡기였다. 이게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만나뵙기전만 해도 때이른 조락을 느끼고 그것을 숙명처럼 감수하던 자신이 아니었던가.

어느 순간부터인지 리의천은 온몸에 정력이 왕성해지고 막혔던 물목이 터진 때처럼 창작적흥분이 고래치는 감을 느끼었다. 도면철은 펼치지 않아도 이런 저런 화폭들이 꼬리를 물고 눈앞에 떠오른다.

아직은 딱히 짝어서 이거다 하고 말할수는 없다. 하지만 수없이 떠오르는 화폭속에 가슴울렁이게 하는 형상의 룬판들이 반짝 나타났다가는 구름속의 별처럼 사라진다.

머리우에는 맑고푸른 하늘이 가없이 펼쳐졌다. 언제봐도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 부풀리게 하는 조국의 아름다운 지붕이었다.

《그렇지! 오는군.》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반색을 하시며 둔덕 아래를 바라보신다.

《?...》

가슴벅찬 창조세계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한 리의천은 잠시 어리둥절하였다. 이어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이제 협의회에 둘러앉을 동료들앞에 수정안의 미숙한 착상이나마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별안간 그의 수북한 두눈썹이 푸뜰 하고 입귀가 저절로 벌어졌다. 울리막길의 굽인돌이를 나서는 분홍색 모자를 발견한것이다.

목란이었다. 그뒤로 산뜻한 봄철양복을 입고 목직한 구력을 든 머느리가 따라섰는데 몇발자국 떨어져서는 마누라가 늙은이답지 않게 치마바람을 일구며 활개짓한다.

《실장동무, 사실은 내 아까 저 목란이와 단단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모란봉에서 일요일을 즐기도록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리의천은 화석처럼 굳어졌다. 불몽치같은것이 목구멍을 알알하게 지쳐대더니 눈앞이 뿌옇게 흐려진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끝내 그는 마음을 건잡지 못하고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지질렀다. 뜨거운것이 주르르 두볼을 타고 흘러내린다.

《이러지 마십시오. 저애가 우리를 보았습니다. 어서 마중합시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놓으시고 성큼 앞서시였다. 저앞에서 목란이가 구울듯 달려온다.

《어... 넘어질라! 천천히, 천천히...》

그이께서는 바삐 마주달려가 덥석 안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리의천을 돌아보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아! 봄누리를 가득 채우시는 저 미소!!...)

우주의 천태만상이 다 비낀듯싶고 생활의 무한대한 의미가 다 담겨진듯싶은 그 밝은 미소로 하여 복반은 이 세상이 더욱 환해지고 조국은 영원한 청춘기를 맞이하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따사로운 이 봄날, 창광원으로부터 모란봉으로 이어진 류다른 산책의 길을 리의천은 심장속에 깊이 새겨두고싶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길이 전하리라 마음 다졌다. 한없이 차애로운 미소로 인간의 참된 삶을 꽃피우시는 그이의 위대한 생활세계속에서 이 몸도 젊음을 되찾고 창조의 전성기를 펼쳤노라고.

얼마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타신 승용차는 남포쪽을 향한 고속도로로 쏜살같이 달리였다. 그이께서 급히 찾으시는곳은 또 어디인지?!...

4월 15일, 2월 16일 기념작품

걷고 걸으시는 길은

리금녀

가을바람 싱그러운 들길이 좁게
무너지게 벼단실은 트랙포르들
런이어 꼬리부는
해포벌의 저물녘

갈매기 앓을듯 스치는 이랑넘어
불타는 노을을 함뿍 받으시며
아버이수령님께서서
바다가 농장을 찾아주셨어라

웃자락 가벼이 날리시며
농사가 잘되었다고
바다에 이어 황금파도가 참 멋있다고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며
이윽히 벌을 바라보시던 수령님
가을걷이 끝난 포전에
발걸음 천천히 옮기시여라

바람 찬 모내기철에
삼복 김매기철에
수령님 모셨던 황송한 마음들
하늘가에 닿은 로적가리앞에
수령님 모실 소원 간절하건만

탈곡장의 풍년노래 뒤에 두시고
홍성이는 마을을 뒤에 두시고
그루남은 이랑을 넘고넘으시는
아버이수령님

이 가을을 위하시여
저택의 정원에서 새 품종을 키우시고
이 풍년기쁨 마련하시려
들바람 맞고맞으신

뜨거운 그 사랑

농사를 맡은 분조장도 작업반장도
한해의 가을걷이 이런 날엔
풍년날알향기에 취해
미처 돌보지 않는 빈 포전인데

좁에 쥐여 흙을 비벼보시고
이랑사이를 재여보시고
거두는 계절 거두는 전야에서
심는 계절
심는 포전에 서신 심정이시거니

젖어드는 가슴에 새겨주시는
흙갈이 리치여
열어주시는 인수로 물길이어
흐르는 시간 잊으신듯
농장원들속에 주체농법의 원리를
하나하나 깨우쳐주시는
아버이수령님

어느새 수평선에 초생달이 솟아
은빛 찬란히 해포벌을 비치는데
풍요한 가을을 남기시고
우리 수령님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 이어가시여라

아, 수확의 계절 명절같은 계절은
인민에게 다 돌리시고
우리 수령님
이 저녁에도 봄을 안고 가시여라
한평생 인민을 위하시며
씨뿌리는 계절을 걷고 걸으시여라

김일성주석께 영광드리네

파비아우 까뇨뚜 고디뉴

언제나 겸허하신분
무한대의 덕망을 지니신분
그이의 인품에 머리숙여 삼가 인사올리네

한평생
정의로우신 그이
한평생 인민의 행복과
조선의 영광을 위해 바쳐오셨네

위대한 투사이시며
세계의 아들이신 그이께
정의의 영광을 삼가 드리노라

그이는 위대한 조선의 아들
그이는 인민의 친애하는분
자유로운 온 세계의 존경을 받으시는분

그이는 만경대의 수수한 초가집에서
영명한 수령으로 탄생하셨네
그이는 새봄을 맞는 민족의 앞길을
밝히는 영원한 등대
그이의 령도 따라 조선은 승리하리
통일의 앞길은 밝아오리

(필자는 뽀르뚜갈시인임)

김정일동지

조세프 느따리

김정일

그이는 견결한 평화의 수호자
자주의 새 세계를 위하여 싸우시여라
그이는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주체의 태양의 빛발 받아안고 탄생하신
위대한 영웅

언제나 인민의 뜻 꽃피워주시는
숭고한 사랑
인민은 노래불러 찬양하여라

김정일

그이는 자주의 수호자

그이따라 우리모두 나아가노라
단결의 노래부르며

승리의 기발 높이 들자
지구상에 더는 몽매한 인민이 없도록
인민들이 더는 가난과 슬픔을 모르도록

우리모두 하나로 뭉쳐 나아가자
향토성 따라
평화와 진보를 위하여

(필자는 콩고음악가임)

전형화된 농촌관리위원장

위대한 사랑은 불타는 충성을 낳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76년 6월 황해남도를 현지지도하시던 길에 안달수농민의 팔을 끼시고 사진을 찍어주시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어제날 이름없던 머슴군을 걸음마다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에 전사는 감격의 눈물을 지었고 그에 보답하기 위하여 충성을 다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우리 당의 농촌진지를 강화하고 주체농법을 관철하는 길에서 달성한 안달수농민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를 원형으로 한 예술영화가 나온것이 없는데 영화를 하나 잘 만드는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시었다.

1978년 12월 어느날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79년도영화창작계획을 친히 비준하여주시면서 안달수농민을 원형으로 한 작품을 우리 나라 농촌현실과 현시기 협동농장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함께 전형화하여 잘 만들라고 방향을 주시었다.

그러나 영화문학이 제대로 창작되지 못하여 3년씩이나 끌어오다가 첫 작업필름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마저도 씨윈치 못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의도하시는데로 농촌현실을 옹계 전형화하지 못하였고 협동농장 관리운영방법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였던것이다.

일군들은 하는수없이 영화창작에 대한 재포치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리고는 3차에 걸쳐 다시 작업필름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영화는 좀처럼 본래의 틀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결국 일군들은 본래의 영화문학을 가지고는 아무리 땀땀기를 하여도 그 틀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알고 작품창작을 다른 작가에게 맡겨 새롭게 쓰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른 작가가 쓴 새 영화문학 역시 씨윈치 못하였다. 그리하여 일군들은 창작가들을 완전히 새 사람들로 교체하여 창작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새로 무어진 창작단은 한달 남짓한 기간에 영화문학을 창작하여 1982년 10월부터는 촬영을 시작

하였으며 이듬해초에는 드디어 영화의 작업필름을 내놓게 되었다.

6~7년씩 끌어오던 영화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올린 일군들과 창작가들의 심정은 죄송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나마 힘들게 만들어올린 영화가 그에게 기쁨을 드리거나 하겠는지...

하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모든 지난일을 잊으신듯 혼연히 예술영화 《불타는 마음》의 작업필름을 보아주시었다.

그날은 바로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만수축원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뜻깊은 생신날인 1983년 2월 16일이였다.

그런데 것처럼 경사로운 명절에 올린 영화마저 그에게 기쁨을 드리지 못하였으니 그 죄송함, 민망함을 진정 어이하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날 영화를 보아주신후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에게 전화로 무엇보다도 영화문학을 잘 쓰지 못하였다고, 영화에서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이 혼자서 부식토를 구하려 애쓰며 돌아다니지만 생활이 다양하지 못하다보니 극적감정도 축적되지 못하고 애착도 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식토를 생산하는 이야기만 하니 영화가 재미없다고 하시었다.

또한 영화에서 세대교체문제나 로당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생활을 다양하고 깊이있게 그려야 하겠는데 그렇지 못할뿐아니라 당조직이나 사로청조직이 농촌에 있는 건달군들과 투쟁하는것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시었다.

사실 창작가들은 영화에서 세대교체문제나 건달군과 투쟁하는것을 보여주려고 세대군인들이 기사를 비판하는 장면도 넣고 건달군청년도 설정하였지만 그것을 주인공선을 부각시킬수 있도록 잘 맞물리고 극적으로 깊이있게 그리지 못하다보니 어느것 하나도 완성된 형상으로 보여주지 못하였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영화에 극적약속도 없이 드나드는 인물이 많은데 극조직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지적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어 예술영화 《불타는 마음》은 연출도 잘하지 못하고 배우들의 연

기형상도 잘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끝으로 예술영화 《불타는 마음》을 잘 만들자면 농촌에서 풀어야 할 절실한 문제들을 깊이있게 제기하고 풀어야지 지금처럼 부식토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는 문제성있는 영화를 만들수 없다고 하시면서 예술영화 《불타는 마음》을 현시기 농촌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들을 보충하여 다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은 끝났다.

하지만 일군은 오래도록 그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뜻깊은 날에 그이께 기쁨을 드리지 못한 자책이 가슴속에 마쳐왔기때문이었다.

일군으로부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전달받은 창작가들의 심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마음은 자연히 잘되지 못한 영화를 보시고 심려하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로 달리였다.

6~7년씩이나 기다리고기다리던 영화.

뜻깊은 생신날에 보신 영화가 변변치 못했으니 그이의 심정은 얼마나 무거우시랴.

그런데 얼마후였다.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의 다른 일군에게 또다시 예술영화 《불타는 마음》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다는 소식을 흥분속에 듣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날 당중앙위원회의 다른 일군에게도 영화가 현시기 농촌에서 제기되는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심도있게 잘 그리지 못한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영화를 만드느라하면 걸작도 만들고 수준이 낮은 작품도 나오기 마련이라고 하시며 오늘 비판을 받았다고 하여 낙심하지말고 신심을 가지고 예술영화 《불타는 마음》을 잘 만들도록 고무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계속하여 래일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예술영화 《불타는 마음》을 보여주고 의견을 받은 다음 수정대안을 세워가지고 영화를 완성하라고 따듯이 말씀하시였다.

알고보니 그이께서는 창작가들이 영화에 대한 지적을 받고 낙심하여 신심을 잃을가봐 그것이 못내 가슴에 걸리시여 창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천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려고 전화를 걸어주시였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전달받은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튿날 일군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무원과 당중앙위원회의 책임일군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고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창작가들에게 알려주고 그들과 함께 수정대안을 작성하였으며 그 정형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보고드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보고를 받으시고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영화에 설정된 인간관계는 그대로 두고 협동농장을 관리운영하는데서 나서는 문제와 농촌진지를 잘 꾸리고 주체농법을 관철해 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를 보충하여 영화를 빨리 완성하라고 말씀하시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4월 15일이 다가오고있었다.

영화를 빨리 완성하라고 하신 그이의 말씀에 영화를 뜻깊은 탄생일에 수령님께 올리려는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창작가들은 밤에 낮을 이어 창작전투를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4월의 명절을 며칠 앞두고 드디어 두번째 작업필름을 완성했다.

1983년 4월 12일 깊은 밤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몹시 분망하신 가운데서도 영화를 친히 보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이튿날 아침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에게 전화로 영화음악을 잘 쓰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영화에서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이 이제는 늙어서 일처리를 잘하지 못하므로 자리를 내놓아야 하겠다고 군협동농장경영위원장이 말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격하여 걸어가는 장면에 준 노래는 화면내용과 맞지도 않고 극적감정으로도 끌려가지 않는다고 지적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영화는 명절전야의 마지막시간까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가르치심에 의하여 훌륭하게 완성되게 되었다.

영화창작에서의 성과는 언제나 그이의 손길에 의해서만 무르익었다.

아, 당위원회 창가의 불빛이여

성만실

깊어가는 북변의 밤
파도소리 어릴적 자장가소리마냥
꿈속처럼 들려오는데
항구도시의 호젓한 창가에 서니
가슴에 안겨오는 불빛이 있어라

수도교외의 검소한 청사
살구꽃이 한창인 그 뜨락
어머니의 눈빛처럼
언제나 정다운 그 불빛이여

어려운 일 있어도
기쁜 일 생겨도
어머니 찾던 어릴적 그 마음으로
언제나 마음속에 찾게 되는곳

들리는건 기슭을 치는 파도소리
갈매기의 한가로운 울음소리뿐
천리나 내 몸은 와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달려가는곳

나는 느끼노라
아름찬 일감을 켄 때도

함께 쳐들어주는 그 고마운 손길을
내 잠시나마 일손을 늦출 때면
엄한 그 눈길이 나를 바라보는것만 같아
서둘러 마음을 채찍질하며...

멀리 있는것이 아니구나
당위원회여
내 운명을 말없이 지켜주며
잠시도 내곁에서 떠나지 않는
어릴적 내 어머니처럼
내 인생의 길라잡이 당위원회의 불빛

아, 그 정다운 불빛속에
내 집 창가도 보이누나
늘쌍 거닐던 아름다운 구내길도
내 귀염둥이의 요람도
그리운 안해의 얼굴까지도...

수도와 멀리 떨어져
외진 바다가 한기슭에 있어도 좋아
천리를 가도 만리를 가도
내 마음 밝게 비쳐주는
정다운 그 불빛이 있어

한 당일군에 대한 추억

김정철

우리는 한품에 안겨있다

기나긴 제방우를 걸어가며
나는 그를 생각한다
대바르고 다감하고 정열적인
인간중의 참인간인
우리 당비서

그는 이미 우리곁을 떠났지만
그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먼지
자애로운 영상이 어러오나니
그를 키워 우리앞에 세워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이...

지금도 그 말씀 들려오는듯
아직도 이십대의 젊은 세 포비서
당일군의 첫걸음 떼던 그앞에
한생 《우리 비서》로 불리우며
인민의 총복으로 살아가라 하시던

천금같은 그 말씀속에
당일군 그의 한생이 규정되어있었더라
쉽지 않은 그 길우에
때로 맥을 놓고 주저했을 때면
손잡아 일으켜주시던 손길

잊을수 없어라
해일이 제방을 들부신 그 저녁
친히 전화로 비서를 찾으시여
나는 동무들을 더 믿고싶다고...
아, 그 저녁 어머니앞에 아이처럼

어깨를 들먹이던 그가 아니었더냐
《우에서 대주면 더 좋고
안대주어도 제힘으로 하겠습니다》
아버이수령님앞에서
그가 올린 소박한 맹세도
인민의 의지로 온 나라에 안겨주시였거니

돌아보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에 안겨
자욱자욱 걸어온 한생이
저 바다우의 제방처럼
한눈에 확 안겨오는 사람

아 어머니에게도 어머니가 있듯이
우리 비서, 비서아바이로
우리 마음을 의지해 살아온
그에게도 의지의 품이 있었어라

지금은 그가 서있던 자리에
젊은 당비서
허나 새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는것은
친애하는 그의 품이 키워낸
그도 우리 당의 일군이기에

투쟁하고 전진하며 창조하는
위대한 우리 당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끄시는 당
우리는 모두가 한품에 안겨
하나의 강령, 그의 위업을 안고가노라

비서도 이런 때는

밤물이 불어오는 제방가에
나란히 앉아있는 한쌍의 남녀
비서는 첫눈에 알아보았다
3직장의 굴착기운전공과
화장품공장의 지원차처녀

간석지에 펼쳐갈 래일을 그리며
도란도란 끝없는 이야기
그만에야 넘어오는 밀물도 잊은듯

《에그머니 이 치마...》
《까짓거 이제야 늘 젖어있을걸》

좋은 때로다
생각나라 언젠가 즐거운 좌석에서
총각이 허물없이 조르던 말
비서동지 런애담을 들려달라고
그때 그는 그저 빙그레 웃기만 했다

무엇을 말해주랴 젊은이에게
 해종일 무거운 흙지계와 씨름하며
 감탕을 쳐올리던 비단섬기습
 서른을 못넘긴다 로부모 독촉에
 전선에서 함께 돌아온 처녀에게
 오는 일요일 결혼식을 하자구...

그것이 전부였던 그의 연애담
 허나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
 유보도의 달콤한 속삭임은 없었어도
 서로의 마음을 따뜻이 녹여주며
 혁명의 한길우에 의지가 되어주던
 그보다 아름다운 사랑은 없거니

아 이밤
 제손으로 쌓아올린 제방우에 나란히 앉아
 넓어져가는 조국의 경로를 바라보며
 정을 나뉘가는 행복한 저 한쌍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에게서
 일하는 법만 배운게 아니구나

마음갈아선 성큼 달려가 축복하고싶지만
 아서라, 당비서도
 모르는척해야 할 때가 있는 법
 돌뿌리를 걷어차며 혼자 중얼거린다
 -에 달이나 떼으면 좋겠군!

불 켜지 않은 방에 홀로 앉아

불 켜지 않은 방에 홀로 앉아
 비서는 자신과 싸우고있다
 앞에는 당사업의 가장 어려운 일
 한 당원의 책벌문제

지금 여기를 쳐다보고있으리
 어둠이 내리는 저기 제방끝
 주섬주섬 맥풀린 일손을 거두며
 온 직장이 근심에 잠겨
 이제 직장장이 어떻게 될가

그는 잘 안다 그 당원을
 찻잔한 바다바람 함께 마시며
 감탕우에 나란히 찍어온 자욱
 몇개인지 말하라면 말할수도 있는 사이

너무나도 잘 안다 그 사람을
 일찌기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직장에서 잔치상도 차려준 그
 당원증을 받던 날
 당의 품이 고마워
 가슴치며 울던 그가 아니었던가

이제껏 쌓아올린 제방에 비한다면

허물어진 구간은 수백분의 하나
 폐지마다 우점으로 가득찬
 깨끗한 리력우에
 그래 오점을 남겨줘야 하는가

용서하라 다시야... 다시야 그가...
 값죽은 동정은 옷자락을 붙잡는데
 그는 그렇게 할수 없었다
 그에겐 그럴 권리가 없었다
 바다우에 흩어진 제방이 아니라
 한 일군의 마음속 사심을 보고있는 지금

어머니당앞에 내세워야 할 자식은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티 한점 없는 충신
 그런 충신을 키워야 했기에
 아파도 아프게 때려야만 했다

그때문에 당규약에도 있지 않는가
 책벌이라는 사랑의 채찍이
 아 때가 되면 그도 알게 되리라
 자식들의 종아리에 채찍을 안길 때
 매를 드는 어머니는
 먼저 심장에 맞고있다는것을

언제나 한모습

앉아서 일을 볼 사무실이 있어도
 늘쌍 현장에서 살다싶이한다
 타고다닐 차가 생기여도
 사람들과 걷기를 더 좋아한다

300세대 사택마을 5호동 6호

웅근 몇개의 군이 들어왔을
 넓은 땅을 조국에 넘겨주면서도
 삼간집 한채 지을 몇평방의 땅조차
 자신을 위해서는 남기지 않아

10년을 한자리에 걸쳐있는 그의 문패

사람들은 말한다 애정을 담아
머리우의 성근 백발을 제외하고
우리 당비서에겐 달라진것 없다고

진정 그에게 달라진것 없던가
아니다 많이도 달라지고 달라졌다
어제와 다른 벽찬 현실
그대로 창조인 당사업이기에
당중앙의 불빛 우리러
부단히 자신을 완성해가는 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따라
들끓는 현장에서 선동문도 썼고
과학과 기술의 시대의 당일군
그자신이 남먼저 대학도 나왔다

다만 달라지지 않는것이 있다면
당중앙이 일찌기 심장에 새겨준
그의 좌우명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생각도 군중과 한가닥
말도 군중과 한목소리
걸음도 군중과 한보폭
서로의 마음속에 늘 함께 있으니
달라져도 달라짐을 느끼지 못할뿐

아 잠시나마 군중을 잊고사는것처럼
그에겐 무서운 일 없어라
그때엔 당비서자리는 있어도
사람은 벌써 보이지 않으리라

우리는 한 위업을 안고간다

어제와 다름없는 발과소리
투석을 재촉하는 호각소리
수천의 숨결이 높뛰는곳
당은 오늘도 전투장에 있다

저기 들팍이 막돌을 싣고
제방을 구르며 내닫는 자주호
애끓은 운전수와 나란히 앉아
아름다운 미래를 그앞에 그려주며
함께 조향륜도 돌려가고

저기 부재를 가라앉히는 공사장
담대한 잠수부의 심장속에
백만의 용기와 지혜를 주며
함께 바다밑을 걸어가고있어라

들어보라
제방이 쪽쪽 뻗어가는 저기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저 우렁찬 웨침소리를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폭풍속에 올라가는 장엄한 합창을

투쟁이나 투항이나
전진이나 후퇴이나
판가리전투의 오늘
당은 언제나
우리와 한진지에 있거니

오 당은,
당은,
위대한 심장의 활력으로
살아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

위대한 그 심장
당중앙을 따라
우리는 가노라
백두의 길
우리 식의 길
필승불패의 사회주의 길

투쟁하는 당
전진하는 당
창조하는 당
이제 태어날 미래들도
우리는 다같이 하나의 위업
우리 당의 강령을 안고가노라

영원히 한길에서

류도희

날이 밝으면 한순임은 평양으로 떠나게 된다. 남편의 영웅메달이 기다리고있는것이다. 그는 이날을 얼마나 버르어왔는지 그리고 이 걸음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 모른다.

정전이 된 이듬해였던 작년 그러께, 그는 어린것들때문에 집을 떠날수 없어 철도에서 일하는 친척 한사람에게 부탁하여 영웅증서와 메달을 타다달라고 평양에 보냈었다. 그랬더니 문기섭영웅에게는 안해와 아들이 있으니 아무때건 그들이 직접 와서 타가도록 하란다는 해당기관의 전달만을 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때로부터 순임은 아이들이 어서빨리 자라기를 기다리면서 한편 의복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평양에 가자면 당장 의복이 있어야 했다. 그에게는 남들앞에 입고 나설만한 변변한 옷 한벌 없었다. 게다가 가뜩이나 궁벽한 산골인데다가 전쟁을 겪고난지라 어디서 빌려입을데도 없었다.

그는 산비탈에 화전을 늘쿠는 한편 돼지를 먹고 닭마리수를 늘였다. 식량도 바르고 또 시아버지가 풍을 만나 오록을 잘 놀리지 못해 손포도 딸리는 형편에서 이것은 여간만 아람찬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었다. 그는 밤낮없이 걸싸게 일손을 다그쳤으며 70리가 넘는 읍에도 부지런히 나들면서 닭알을 팔아 한푼, 두푼 돈을 모았다. 그리하여 이태만에 겨우 자기와 큰 아이의 옷을 마련할수가 있었다. 마음갈아서는 두 아이를 다 해입히고 함께 데리고 가고싶었지만 그러자면 몇달이 더 걸려야 했다. 그리하여 순임은 큰아들 광선이만을 데리고 가기로 결심하였던것이다. 떠나기 전날 순임은 자기 방에서 그간 준비해온것들을 차곡차곡 간중그리며 길 떠날 차비를 갖추어나갔다.

《아이에미야! 아직도 뭘 그러니? 어서 자려무나!》

아래방에서 시어머니의 다심한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초저녁부터 벌써 몇번째의 신칙인지 모른다.

《네, 이젠 다 됐어요!》

순임은 놀리던 손을 멈추고 아래방쪽을 향해 나직이 대답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한다는것이 그만 시부모님들의 잠에 방해할 끼친것 같아 여간 송구스럽지 않았다. 그는 다 꾸린 손짐을 살며시 방한쪽에 밀어놓고는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칼을 손으로 쓸어올리며 《호-》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불을 끄기전에 다시한번 방안을 둘러보았다. 《어쩐지 무엇인가 빠진것이 있는것만 같아 마음이 놓

이지 않았다.

방바닥에는 두 아이가 고물개모양으로 가로세로 누워서 자고있었다. 래일이면 기차를 타고 평양에 간다고 그리도 좋아하던 광선이는 가슴에 안고자던 새옷이 바닥에 굴러떨어진것도 모르고 아래목에서 모재비로 잠들었고 여섯살짜리 광운이는 광선이의 허리우에 한쪽다리를 척 올려놓은채 정신없이 툴아떨어졌는데 불에는 아직도 눈물자국이 어롱어롱했다.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온종일 울며 떼를 쓰던 광운이었다. 온 집안이 달라붙어 아무리 달래고 별별소리를 다해가며 얼려보았으나 막무가내였다. 그러더니 제풀에 지쳐 잠들고만것이였다.

오래전부터 것처럼 간간히 따지고 또 따져가며 갖춰온 차비인지라 아무리 살펴봐야 놓친것이 있을 리 없었다.

(원 애두! 세차긴...)

방안을 둘러보던 순임은 광운이를 무겁게 안아 바로눕히고 이불깃을 여며준 다음 나란히 자는 아이들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등잔불을 켜다.

퇴창으로 비쳐드는 달빛에 방안은 흰했다. 말코지에 걸린 옷가지들과 시렁우의 버치, 방 한쪽구석에 놓인 께짝이며 보따리들이 전에없이 무슨 곡진한 사연이라도 속삭이려는듯 목화처럼 우렁이 떠오르며 그의 눈앞으로 다가왔다.

산골의 밤은 바닥모를 정적에 잠겨있었다. 이따금 어디선가 멀리서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길게 들려오곤했는데 그 소리도 정적을 깨뜨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게 할뿐 사위는 귀가 징 울릴만큼 고요했다.

순임은 어쩐지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해보았으나 헛일이였다. 자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웬일인지 머리는 점점 더 맑아지고 무어라고 딱히 적어서 말할수 없는 가벼운 불안과 흥분이 한데 뒤엉켜 온몸을 사로잡는것이였다. 순임은 이것을 먼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의례히 느끼게 되는 앞으로 벌어질 미지의 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호기심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사실 그는 평양은 고사하고 도소재지에도 가보지 못했을뿐아니라 여적 기차 한번 타보지 못한 산골녀인이였다.

(남들도 다 다니는데 나라고 못갈가. 저기도 사람사는곳인데 무슨 걱정이란!...)

그는 갈마드는 잔걱정을 배심있게 털어버리며 자신을 다잡았다. 그러자 생각났인지 얼마간 마음이

가라앉는것 같았다. 이제는 잘수 있을것 같아 베개를 고쳐베고 돌아누웠다.

그러나 오산이었다. 잠이 오기는커녕 어떻게 된 일인지 이번에는 지난날에 있었던 오만가지 일들이, 남편과의 사이에 있었던 갖가지 일들이, 지어 여직껏 거의 잊어버리다싶이 했던 일들까지가 이밤따라 깊이 묻혀있던 가슴속을 헤집고 새록새록 떠오르는것이였다. 마치 한여름의 뭉게구름이 꾸역꾸역 피어오르듯 꼬리를 물고 끝없이 떠오르는것이였다.

×

부전령산줄기의 깊디깊은 산골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비탈밭을 두지며 자라난 한순임은 17살때 어머니의 치마를 빨아입고 련허머로 시집을 왔다. 봉건이 심해서라기보다 대륙침략전쟁에 미쳐날뛰던 왜놈들이 《정신대》요 뭐요 하면서 처녀들을 마구 끌어가기때문에 부모들이 서둘러 출가를 시켰던것이다.

시집 역시 하루에 세시간밖에는 해를 보지 못하는 무서운 산골이였다. 그런데 시집온지 달반만에 아직 남편을 어떻게 불렀으면 좋을지 몰라 《저-》하고 망설이며 얼굴을 붉히곤하던 그런 시절에 남편이 징용으로 끌려갔다.

일본으로 떠나던 날... 아비규환의 혼잡속에서 차창으로 내민 남편의 얼굴을 놓칠세라 뒤쫓던 그의 망막에서 기차가 사라지고 기적소리만이 산골이에서 목메이듯 길게 울려왔을 때 순임은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견잡을수 없는 절망감에 그는 몸을 떨었다.

그때로부터 하루가 왜 그리도 길어졌는지... 굶주림과 고된 일로 자신이 겪는 고통은 그래도 참아낼수 있었다. 허나 죽음이 항상 그림자처럼 뒤따른다는 무시무시한 일본 탄광에서 모진 고역을 치르고 있을 남편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다. 몸부림과 한숨, 눈물속에서 애오라지 남편이 무사하기만을 바라고 빌며 밤을 밝히고 낮을 보낸 지지리도 암담하던 세월이였다. 그의 동글납작하여 복스럽던 얼굴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여위여갔다.

한해가 지나갔다.

그해따라 유난스러웠던 더위도 고개를 숙이고 선기가 돌기 시작한 어느날, 70리밖 읍에 있는 딸네 집에 나들이갔던 한 령감이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다. 사흘전에 조선이 해방되었다는것이였다. 이 소식은 삽시에 퍼져 끝안은 해일이 인 바다처럼 끓어올랐다. 사람들은 메아리를 일쿠며 목이 터지게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홀어졌던 남정네들이 고향을 찾아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먼산에 첫눈이 내린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

기슭이 돌아왔다.

그날밤...

그를 반겨 찾아왔던 마을사람들도 다 돌아가고 살아돌아온 아들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던 부모들도 정주간에서 자리에 든후 자기들의 방에서 돌이 남게 되자 순임은 남편의 얼굴을 새삼스럽게 놀랜 눈으로 바라보았다.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사람이 저지경이 됐을가...)

피골이 상접하여 판사람처럼 여윈 남편을 바라보는 순임의 가슴은 저미는듯 아팠다. 기슭이 안해의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소.》

순임은 겹쌍엇던 설음이 한꺼번에 복받쳐 목이 짝 메였다.

《내야 뭐- 집에 있었는데... 그 험한데서 당신이 정말...》

순임은 말을 맺지 못했다.

《없는 살림에 부모님 모시고 당신이 정말 고생이 많았소!》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는 남편앞에서 그는 마침내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어깨를 떨었다.

《이젠 그만하우. 이제부터 잘 살면 되지 않소?!》

남편이 험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됐어요. 당신이 돌아오셨으니 이젠 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말할수 없는 기쁨이 넘쳐흘렀다. 그에게 있어 남편은 삶의 전부였고 행복의 모두였다. 남편만 함께 있어준다면 세상에 더 바랄것이 없는 그였다.

《여보! 고생끝에 살아서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지난날을 옛말하면서 잘 살아봅시다. 앞으로 좋은 세월이 올거요.》

《...》

순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우리 나라가 해방되었고 장군님께서 돌아오셨으니 이제 우리같이 가난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잘 살게 될거요.》

《장군님이요?》

순임은 물기가 미음도는 까만 눈을 빛내이며 되물었다.

《그렇소! 저 백두산에서 왜놈들과 싸우시던 김일성 장군님말이요. 바로 장군님께서 왜놈들을 때려부시고 나라를 찾아주신거요. 이렇게 내가 살아돌아올수 있는것도 바로 장군님덕분이요.》

기슭은 흥분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피기없던 얼굴에 붉은 빛이 노을처럼 피어올랐다.

《여보, 왜놈들이 제절로 망한것이 아니요. 내가

왜놈들의 채찍밧에서 탄지계를 지고 좁은 굴을 무릎걸음치고있을 때도, 또 당신이 홀웃바람으로 얼음구멍을 깨며 저 내가에서 물을 길고있던 때에도 그리고 부모님들이 사치판에 끌려간 이 아들을 걱정하며 뜬눈으로 밤을 밝히고있었을 때에도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빼앗긴 나라를 찾으시려고 밤낮없이 왜놈들과 싸우시었소. 우리는 비오는 날이나 추운 겨울밤에 오막살이에서나마 그래도 구들에 누워서 잠수가 있었지만 그러한 때에도 장군님께서 거느리신 혁명군들은 눈덮인 산속에서 한지잠을 자면서 왜놈들과 싸웠던거요. 바로 그덕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될수 있었고 나도 이렇게 살아오게 된 거요. 알겠소?》

남편의 열기띤 이야기는 순임이 앞에 넓디넓은 세계를 끝없이 펼쳐주었으며 그의 가슴을 그 어떤 숨막힌 감정으로 가득차오르게 하였다. 그와 함께 여적 모르고있던 남편의 사람됨됨을 비로소 알게 된것 같아 놀라움 또한 컸다. 그러나 남편의 이야기를 리해하기에는 너무도 아는것이 적은 순임이었다. 다만 그의 작은 가슴이 세차게 높이 뛰었을뿐이었다.

《그렇군요... 난 산골에만 파묻혀있다가나니 아무것도 모르고...》

순임은 가슴가득 차오른것을 내뿜듯 큰숨을 내쉬었다.

《장군님께서 조국에 돌아오셨으니 이제 우리같이 가난한 농민들에게 땅도 주시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마련해주실거요.》

기섭은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네? 땅을요?》

너무도 놀라운 소리였다.

《그렇구말구. 땅뿐이겠소? 노동자, 농민들이 잘 살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워주실거요. **김일성** 장군님은 우리 민족의 은인이시며 인민의 위대한 태양이시오. 이제부터 모든 일을 장군님께서 하라시는 대로만 해야 하오.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하나같이 뭉쳐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만 일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기 좋은 나라를 세울수 있소. 그러니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이 마땅히 장군님을 받드는 일의 앞장에 서야 하지 않겠소? 아, 난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터질것 같소!》

열정에 넘쳐 말하던 남편의 별경게 달아올랐던 그날의 얼굴이 순임의 눈앞에 선히 떠오르고 그의 열기띤 목소리가 귀전에 생생히 되살아올랐다. 그와 함께 그무렵에 있었던 가지가지 일들이 끝없이 눈앞을 지나가는것 이었다.

참으로 격동으로 들끓던 나날이었다. 그후에 벌어졌던 일들이 신통히도 남편이 말하던 그대로였다.

이곳 산골마을에도 놀라운 전변이 일어났다. 토지개혁이 실시되어 사람들은 대를 두고 것처럼 부

러워하며 바라오던 땅의 주인이 되어 해가 지는것도 모르고 성수가 나서 땅을 뿌지고 곡식을 가꾸었다. 그뿐아니라 여제날의 락후와 몽매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난생 사람들앞에 얼굴을 들고나서지 못하던 숫진 처녀들이 사람들이 가득 모인 회의장에서 새나라 건설을 위한 결의를 다지며 열렬히 토론들을 하였고 완고한 봉건의 보이지 않는 사슬에 얽매여 뒤고 방구석에만 박혀있던 아낙네들이 남정네들과 어울려 글도 배우고 노래도 불렀다. 사람들은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씩없이 일했다. 아무리 일해도 지칠줄 몰랐으며 자꾸만 새힘이 솟아오르기만 하는것이였다. 참으로 희망차고 활기에 넘친 나날이였다. 이러한 나날속에서 순임이도 우리 굴을 뜯어읽게 되었으며 세상일에 대해서도 차츰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그무렵, 마을에서는 다섯청년이 한꺼번에 입당하여 처음으로 당세포가 조직되었는데 남편 문기섭도 그 첫 당원중의 한사람이였다...

영화의 화면처럼 흘러간 지난날의 일들을 더듬던 순임의 눈앞에 문득 남편이 당원증을 타가지고 돌아오던 날의 일이 떠오르며 부지중 얼굴이 뜨거워올랐다...

그날 군당에 간다고 어둑새벽에 집을 떠난 남편이 초저녁에 나는듯이 돌아왔다. 저녁을 먹은후 순임은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다.

《당원증을 탔어요?》

《탔소!》

《좀 봅시다.》

《정신 나가지 않았소?》

남편은 무슨 당치 않은 소리냐는듯 그의 청을 단마디로 일축했다.

《왜요. 보이면 안되나요?》

《안되지 않구.》

《아무도 없는데 잠깐만 보자요.》

《글쎄 안된다니까.》

순임이도 그것이 함부로 볼수 없는것이라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이 너무도 장하고 자랑스러워 영석을 부리며 생억지를 쓰는것이였다. 또 사실 몹시 보고싶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순임은 끈지게 졸라댔다.

《자기 안해한테두 못보인단 말이에요?》

어조에서는 노여움이 섞여나왔다.

《안해가 아니라 더한 사람에게도 안되오. 이건 당밖에는 절대로 보일수 없는거요.》

안해의 얼굴에서 실망하는 기색을 읽자 남편은 정색해지며 말했다.

《여보! 이걸 **김일성** 장군님께서 주신거요.》

순임은 금시 눈이 둥그래졌다.

《아니 그럼 장군님께서 오셨단말이에요?》

《자 이렇게 답답하다구야! 우리 당이 바로 장군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당이란말이요. 그리고 **김일성** 장군님은 우리 당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시란말이요!》

그러더니 남편은 당이란 무엇이며 **김일성** 장군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당은 무엇을 위해 싸우며 또 어떤 사람이 당원이 될수 있는가에 대하여 순임이가 알아들을수 있도록 쉬운 말로 오래동안 이야기해주었다. 그리고나서

《당신도 일을 잘하고 공부도 잘해서 사람들의 앞장에 서면 당원이 될수 있소!》 하고 힘주어 말했다.

《나같은 촌녀자요?》

《그러잖구. 우리 같이 못살던 사람들이 당에 들어 당을 받들지 않으면 누가 받들겠소. 또 당을 받드는데 녀자고 남자고 무슨 상관이요. 그러니 당신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조직생활도 잘하며 많이 배워서 당원이 되어야 하오.》

《...》

안해가 생각에 잠겨 말없이 앉아있자 남편은 부드러운 어조로 계속했다.

《서운하겠지만 어찌겠소. 당의 규률이 그런걸... 누가 보건말건 당의 규률을 량심적으로, 자각적으로 지키는건 당원의 첫째가는 의무이며 생활준칙이요. 이젠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당밖에는 보일수 없는것이니 그리 알아주요!》

순임은 더 조를수가 없었다. 하여 그는 끝내 남편의 당원증을 보지 못하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순임은 자기가 남편에 대해 그리한것처럼 남편도 자기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며 더없이 귀하게 여기고있다는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었다. 그러나 이날 그는 남편에게 자기가 가정보다 비할수 없이 귀중한것이 있다는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남편에게 그토록 귀중한것일진대 자기에게도 또한 것처럼 귀중한것이라는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참 철딱서니도 없었지...)

순임은 그날밤 자기가 남편과 주고받은 말을 되새겨보며 어둠속에서 얼굴을 붉혔다.

순임이 당에 대해 초보적으로나마 눈을 뜨기 시작한것은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부모나 남편, 가정보다 훨씬 더 크고 귀중한것이 있다는것을 어렵잖이나마 깨닫기 시작한것은 아마 이때부터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순임은 그때 자기같은 무식한 촌녀자가 이처럼 귀중한 당의 당원이 될수 있으리라고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그저 착실한 며느리로, 충실한 안해로 남편의 뒤바라지를 하면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왔을뿐이었다.

오늘 순임은 자기의 지나간 정신적성장의 로정우에 찍힌 자욱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자기가 어

엿한 당원이 된것을 누구보다도 대견해하고 기뻐하여줄 남편이 곁에 없음을 새삼스럽게 가슴아프게 생각하였다.

문득 한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평양에 가면 혹시 그이를 만나볼수 있지 않을까?)

느닷없이 떠오른 생각에 그는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다음순간 그는 쓰거운 웃음을 웃으며 부질없는 생각을 털어버리려고 돌아누웠다. 어째서 이런 엉뚱한 생각이 불쑥 머리속에 떠올랐는지 그로서도 알지 못했다. 아마 오래동안 버려오던 남편의 영웅메달을 타러 막상 떠나게 된데서 오는 환각이였는지도 모른다.

(무슨 생각을... 만날 사람이라면 벌써 만났지...)

그는 설레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눈을 감았다. 그러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방금 털어버린 그 생각, 남편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것이였다.

(아이참, 내가 왜 자꾸 이렇가?...)

그는 자신을 다잡으려고 애쓰며 몇번 뒤채기다가 마침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앉고말았다.

×

전쟁이 일기전해에 세포위원장이 된 남편은 농사일은 전적으로 어머니와 순임이에게 맡기다싶이하고 자기는 부락사업을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녔다. 그래서 것처럼 귀여워하던 아들 광선이에게도 시간을 바치지 못했다. 한편 순임은 순임이대로 농사며 집안일, 게다가 리녀맹부위원장의 일까지 맡아 눈코 뜰사이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었다.

이러한 속에서 미체침략자들이 일으킨 전쟁이 터졌다. 마을에서도 청년들이 앞을 다투어 전선으로 달려나갔다.

풀바닥논에 벼가 누렇게 익어가던 어느날, 남편은 어느때와 달리 초저녁에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보기 드문 일이었다. 그는 아이와 함께 누워있는 안해곁으로 다가와 앉으며 낚은지 두주일밖에 안되는 광운이를 안아 무릎에 올려놓더니

《광운아! 아버지는 매일 전선으로 떠난다. 앓지 말고 잘 자라거라.》하며 아이볼에 입을 맞추는것이였다.

순임은 갑자기 눈물이 왁작 솟아올라 얼른 등을 돌리고 돌아누웠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수가 없었다. 남편을 마주보면 눈물이 쏟아질것 같았으며 무어라고 입을 벌리기만 하면 울음이 터질것 같아 그는 숨을 죽이고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아까 남편이 전에없이 일찍 집에 들어서던 첫순간에 벌써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예감한 순임이었다.

한동안 아이를 안고 앉아 말없이 안해의 기색을 살피고있던 남편은 이윽고 아이를 도로 자리에 눕히고 방앗목에 무쳐놓은 강냉이이삭결에 돌아왔더니 강냉이알을 까기 시작하였다. 퍼그나 오래동안 아마 한말은 좋지 않을것이다. 그동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손을 멈춘 남편은 부시력 거리며 담배를 찾아서 말아피웠다.

(속이 편안치 않구나!)

남편이 천상 입에 대지 않던 담배를 피우는것을 보고 순임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여보! 내가 떠난다고 당신 또 울지 않겠소?》

이윽고 남편이 입을 열었다. 징용으로 떠나던 때를 두고 한 소리였다.

《울긴… 어린아이라고 울어요?》

순임은 울음이 터져나오려는것을 가까스로 참으며 반발적으로 성난듯 말했다. 그리고는 자리에 일어나 앉았다.

《஌소! 울어서는 안되오. 장군님께서 찾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행복을 마련해준 귀중한 조국을 원수들이 먹자고 덤벼드는데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킵겠소. 자기 조국을 지키는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소. 해방후 길지 않은 5년이였지만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왔소. 당신도 잘 알겠지만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바칠것을 호소하시였소. 난 우리의 고마운 조국과 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힘껏 싸우겠소. 본때있게 원수들을 죽치겠소.》

남편의 힘있는 말을 들으며 순임은 지나간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회상하였고 그리고 그동안 누려온 행복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것이였는가를 새삼스럽게 절감하였다. 참으로 보람차고 희망에 넘친, 다시는 빼앗길수 없는 참생활이었다. 남편이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여보! 전에 징용으로 끌려갈 때는 눈앞이 캄캄하더니 지금은 마음이 든든하고 막 힘이 솟구치오. 애어리고 연약했던 당신이 이제는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을뿐 아니라 어엿한 너맹일군으로 자랐으니말이요. 나는 전선에서, 당신은 후방에서 서로 마음을 합쳐 힘껏 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거요. 아이들을 잘 키워주오. 내 만일 죽더라도 대를 이어 사람이 있으니 속이 든든하오.》

《죽기는 왜 죽겠소.》

순임은 가슴이 섬적해서 툭 내쏘았다.

《혁명을 하자면 죽을수도 있는거요.》

《하지만 구태여 그런 소릴 왜 해요. 난 싫어요.》

《됐소. 됐소. 어쨌든 아이를 잘 키워주오.》

《집걱정은 마시고 잘 싸워주세요.》

순임은 껌작을 열고 새로 정성껏 만든 당원증주머니를 꺼내며 남편앞에 내놓았다. 남편을 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그가 지닌 당원의 고귀한 칭호를 자신이 가슴깊이 안아보던 순임이었다. 말없이 내미는 새 당원증주머니를 보고 안해의 심정을 알아차린 남편은 안해의 성장이 더없이 대견스러워 정찬 눈길로 안해를 바라보았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했소. 당신 정말 대단하구만…》

남편이 기뻐 어쩔줄 몰라하는 모습을 보며 순임은 처녀처럼 수줍어하며 얼굴을 붉혔다.

저녁을 먹고나서 남편은 낡은 당원증주머니를 내주며 말했다.

《이걸 두었다가 당신이 당원증을 타면 넣어서 메모록 하오! 당신이 입당하는걸 보지 못하고 떠나는게 섭섭하구만… 이 전쟁을 통해 당신도 꼭 당원이 되어주기 바라오.》

순임은 진작 입당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속으로 다짐하였다.

(후방에서 본때있게 싸워서 꼭 당원의 영예를 지니겠어요.)

이튿날 순임은 남편을 바래우러 따라나섰다. 마을 끝에 있는 쉼터에 이르자 남편은 안고오던 광주이를 안해에게 넘겨주며 말했다.

《부모님이랑 아이들을 부탁하오. 잘 있소! 이녀석, 앓지 말고 어서 크거라!》

남편은 광주이의 볼을 다독이고는 순임에게 안겨주었다. 그리고는 안해의 눈을 이윽도록 들여다보더니 그의 작은 어깨를 짊 쥐었다놓고 돌아서서 성큼성큼 떠나갔다.

순임은 아들을 안은채 뿌연게 흐려오는 눈길로 아득하게 뻗은 고개길을 넘어 사라지는 남편의 뒤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이것이 순임이가 마지막으로 본 남편의 모습이였다. 그래서 그런지 그후에도 남편을 생각할 때면 자주 이때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곤하였다. 지금도 순임은 그때의 일을 더듬고있노라니 문득 남편에게 내의 한벌을 해입히지 못하고 떠나보낸 일이 되살아나 가슴이 아렸다.

해방후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먹는 문제는 걱정안하게 되었으나 천은 여전히 구하기 힘들었다. 떠나기 전날밤 순임이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공연한 걱정을 하는군… 군대에서 다 내주는 데… 그보다 난 당신이 시집올 때 옷 한벌 해주지 못한것이 늘 가슴에서 내려가지 않소.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다음 앞으로 저 읍거리예다 천짜는 공장을 세워 산골사람들이 천 그리운줄 모르게 할 작정이요. 그까짓 하자고 달라붙으면 못해내겠소? 마음먹기 탓이지… 이젠 결코 희떠운 소리가 아니니 두고보오.》 하고 큰소리로 껄껄 웃었다. 남편의 가슴속에 그런 엉뚱한 꿈이 간직되어있는줄 순임은 여

직 모르고있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순임은 그때 그 꿈이 방금 눈앞에 현실로 펼쳐진 듯 황홀한 생각에 잠겼었다. 그러나 남편은 그 꿈을 안고 떠나간채 돌아오지 못했다.

×

순임이 남편의 전사통지서를 받은것은 1952년 가을 어느날이었다. 집에서 뒤마장 실히 떨어진 비탈밭에 올라가 가을한 강냉이짚단을 꺼내리고있는데 이웃에 사는 사내아이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광선이 할머니가 까무라쳤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가슴이 철렁하여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내려와보니 시어머니는 구들에 잠든듯 누워있었고 할머니에게 매달려 울고있는 광선이와 광운이를 동네아낙네들이 붙들고 달래고있었다.

《어찌된 일이예요?》

헐떡거리며 뛰어드는 순임에게 이웃집 녀인이 굳어진 표정으로 말없이 숙연한 눈길을 아래로 돌렸다. 방금 통신원이 왔다고 모양으로 거기에 편지 봉투와 함께 접혀진 속지가 되는데로 떨어져있었다. 순임은 웬일인지 가슴이 섹해지는것을 느꼈다. 서너달에 한번씩 꼭꼭 보내오는 남편의 편지를 받은지 불과 보름밖에 되지 않았던것이다. 그는 황급히 속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숨을 죽이고 한자 한자 더듬어나갔다. 글줄을 좇던 그의 눈이 점점 커지며 밧그레했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지더니 갑자기 팔아붙은듯 그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그리고는 마치 종이의 무게에 눌리우듯 서서히 무릎을 꿇으며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손에서 놓여난 속지가 저만치 날려가 떨어졌다...

《엄마!》

가슴에 안겨들며 부르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그는 뉘듯 정신을 차렸다. 아이를 품에 안고 머리를 든 그의 눈앞에 누워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급히 시어머니에게로 다가갔다.

《어머니, 정신을 차리세요.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는 시어머니를 흔들며 애절하게 웨쳤다. 만일 이때 시어머니가 쓰러지지 않고 그냥 앉아있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 품에 와락 안겨 실컷 울고몸부림치며 한바탕 설음을 터쳐놓았을것이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의지하던 시어머니를 도리어 그가 돌보아야 할 형편이니 어찌하랴. 몇번 부르고 흔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가슴에 찼던 설음은 뒤전으로 밀려나고 겹이 더러 앞섰다. 당황해난 그는 헤덤비며 소꿉이에 물을 떠다가 수건을 적신다음 환자의 이마에 얹고는 정신없이 손발을 주물렀다...

시어머니는 깨어난 후에도 여러날을 자리에서 일

어나지 못했다. 바쁜 가을철이라 가뜩이나 손포가 모자라는데 시어머니마저 몸져 누워버렸으니 순임은 언제 한번 조용히 자기 설움에 잠겨볼 겨를도 없었고 마음놓고 속 시원히 울어보지도 못했다. 신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팎일에 팽이처럼 서서 돌아야만 했다. 그러다보니 밤이면 늦게 자리에 눕기가 바쁘게 정신없이 뚫아떨어지곤하였다.

이러한 나날이 흘러갔다. 그러나 그에게는 남편이 사망하였다는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분명히 사망통지서가 왔고 그후 부대에서 대대장을 비롯한 여러 전우들로부터 남편이 싸우던 상세한 내용을 적은 글과 함께 위로와 고무의 편지가 려이어 날아왔으며 또 그해 12월에는 영웅칭호수여에 관한 정령까지 신문에 났으니 그가 전사하였다는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엄연한 사실이었으나 그래도 순임에게는 어쩐지 그것이 현실감으로 잘 느껴지지 않았다. 꼭 무슨 꿈을 꾸고있는것만 같았다. 아마 집 떠난지 이태만에 소식으로만 들었기때문인지도 몰랐다.

(그처럼 바쁘게 뛰어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갈수 있단말인가, 그 많은 일을 남겨두고... 아냐. 그럴수 없어! 그이는 꼭 돌아올거야... 문열고 나간 사람이니 어드때든 문열고 들어오겠지...)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이런 기대와 희망이 집요하리만큼 검질기게 든든히 자리를 잡고 좀처럼 가셔지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고 마을의 남정네들이 전선에서 돌아온후에도, 아니 그로부터 몇해가 지난 요즘에도 순임은 이따금 해질무렵, 문밖에서 개짖는 소리가 날라치면, 또는 발자국소리가 가까와오든가 하면 혹시나 하고 자기도 모르게 문쪽으로 눈길을 돌리며 가슴을 조이곤하였다. 밖에서 일을 하다가도 우편통신원이 골짜기로 올라오는것이 눈에 띄면 그는 일손을 놓고 멍하니 서서 지켜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통신원이 집앞을 그냥 지나칠라면 허전하고 쓸쓸한 가슴을 안은채 다시 일손을 잡곤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람들앞에서 절대로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남들에게뿐아니라 집에서 아이들이나 시부모 앞에서도 일체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입맛을 잃고 때식을 건느는 시어머니에게 자주 이렇게 말하곤하였다.

《어머니, 마음을 든든히 잡주세요. 전쟁인데 아무러면 우리 군대라고 다 무사하겠나요. 어서 기운을 내세요.》

이러한 그를 두고 언젠가 시어머니는

《애, 넌 어떻게 된 사람이 어째 그렇게 눈물이 없니?》 하고 혀를 찬 일까지 있었다. 일부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마을아낙네들속에서는 그를 두고 모진너자라거니, 남편에게 정이 없었던게라거니하고 별의별 소리들이 다 돌았다. 이러한 소리가 귀에 들

릴 때마다 손입은 가슴저미는 아픔을 속에 깊이 깊이 묻으며 이를 악물고 살아왔다.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것처럼 그렇게 눈물없고 메마르고 모진 녀자가 아니었다. 그는 남편을 끔찍이 사랑했다. 때문에 그만큼 남편에게 끔찍했다. 남편은 그에게 정치생활의 눈을 띄워주고 손잡아 이끌어준 스승이었고 진실한 혁명동지였다. 남편을 통해 그는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정치생활이며 목숨보다 귀중한것이 정치적생명이라는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참된 삶의 보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으며 당과 수령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다. 그러기에 그는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매우 무겁게 들었으며 그대로 하려고 애썼다. 남편의 말은 깨끗하고 흰바탕에 진하게 쓴 붓글씨와도 같이 그대로 손입이의 순결한 가슴속에 선명히 박혀들었던것이다.

남편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바쳐 싸우는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고 했었다. 그런데 그가 싸우다가 전사하였다고 남들앞에서 눈물을 흘려서야 되겠는가. 손입의 깨끗한 심장은 자신을 이렇게 다잡고있는것이였다.

그러나 밤이면 그의 베개가 꼭 젖군하는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손입이가 마음놓고 실컷 물어본것은 이듬해 2월 그가 입당하여 당원증을 타가지고 돌아오던 산속에서였다.

산과 들에는 온통 흰눈이 깔려있는데 섬수령마루에 솟아있는, 우산처럼 생긴 큰 로송밀에는 눈이 없었다. 수십리길을 다그쳐온 손입은 다리힘을 하려고 소나무밑에 앉았다. 숨을 돌리며 사방을 둘러보니 눈에 보이는것은 흰눈뿐이고 귀가 멍멍할만큼 피피한것이 호젓하기 그지없었다. 마치 넓디넓은 우주공간에 오직 자기 혼자만이 앉아있는것같은 무서운 고독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가슴에 소중히 품고 온 당원증, 문기섭동무처럼 그렇게 훌륭한 당원이 되여야 한다며 방금전 군당위원장이 수여해준 당원증을 남편이 넘겨주고 간 그 당원증주머니에서 꺼내어 조용히 펼쳐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눈물이 솟아오르며 불쑥 남편의 당원증을 보여달라고 조르던 그날의 일이며 입당을 준비하던 나날에 있었던 가지가지 일들이 눈앞에 떠올랐다.

《광운이 아버지! 나도 당원이 되었어요!》

그는 자기의 오늘을 남편에게 보이고싶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기뻐해줄 그이는 없었다. 그는 남편을 생각하며 울었고 왜 진작 노력해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입당하지 못했는가 하고 자신을 원망하면서 울었다. 뿐아니라 그간 참고 참아오던 온갖 설움을 함께 터치며 울고 또 울었다.

스물다섯 애젊은 나이에 네살, 두살짜리 어린것

들을 안은채 홀로 된 그가 꺾어야 했던 그 아프고 쓰린 마음고생, 몸고생을 이루다 무슨 말로 표현하랴. 손입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이 심심산중에서 참고 참아오던 그 모든 설움을 오직 눈물에 담아 쏟으며 울고 또 울었다.

남편의 전사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어언 4년...

이제는 아이들도 펴 자랐고 남편없는 생활에도 익숙되어선지 그의 굳어진 표정속에 늘 지워지지 않고 떠돌던 그늘도 훨씬 잦아들고 다시 본래의 빛이 되살아나기 시작하였으며 마을사람들과도 전처럼 레사롭게 대할수 있게 되었다. 아마도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는 시간보다 훌륭한 명약이 없는가보았다.

허나 이밤 손입은 이상하게 마음이 뒤설레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떠창을 비치던 달빛도 사라지고 려명을 앞둔 어둠이 새날이 다가오고있음을 예고하듯 산촌을 포근히 뒤덮고있었다.

×

차창밖으로는 겨울을 난 조국의 산야가 끝없이 흘러갔다. 난생처음 기차를 타고 온종일을 달려오는 손입에게는 세상이 과연 넓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웬일인지 자꾸만 눈곱이 뜨거워올랐다. 조국은 과연 넓기도 했다. 가도가도 끝이 없을상싶었다. 그 넓은 조국땅에서는 지금 복국건설에 떨쳐난 인민들이 새집, 새 거리, 새 공장, 새 학교들을 일떠세우기 위해 한창 들끓었다. 그와 함께 조국이 참으로 심한 상처를 입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가슴이 저려왔다. 전쟁이 끝난지 세해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험벗은 산이며 불타버린 나무들, 무너진 벽체들, 폭탄이 만들어놓은 수많은 물웅덩이들이 철길을 따라 끝없이 눈에 띄었다. 그러니 전쟁뎐 오죽하였으랴, 아직 풀잎, 나무잎들이 돋기전이어서 그런지 험상스러운 상처자국이 그대로 드러나보였다.

깊은 산골에서만 전쟁을 겪어온 그로서는 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쟁취한 빛나는, 위대한 승리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로 이루어진것인가를 잘 알수가 없었다. 오늘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는 새삼스럽게 이것을 통감하였으며 그 상처를 가시기 위한 투쟁이 전쟁 못지 않는 힘겨운 투쟁이라는것을 절감하였다.

해질녘, 한창 건설중인 평양역사가 웅장한 자리를 드러내고 그를 맞이하였다. 그가 봄비는 사람들속에서 광선이의 손을 꼭 잡고 어디로 가야 할지 두리번거리는데

《문기섭영웅의 가족이 아닙니까?》 하고 한 청년이 다가왔다. 군에서 전화로 연락을 받고 해당기관에서 마중을 나온것이였다. 그의 안내로 자동차를

라고 한창 건설중인 큰거리를 지나 서문동에 새로 일떠선 6층짜리 려관의 깨끗한 호실에서 려장을 물었다.

《레일이면 광선이 아버지를 만날수 있겠구나!》

요 몇해째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순간이 드디어 레일로 다가왔다는 생각에 그는 가슴을 울렁이며 평양에서의 밤을 보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있으며 어떤 생활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수 없었던 그는 날이 밝으면 남편을 만날것만 같은 심정이였다.

이튿날 아침, 순임은 어느 한 청사로 안내되였다. 널찍하고 깨끗한 방에서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키가 자그마한 일군이 그들 모자를 세워놓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랑독한 다음 광선의 가슴에 금별메달을 달아주었다. 그리고 자리에 앉은 다음 문기섭영웅이 싸운 전투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는것이였다.

순임은 이미 남편의 전우들이 써보낸 편지들을 통해 남편이 싸운 이야기, 그가 아군의 돌격로를 열기 위해 어떻게 불을 뿜는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았는가에 대하여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다시 이야기를 들으며 순임은 과연 남편의 영웅답게 잘 싸웠다는것을 다시금 새삼스럽게 느꼈다.

철없는 광선이는 자기 가슴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금별메달이 너무도 좋아서 연방 만져보며 어쩔줄 몰라했다. 아들을 바라보며 순임은 입속으로 외쳤다.

《광선아! 네가 오늘 아버지를 찾았구나!》

순임은 이렇게 남편을 찾은것이였다.

상임위원회 청사에서 나온 순임은 이어 전승기념관으로 안내되였다. 얼굴이 너부죽하고 나이 지숙한 중좌의 안내를 받으며 방들을 돌아보던 순임은 어느 한 커다란 그림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것은 불을 뿜는 적의 화구를 향해 달려나가는 영웅전사의 모습을 형상한 그림이였다. 한쪽 벽면 절반을 차지한 커다란 그림앞에서 순임은 그림속의 전사에게 눈길을 박은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전선으로 떠나기 전날밤에 하던 남편의 말이 불현듯 되살아나 그는 마치 산 사람에게 말하듯 조용히 말하였다.

《당신은 자신이 말한대로 잘 싸우셨소. 수령님의 전사답게 정말 잘 싸우셨소. 당신은 이렇게 만사람들앞에서 살아있구려!》

《엄마! 누구하구 말하나?》

옆에 서있던 광선이가 어머니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다.

《광선아, 너의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는 이렇게 살아계신단다.》

어린 광선이는 어머니의 말뜻이 잘 리해되지 않는듯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그림을 말없이 올려다보았다.

다음방으로 들어간 순임은 한 진렬대앞에서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총알에 한쪽귀가 떨어져 나간 피물은 당원증이 눈에 띄었던것이다. 당원증을 살펴보던 순임은 갑자기 흠칠 놀라며 진렬대로 바싹 다가갔다. 당원증에 적혀있는 이름이 문기섭이였다. 그는 자기 눈을 의심하며 사진을 보았다. 역시 틀림이 없었다. 분명 입당할 때 찍은 수수한 단긴옷차림의 그 모습, 그의 맑은 눈동자가 자기를 올려다보고있는것이였다. 순간 《아, 숨이 떨어진게 분명하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것처럼 보여달라고 조르던 당원증이였다. 하지만 끝내 안해한테마저 보여주지 않던 당원증이였다. 그 당원증이 지금 이렇게 만사람앞에 펼쳐져있지 않는가. 그러니 그는 분명 숨이 진 사람이였다. 그것을 확인하자 그의 가슴속 한구석에 집요하리만큼 검질기게 남아있던 문열고 나간 사람이니 어느때든 문열고 들어오겠지 하던 마지막 기대와 희망이 일시에 사라지며 전신의 맥이 짝 빠지는것 같았다.

순임은 진렬대를 그러안으며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러자 눈물이 펄 하니 고여오르며 당원증이 어릿어릿하게 안겨들었다. 순임은 방울방울 떨어지는 눈물을 손바닥으로 훔치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당원증을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는구려!》

다음 순간 당원증을 뚫고나간 총알자리가 그의 가슴을 못건디게 허비였다. 무서운 복수심이 온몸을 태울듯이 차올랐다.

(원썩을 갇으리라! 백배 천배로 복수하리라.)

그는 진렬대의 모서리를 으스러지게 움켜쥔채 오래도록 움직일줄 몰랐다.

이윽고 순임은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수첩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기도 하고 눈물이 고인 승엄한 얼굴에 굳은 결의를 담고 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수많은 참관자들의 물결이 드넓은 기념관안에 끝없이 들어서고있었다.

그들의 표정과 눈빛에서 순임은 그들이 받고있는 충격과 감동을 읽을수 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는가. 순임은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당과 수령께 충성다한 자기의 실천적모범으로 그 수만사람들을 영웅적위훈에로, 충성의 한길로 말없이 불러주고있는 남편을 보았다.

(여보, 당신은 여기서도 이렇게 큰 일을 하고있구려!)

순임은 가슴이 미여질듯 벅차올랐다.

그는 방금전에 남편이 숨졌다는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놀랍게도 사람들을 충성의 한길로 힘있게 불러주고있는 살아있는 남편을 보았던것이다. 그는 남편의 이 생명은 당과 함께

영원하리라라는것을 굳게 확신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자주 말하던 목숨보다 귀중한 정치적생명인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당의 믿음속에 영생하는 값높은 삶인것이다.

순임은 자기도 남편처럼 그렇게 살며 일함으로써 충성의 한길에서 그와 영원히 함께 살리라 굳게 다짐하였다.

순임은 남편이 못다하고간 그 많은 일들을 자기가 말아 훌륭히 해내리라 거듭거듭 속다짐하면서 기념관을 나섰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어느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당정치사업관에 머리가 반나마 흰 치마저고리차림의 녀인과 열두어살쯤 되어보이는 사내아이가 들어서더니 당원증을 진렬해놓은 진렬대앞에 나란히 섰다.

녀인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며 로력영웅인 성남직물공장의 한순임지배인이며 소년은 그의 손자(광운이의 아들)영식이였다.

《영식아, 잘 보아두어라 이분이 너의 할아버지시다.》

녀인이 소년에게 말했다.

《문-기-섭- 야- 정말이네.》

소년은 당원증의 이름을 또박또박 읽더니 손뼉을 쳤다. 그러더니 《할머니! 그런데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젊나요?》

하고 의아한 눈길로 주름뒹인 할머니의 얼굴이며 흰 머리를 돌아다보았다.

(원 너석두! 어쩌면 제 애비와 신통히도 같은 소리를 물을가?)

할머니는 저절로 웃음이 나와 빙긋이 웃었다. 그리고는 소년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영웅이 됐기때문이다. 영웅의 삶은 늙지 않는 법이란다.》

영식은 할머니의 말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모양으로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전사한 영웅 할아버지의 모습을 영원히 가슴속에 새기려는듯 령롱한 눈길로 오래오래 바라보고있었다.

(영식아! 너도 이제 좀더 크면 당에 충성다한 영웅들의 삶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영원히 늙지 않는다는것을 알게 될게다. 너의 아버지나 큰아버지처럼...)》

할머니는 속으로 말했다.

지난날 한순임의 두 아들 광선이와 광운이가 그러하였듯 오늘은 그들의 아들딸들이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되고있는 영웅들의 그 숭고한 모습을 심장깊이 간직하며 어른으로, 계승자로 성장해가고있는것이다.

할머니는 이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귀익은 발자욱소리

김상조

벗들의 발자욱소리
형제들의 발자욱소리는
미처 다 알아듣지 못해도

어머니의 발자욱소리처럼
귀익은 그 발자욱소리
누구나 다 알아들더라

봄비는 출근길에서도
즐거운 퇴근길에서도
마음에 먼저 짙이는 소리

들끓는 조립장
종합지령실 총계에도 울리고
증산절약의 불꽃 날리는 혁신자
단발머리 신입공 기대앞에도 벗어나더라

온 공장 무인화의 새날 밝히는
기술혁신돌격대의 드넓은 방에도 들어서고
본의아닌 잘못을 두고

잠 못드는 일군의 집
성에불린 사택마을 창문도 두드리더라
기름냄새 풍기는 식료상점 가공반에도
해맑은 유치원 프락에도 정숙한 병원에도

울리고 울리더라
자식 많이 둔 어머니처럼
생활의 구석구석 보살피며
때없이 걷는 그 소리

크고작은 공장일만이 아닌
만수천의 운명 해아리며
수만 식구들의 마음속을 걸고걸는
기쁨 때도 슬플 때도 그들과 함께 걷는

귀익은 그 발자욱소리
언제나 가슴속에 살아있어
누구나 다 새겨듣는
아, 당비서의 그 발자욱소리

당에 대한 철학의 새로운 시세계

김순림

《어머니! 어머니없이 나는 못살아!》

서정시 《어머니》(김철 작)는 너무나 평범하면서도 또 단순한 이 생활의 진리를 핵으로 하고 있다.

서정시가 세상에 나온지 10여년이 되었으나 어머니없이 못산다는 평범하고 단순한 이 말이 더 깊고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의 심장속에서 더욱 뜨겁게 울리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서정시가 자기고유의 본성에 맞게 풍부한 서정으로 당에 대한 철학의 새로운 세계를 깊이있게 노래하였기때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는 사람들이 시의 세계에 끌려들어가 사색할수 있도록 깊이가 있어야 하며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서정시 《어머니》는 사람들을 새로운 철학의 세계로 이끌어가며 깊은 감동을 주고있다.

그렇다! 서정시 《어머니》에는 당에 대한 새로운 철학이 있다.

인류가 기원한 그때로부터 아마 어머니는 삶과 사랑의 총체로, 어머니없이는 결코 살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불리워져왔을것이다. 그것은 자기를 낳아준것도 어머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는것도 어머니이기때문이다.

하기에 유구한 인류문학의 갈피에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있지 않은데가 없다.

인류초기의 문학으로부터 현대문학으로 이르는 기간에 어머니에 대하여 쓴 유명, 무명의 작가, 시인들, 창작가들의 작품은 허다하다.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희곡도 있고 미술작품도 있다.

시대가 전진하면서 인류의 지성이 높아지고 문학도 발전하여 어머니에 대한 문학의 의미도 더욱 깊어지고 풍부해졌다.

각이한 력사발전과 사회적요구, 민족적특성과 미학관의 차이로 하여 문학예술이 제기한 어머니에 대한 문제는 천태만상을 띠고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종합해보면 두가지 종착점에 이르고있다.

그 하나는 생명에 대한 관점과 립장에서 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생활에 대한 관점과 립장에서 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문제이다. 전자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혈육의 관계에서 어머니를 그렸으며 후자는 제발로 걷고 일하며 살아갈수 있도록 키워주고 가르쳐준 어머니, 보호자의 관계에서 어머니를 그리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산이 아무리 높고 바다가 제아무리 깊다 해도 어머니의 사랑에 비길수 없으

며 어머니없이 사는 살아갈수 없다는것이 삶의 법칙처럼 간직되어있고 위대한 영웅의 뒤에는 그를 키운 어머니가 있다는것이 하나의 진리로 체득되어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어머니없이 자신의 생명도 사회적존재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본성적인것으로 여기고있으며 유년기에 벌써 어머니없이 살수 없다는것을 제일먼저 간직하였다.

서정시 《어머니》는 이 전후자의 응결체인 《어머니없이 나는 못살아》라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을 사상적알맹이로 하여 당에 대한 철학의 새로운 시세계를 개척하였다.

놓치면 잃을듯
떨어지면 숨질듯
잠결에도 그 품을 더듬어 찾으면
정겨운 시선은
밤깊도록 내 얼굴에 머물러있고
살뜰한 손길은
날이 밝도록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나니
이 어머니 정말
나를 낳아 젖먹여준 그 어머인가...

여기에서 시인은 어느덧 귀밑머리 희여지고 다자란 아이들을 거느리고있지만 지금도 아이적목소리로 때없이 찾는 그 어머니에 대하여 사색을 깊이한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나 먼저 찾는 어머니, 반기여도 꾸짖어도 달려가 안기고만싶고 천만가지 소원, 아니 잊을번한 잘못까지 다 아뢰고 말하는 그 어머니가 과연 나를 낳아주고 젖먹여 키워준 그 어머니란 말인가.

하여 시인은

내 조용히 눈길을 들어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쳐다보노라
그러면... 아니구나!
이 어머니
나 하나만이 아닌
이 땅우의 수천만 아들딸들을
어엿한 혁명가로 안아키우는
위대한 어머니가 나를 굶어보나니

라고, 그 위대한 어머니를 경건히 우러르며 이 어머니를 시골아낙네의 이름과 나란히 한테 대한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해한다.

그러나 시는 여기에서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철학의 세계를 깊이 펼쳐간다.

그러나 어이하리
 당이여 조선로동당이여
 어머니란 이 말보다
 그대에게 더 어울리는 뜨거운 말을
 이 세상 어느 어머니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못했거니

그대는 어머니!
 피도 숨결도 다 나누어주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말아안아주며
 바람도 비도 죽음까지도
 다 막아나서주는 우리들의 어머니
 준엄한 싸움길에 하나의 전사 뒤떨어져도
 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가
 붉은기에 뒹싸안아 대오에 세워주는
 영원한 삶의 품! 혁명의 어머니!

우리 당, 조선로동당을 가리켜 어머니란 말보다 더 어울리는 뜨거운 말을 이 세상 어느 어머니도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여기에 시가 추구한 어머니당에 대한 심오한 철학의 세계가 있다.

문학작품에서, 특히 시가문학에서 어머니는 가장 귀중하고 숭고함을 대변하는 상징과 비유로 많이 쓰여왔다. 조국과 고향, 자애와 요람 등...

이 모든것들은 나를 낳아 키워주고 품어주는 어머니의 세계를 넘지 못하였다. 《어머니 나의 조국이여》라고 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조국의 품에서 내가 태어나고 그 조국땅에서 자라고 삶을 누린다는 것으로서 생명을 주고 자래워주는 어머니의 자연적인 속성, 혈육적인 관계와 결부되어 조국의 귀중함을 대변하는 비유로 되고있다.

그러나 서정시 《어머니》에서는 우리 당을 《피도 숨결도 다 나누어주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말아안아주며》 준엄한 싸움길에서 하나의 전사 뒤떨어져도 천리라도 만리라도 다시 달려가 대오에 세워주는 《영원한 삶의 품! 혁명의 어머니!》로 노래하고있다.

여기에서 《어머니》는 다만 나를 낳아 키워주고 품어주는 조국에 비유된 어머니,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모성애를 지닌 어머니와 그 미적본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물론 지난 기간 다른 작품들에서도 어머니를 조국만이 아니라 당과 비유하여 노래한 시가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적지 않은 경우 당을 어머니로 표상하게 하는 그이상의 심오한 세계를 파고들지 못하였다.

서정시 《어머니》는 당을 어머니에 비유하여 노래하면서도 거기에 혈육적인 관계만이 아닌 보다 심원한 정치사상적의미를 부여하여 어머니를 주체의 인생관의 견지에서 영원한 삶의 품으로 혁명의 어머니로 노래함으로써 당에 대하여 느끼는 우리 인민의 모든 감정세계를 뜨겁고 진실하게 재현하였

다.

어른도 아이도, 어머니가 된 나도, 나를 어머니라 부르며 품에 안기는 우리 아이들도 영원히 아이적 목소리로 부르는 어머니, 나하나만이 아닌 이땅우의 수천만 아들딸들을 어엿한 혁명가로 안아키워주는 그 위대한 어머니가 바로 조선로동당이라고 한 여기에 서정시 《어머니》가 새롭게 탐구한 당에 대한 철학의 심원한 세계가 있다.

서정시 《어머니》는 당에 대한 심원한 철학의 세계를 생활감정의 진실성과 풍부한 서정성을 구현하여 우리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노래한 참다운 서정시, 주체적인 시가의 높은 사상에술적경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작품이다.

이 시에서 노래된 주도적감정은 조선로동당에 대하여 느끼는 우리 인민의 심정에서 뿜어져나오고있다.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 부르며 당의 품을 어머니품으로 믿고 당에 모든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따르는것은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이고 신념이며 공고화된 사상감정이다. 시는 이 숭고하고 웅심깊은 사상을 바로 사람이 자기를 낳아키워준 어머니를 두고 느끼는 체험세계에 기초하여 깊은 체험과 생활에 대한 정서적과악을 심화하여 일반화함으로써 풍부한 서정성을 구현하고 진실한 시형상의 높은 경지에 올라섰다.

서정시 《어머니》에서 시인의 정서적체험과 사색은 주로 어머니에 집착되면서 감성적인것과 이성적인것의 통일체로서의 시인의 강렬한 주정토로에 의하여 개방되고있다.

내 이제는
 다 자란 아이들을 거느리고
 어느덧 귀밑머리 희여졌건만
 지금도 아이적목소리로 때없이 찾는
 어머니, 어머니가 내게 있어라

기쁠 때도 어머니
 피로울 때도 어머니
 반기여도 꾸짖여도 달려가 안기며
 천백가지 소원을 다 아뢰고
 잊을번한 잘못까지 다 말하는
 이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

이제는 귀밑머리 희여져 어머니 없이도 살수 있는 그 나이에 어머니 없이 못산다는 그 심장의 웨침, 그 철부지다운 순결성과 순진성에 시 《어머니》의 체험의 심오성과 철학적인 사색의 깊이가 있다.

시인이 어머니란 말외에 그 어떤 다른말을 찾지 못하며 송구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경건히 그리고 열렬히 우러르는 그 어머니는 바로 조선로동당이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친어머니에 대하여 느끼는 따뜻하고 인정깊고 다정다감한 서정세계가 뜨겁게 펼쳐져있으며 거기에 더하여 자기를 낳아키워준 어머니도 다 줄수 없는 고귀하고 신성한 모든것을 다 주는 당에 대하여 느끼는 우리 인민의 고상하고 숭고한 세계가 숭엄하게 펼쳐져있으며 심장의 울림이 있다.

서정시는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한 시골아낙네-어머니에 대한 혈육적인 느낌으로부터 시작하여 시인의 생활과 운명의 체험에서 얻은 고귀한 진리에 기초하여 정서적으로 파고들고 사색을 심화하여 줄기찬 감정의 흐름으로 진실하게 재현함으로써 풍부한 서정성을 구현한 시형상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시인의 현실에 대한 깊이있는 체험과 정서적파악, 끝없는 사색과 탐구로 생활의 참된 진리를 심장으로 체득하는 피타는 노력과 축적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시인 김철의 시들을 보며 느낄수 있다. 시는 곧 시인이며 시인은 곧 서정적주인공이다.

시인은 전화가 멎고 새 생활이 약동하는 1950년대의 중엽에 미제침략자들과 싸워 지킨 우리의 바다, 우리의 자유를 목청껏 노래부르며 《정열의 가수, 동해의 딸》 갈매기와 함께 아득한 수평선을 단숨에 넘나들며 창공을 날이기도 했고 (시 《갈매기》), 재더미를 헤치고 새로 일떠선 새집으로 이시간 집주소를 찾아 걸고걸어도 다리에 힘이 진한줄 모르는 늙수그레한 인심좋은 통신원이 되어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노동당세월을 흥에 겨워 노래하기도 했으며 (시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다》) 끝없는 환희와 생기가 약동하는 《시의 나라, 노래의 바다》, 《은빛고기떼로 다리를 놓》은 금야만에 뜨는 달을 랑만에 넘쳐 바라보며 《둥! 둥! 북을 치며 달이 달음쳐온다》고 (시 《금야만에 달이 뜬다》) 정열을 뽐기도 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제도의 위대함과 고마움을 심장으로 체득하며 환희에 넘쳐있는 시인의 모습을 본다.

우리 혁명의 전진과 함께 시인은 우리가 이룩하고 누리는 이 모든 값지고 귀중한것에 대하여 그저 환희와 격동으로만 대하지 않았다. 시인은 이 위대한 시대, 위대한 현실의 한복판을 해쳐 가며 거창한 현실을 창조하는 그 주인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시인은 이 모든것에 대한 사색이 더욱 깊어졌다.

우리 인민이 누리는 행복에 대하여, 나 하나만이 아닌 우리모두에게 참다운 삶을 마련해주는 아버지의 품에 대하여, 그리고 그 품속에서만이 영생하는 삶이 있다는데 대하여...

하여 시인은 랑만과 열정과 환희의 물결만이 아닌, 시대와 인간, 생활에 대한 깊이있는 사색으로 한결음한결음 깊이 들어가며 몇돌기의 년륜을 새겼

다.

이 사색과 축적이 70년대말과 80년대초에 이르러 그의 시편들에 새로운 철학의 세계를 펼치게 하였으니 시인은 백두의 용암대지를 밟으시고 손들어 우주의 한끝을 가리키시며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숭엄함과 아름다움의 절정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계시는 만수대에 올라 한생을 총화하며 영생의 진리를 안고가는 전사로 되기도 하며(시 《만수대》 1978. 8) 평범한 탄부가 되어 《어머니품을 찾는 첫머리처럼, 수령님 계시고 당중앙이 있는, 수도의 품이 그저 그리워》 견학권한장을 쥐고 평양에 찾아와 금요로동의 하루를 보내며 아버지수령님과 우리 당을 위하여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랑심과 의리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하는것을 총화해보며 《40평생 짊어진 마음의 빛을, 하루의 땀으로야 어찌 다 갚겠》는가 하는 자책에 젖어들면서도...

내 지금 넓히고있는 이 길로
우리 수령님
더없이 기쁘시여
만족하신 웃음으로 지나신다면

내 지금 심고있는 이 나무 한그루가
현지지도의 먼길에서 돌아오실
그이의 겹쌍이는 로고를
서늘한 그늘로 덮어드릴수 있다면
(시 《금요로동》 1978. 8)

몇줄 안되는 자서전에 이 하루로동일을 큰 글자로 뚜렷이 밝히려라고 자부한다.

우리 수령님 계시고 우리 당의 위대한 예지의 빛발이 누리에 찬란히 비치는 평양에 대한 그리움, 그것은 곧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못느끼다가도 멀리 떨어져있을수록 어머니가 더욱 그리워지는 순진한 마음이 되어 당중앙위원회의 《가장 높고 가장 밝은 하나의 창문을 경건히 우러러》 그 창문에서 아침노을이 불타오르고 그리도 보고싶던 그이의 승용차가 나올 때까지 《명예위병과도 같이》 이밤을 지새며 잠못들기도 한다.

(시 《잠들수 없는 밤에》 1978. 8)

허나 견학권 한장 쥐고왔던 그 시인-광부는 이제 평양을 떠나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 계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는 평양을 떠나는 광부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자식의 마음인듯 못견디게 그럽고 그리워 위대한령도자, 아버지가 계시는 평양을 하나의 유기체,

그대 심장이라면
나는 피방울
그대 뇌수이라면
나는 신경
(시 《다시 오리》 1978. 8)

으로 느끼며 그 어디에 가건 평양의 박동을 따라
심장을 울리고 평양의 숨결로 숨쉬리라 다짐한다.
그리고 평양을 장식할 보석이 되고 열을 주고 빛을
더해줄 불붙는 탄덩어리가 되어, 그 품에 만발할
꽃씨가 되고 그 위용 억년 떠받들 강철들보가 되어
오리라 다짐한다.

삶의 품을 그리는 서정적주인공의 심장은 더욱더
당과 수령과 혈연적뉴대로 이어진 운명의 구성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정으로 불타올라 《가뭇드는
봄철이면》, 위대한 수령님 가꾸시는 시험포전에
보슬보슬 봄비가 되어, 《추위 땀땀 새벽이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시는 사색의 창가를 소담한 눈
송이 되어 고이 지키리라 순정을 토로한다. 그리고

다시 오리
다시 오리
다시 오지 못할진대 떠나지도 못할
아, 평양! 아버지 계신 품아!

하고 심장으로 울부짖는다...

서정시 《어머니》에는 이처럼 수십년 시인이 체
험하고 축적한 감정이 체현되어있다.

이것이 당에 대한 철학의 새 경지를 진실하고 풍
부한 서정으로 개척할수 있는 근본요인이며 높은
시형상을 창조할수 있게 한 근본담보이다.

시적표현은 시의 형식을 특징짓는 기본징표의 하
나이다. 그것은 시의 존재와 그 가치를 담보하는 중
요한 조건이다.》

서정시 《어머니》에는 하나의 표현에도 깊은 사
색과 정서가 깃들어 시형상을 높여주고있다.

서정시 《어머니》의 시적표현은 뜻이 깊고 명백
하며 정서적색깔이 뚜렷하고 운률적형상이 산 형상
적인 표현으로 되어있다.

무엇을 아끼랴 그 무엇을 서슴으랴
그대 송엄하고 존엄높은 모습에
한줄기 빛이라도 더해드릴수 있다면
내 불붙는 석탄이 되어
어느 발전소의 화실에 날아들어도 좋아라
그대의 은정 가없이 펼쳐진
저 푸른 이랑들을 더 푸르게 할수만 있다면
내 한줌 거름이 되어
어린 모 한포기를 살찌운들 무슨 한이 있으랴

아 나의 생명의 시작도 끝도
그 품에만 있는 조선로동당이며
하늘가에 흠어지고 땅에 묻혔다가도
나는 다시 그대 품에 돌아올 그대의 아들!

그대 정겨운 시선, 살뜰한 손길에 몸을 맡기고
나는 영원히 아이적목소리로 부르고 부르리라
어머니!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

여기에서 《한줄기 빛이라도 더해드릴수 있다면,
어느 발전소의 화실에 날아들어도 좋아라》라는
시구절과 《저 푸른 이랑들을 더 푸르게 할수만 있
다면, 내 한줌 거름이 되어, 어린 모 한포기를 살찌
운들 무슨 한이 있으랴》하는 시구절만 보아도 여
기에는 사상에 대한 그 어떤 직선적인 로출이 없고
형상적인 표현들이 깊은 정서속에서 물동을 타고
흐르고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몇백마디의 직선적인
표현도 도달할수 없는 그런 감정정서적효과를 나
타내고있다. 지어 여기에서 씌여진 불붙는 석탄, 발
전소의 화실, 한줌의 거름 등 평범한 언어표현들도
고도로 양양된 시인의 내면적체험을 정서적으로 일
반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씌였기때문에 그 단어자체
의 의미로 리해하는것이 아니라 거기에 체현된 시
인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정서적으로 형상적으로 반
아안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형상적인 표현들은 벌써 표현 그자체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작품의 서정성을 돈구고 생활감
정의 진실성과 심오성을 보장하며 나아가서 시형상
전반의 품위를 보장하는 문제와 련결되어 시의 사
상에술적높이를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우리 당을 영원한 삶의 품, 혁명의 어머니로 심장
깊이 간직하게 되는 시인의 체험과 축적은 산문장
으로 옮기려면 많은 설명이 요구되는, 참으로 뜻이
깊고 함축된 형상적인 시적표현을 그처럼 밀도높게
술수 있게 하였다. 당을 두고 느끼는 많고많은 감
정가운데서도 이 표현이야말로 천백마디 설명을 대
신할수 있는 아름답고 숭고하고 격양된 감정을 나
타낼수 있다는것을 시인은 심장으로 확신하였던것
이다.

서정시에는 이처럼 하나의 표현, 지어 하나의 토
에 이르기까지 시인의 체험되고 축적된 감정이 고
도로 밀착되어 나타나는것이다.

무수한 모래알가운데서 하나의 보석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피타는 탐구와 사색만이 참다운 서정시
를 낳게 한다는 시창작의 진리를 우리는 서정시
《어머니》의 창작에 대한 일부 고찰을 통해서 다시
금 깊이 인식하게 된다.

참으로 서정시 《어머니》는 시문학에 관한 주체
적문예리론을 구현하여 우리 시대 인민들의 주도적
인 감정을 생활감정의 진실로 충만되고 풍부한 서
정성이 나래치는 세련된 시형상으로 노래함으로써
당에 대한 심오한 철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본
보기작품이다.

변함없는 소원

오만수

맑고 푸른 10월의 하늘에 마치와 낫과 붓이 새겨진 붉은 당기밭이 세차게 나뭇기고있다.

당기밭, 홍안의 젊은시절에 저 당기밭밑에서 피끓는 심장에 당원증을 받아안고 어느덧 귀밑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오늘날까지 수십년세월 살아오면서 해마다 맞군하는 이날이지만 또다시 가슴은 마냥 승엄해지고 생각은 바닥없이 깊어만진다.

흔히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 체념과 망각의련속속에 지난날을 잊어버리기 마련이라고들 말한다. 아마도 이것은 기나긴 세월 보람없이 흘러보낸 생활을 두고 하는 말인가싶다.

허나 나의 경우를 두고보더라도 우리 시대 사람들의 생활이란 10년, 20년 30년이 흘러도 체념과 망각 속에 안개처럼 사라지는것이 아니라 흐르는 세월속에 더욱 생생한 모습으로 안겨오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의 하루하루가 그만큼 벽차고 값있고 보람찬것이기때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나는 우리 농장에서 리당비서로 23년째 일해오고있다.

돌이켜보면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다. 하지만 왜서인지 나한테는 긴 세월로 여겨지지도 않거니와 더구나 요즘에는 저물어가는 하루하루가 하는일없이 너무나 속절없이 빨리 흘러가는것만 같은 조바심에 마음속에서 물때치듯함을 금할수 없다.

여직껏 우리 농장은 알곡생산계획은 물론 농장앞에 부과된 모든 과제를 미달해본적이 없었다.

하기에 지난날 여러 출판물들에 우리 농장에 대한 소식이 자주 실리였고 취재차로 우리 농장을 찾는 기자들도 그리고 이웃농장들에서도 성과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자주 묻군한다. 그리고는 말끝마다 한마디씩 덧붙이곤하는것이 인제는 나이도 많은데 집안에서 편히 쉬라고 권고하는것을 잊지 않군한다.

그때면 나는 선뜻 대답을 못하고 먼 허공에 눈길을 보내군한다. 참으로 딱한 질문이 아닐수 없다.

그들은 농장의 그 모든 성과의 근저에는 마치도 리당비서인 내가 푹 빠져지게 큰일을 했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농사는 농장원들이 한것이지 내가 일을 하면 얼마나 했겠는가, 나는 그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당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일하였을따름이다.

그리고 집에서 편히 쉬라는 말을 들을 때면 벌써 내 나이가 그렇게 됐는가 하고 저도 모르게 우수에 잠기기도 하고 해놓은 일없이 세월만 보낸것같은 허무감이 마음속에 젖어들군함을 금할수 없었다.

23년전, 이곳 리당비서로 올 때 나의 가슴속에는 한가지 소원이 자리잡게 되였다.

《우리 농장을 무릉도원으로 꾸려놓고 아버지수령님을 우리 농장에 모시리라!》

너무도 분수에 맞지 않는 생각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소박한 소원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불변성을 가지고 드팀없는 신념으로 자리잡고있다. 그것은 언제나 마음속의 무쇠기둥이 되어 곤란앞에 동요가 생기거나 흔들릴 때면 받들어주고 길을 헛갈릴 때면 밤바다의 등대와 같이 곧바로 가도록 앞으로 이끌어준다.

농사짓는 일이란 4계절을 놓고 볼 때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라고도 할수 있다. 영농준비, 씨불임, 모내기, 김매기, 풀베기, 가을걷이, 난알털기...

허나 농사짓는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진 농촌당일군의 사업이란 반복되는 일이 아니라 언제나 창조적인 사업을 요구한다.

옛글에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당일군의 경우에는 천길 물속은 몰라도 한길 사람의 속은 알아야 한다고 당에서는 밝혀주었다.

사람이란 층층구만층이라 한다. 매 사람들의 성격과 취미, 사색과 지향은 서로 각이하기때문일것이다. 하기에 한 부모의 자식들도 서로 다른데 천여명이 모인 농장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참으로 사람을 알고 일을 한다는것은 결코 험한것이 아니다. 당일군의 고심도 여기에서 생기게 되며 사업에 대한 보람도 여기서부터 느끼게 된다.

때문에 당에서는 매 시기마다 우리 당일군들로 하여금 사업방법을 가르쳐주군한다.

나라의 경제적규모가 보다 심화확대되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에서는 지도일군들로 하여금 항일유격대지휘관들처럼 배낭을 메고 군중속으로 들어가도록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고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여주었다.

군중속으로- 이 심원한 철리를 나는 실생활을 통하여 절감하게 되였다.

농장원들속에 있다고 하여 군중속으로 들어간다

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는것인데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일꾼들이 모든 일에서 거울이 되어야 할뿐더러 이신작직하여야 한다. 그럴 때 진짜로 하는 그들의 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당정책관철에서 은을 나타낼수 있는것이다.

우리 농장원들은 날보고 리당비서동무는 하루에 몇리를 걷는가고 종종 묻군한다.

하루에 몇리나 걷는가?... 아직까지 나는 하루에 내가 걷는 걸음이 몇리나 되겠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본적이 없다.

어느해인가 행정에서 리상점에 나온 자전거를 나에게 배정해준적이 있었다. 물론 그들의 심정은 고마운것이지만 그들의 성의를 받아들일수 없었다.

리당비서가 해야 할 일이란 무엇이라...

그것은 포전에서 일하는 농장원들의 산 목소리를 듣는것이며 그들을 우리 당의 주위에 철석같이 묶어세우는것이다.

당일꾼이란 결코 농장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가 《감독》하러 다니는것도 아니며 제강이나 들고 찾아다니는 학습강사도 아니기때문이다.

농장원들은 자전거를 타고다니기 좋은 길옆에서가 아니라 외진 다락밭에서 혹은 동네와 멀리 떨어진 논판 한가운데서 일하고있기때문이다.

리당비서가 자전거를 타면 길새 좋은 작업반선전실로밖에 다닐수 없고 당에서 그토록 경계하는 유람식사업으로밖에 될수 없기때문이다.

무더운 여름철이었다. 그날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가 농장원들과 같이 강냉이밭김을 매다가 밭머리에 모여들 앉아 땀을 들이는데 한 농장원이 이렇게 땀을 흘리다가 점심에 들어가서 김치국에 국수를 시원하게 말아먹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스쳐들게 되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으로 그날 점심밥 먹으러 들어오니 밥상에 국수가 올랐다.

국수그릇을 보니 설참에 하던 농장원의 말이 생각키워 집사람한테 그 말을 외웠더니 《아니, 여보, 당신 리당비서라면서 아직도 모르고있었수?》 하고 의아해하는것이였다.

《모르다니, 무얼말이요?》

《원참, 화탄부락에 있는 국수기계가 얼마전에 고장이 났대요.》

《?!...》

화탄부락은 리에서 맨끝에 자리잡은 제일 큰 동네이다. 바쁜 농사철이라 가정부인들이 리소재지에 국수를 누르려 올 짬을 내지 못하고있었다.

그길로 다시 작업반에 내려가 알아보니 모든것이 사실이었다. 고장난 부속은 농장 자재창고에도 없었다.

나는 그날저녁 심한 자책감에 모대기며 읊에 있

는 기계공장에 나가 부속품을 짚아왔다. 그리고 밤을 밝히며 수리공들과 같이 국수기계를 살려놓았다.

물론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였다. 하지만 여기에서 일꾼들의 농장원들에 대한 관점과 태도 문제가 표현되는것이다.

이제는 없어졌지만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한해농사의 성과가 전적으로 일꾼들한테만 달려있는것처럼 생각하는 편향도 있군하였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의 역할이 중요한것은 사실이나 농사는 농장원들이 짓는것이고 일꾼들은 그들의 총복이 되어야 하는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애로되는점을 풀어준다것은 얼마나 힘이 들며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

군중속에 들어가는것, 그것은 참으로 일꾼들의 이신작직하는 문제와 절대로 갈라놓고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지난날 인민군대에 집에서 기르던 돼지를 지원하던 때 있던 일을 한가지 더 이야기하련다.

그해 이미 돼지를 2마리 길러 인민군대에 보낸 나는 세번째로 기르던 돼지도 다 크게 되자 다시 군대에 보내자고 집사람한테 이야기하였다.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참견을 하지 않는 집사람이었으나 그때만은 자못 섭섭해하였다. 집사람은 자기대로 그 돼지를 수매하여 막내가 성례를 치를 때 가장집물을 사주려고 속구구를 하고있었다. 하기가 세상에 자식을 모른다고할 부모가 어데 있으랴. 나 역시 자식을 둔 아버지이고 손자애까지 있는 할아버지이기도 하다.

돼지우리안을 들여다보고섰는 나에게는 저도 모르게 지난날이 돌이켜졌다.

해방전 《대동아전쟁》에 미쳐날뛰던 일제놈들은 소학교 어린아이들한테까지 낫그릇을 바치라고 강박하였다. 서발막대 휘둘러도 거칠것 하나 없는 우리 집에 낫그릇이 어데 있었으랴. 그것을 바치지 못했다고 애리애리한 종아리에 피멍이 들도록 회초리로 얻어맞고 피눈물을 삼키며 쫓겨나던 일이며 철들기전부터 신문배달과 이집 저집 찾아다니며 물도 길어주고 아이보개노릇도 하며 끼니를 연명해가던 암담했던 유년시절이였다.

무엇때문이었던가. 바로 무능하고 사대주의에 물젖은 봉건통치배들이 군사를 중시하지 않아 일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긴탓이 아니였던가.

은혜에는 보답이 있어야 하고 은덕에 보답할줄 아는것이 참인간의 의리이고 량심일것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귀중한 존재로 되는것은 지능을 가지고있기때문만이 아니다. 량심이 있고 의리가 있기때문이다. 량심을 떼어놓으면 사람은 불것이 없다.

아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당일꾼으로 자라난 내

가 그 은덕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겠는가. 그리고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산》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는가... 그해 우리 집에서는 세마리의 돼지를 인민군대에 지원하였다.

그것은 한점의 불씨로 되었다. 불꽃이 일면 불길은 타번지기마련이다.

그 이듬해부터 농장원들은 저마끔 집에서 돼지를 길러 인민군대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그 수량은 실로 수십 톤에 달하였다.

당일군의 이신작척- 이는 실로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결국 대중을 긍정감화하는데만 그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라 군중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위력한 조직방법 이기도 한것이다.

농장원들은 리당위원회와 당일군들의 집을 제집 문턱 드나들듯 허물없이 드나들군한다.

《이보게 리당비서, 저 궁동 3반 배수로바닥을 정리해야겠더구만. 줄대가 성해서 물이 잘 바지지 않는것 같네.》

하고 칠순이 넘은 로인이 찾아와서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하던 구석을 텅겨주기도 하고

《리당비서어른, 군대에 갔던 우리 둘째가 제대되어 온다는데 어디 맞춤형 색시감을 하나 골라주소다.》

하고 가정생활의 중대사를 나한테 떠맡기다싶이 한다.

그럴 때면 나는 어깨가 무거워짐을 금할수 없다. 하지만 마음은 가볍다. 사람들이 리당비서를 믿고

찾아와 허허물없이 대해주는것이 나에게서 더없이 기쁘기도 하다.

당일군이 군중의 믿음속에 산다는것, 그이상 더 기쁜 일이 어데 있으랴. 금나락 설레이는 포전길을 걸을 때도, 하늘높이 솟은 로적가리를 바라볼 때 느끼는 환희가 아무리 크다한들 여기에 비기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와 당에서 우리 당일군들한테서 바라시는것도 바로 이것이다.

언제나 어버이수령님께서서와 당에서 바라는 이 길을 가고 또 가리라. 우리 농장을 살기 좋은 지상락원으로 꾸려놓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게 될 그날까지...

우리 집에는 전국농업대회에 참가하여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이 있다. 그때 나는 온 우주를 얻은것보다 더 큰 환희와 감격, 행복에 도취되어 있었다.

지금도 나는 그 영광의 절정을 눈앞에 그려보며 우리 농장원들모두가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을 영광의 시각을 위해 나의 있는 힘과 지혜를 깡그리 바쳐나가려는 결심을 가다듬군한다.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할수 없는 그 소원이 그대로 우리 모든 농장원들의 생활의 리정표로 되여 그 어떤 모진 바람이 불어와도 그리고 지구가 뒤집힌대도 맑은 창공에 세차게 펄럭이는 우리 당기발을 한생을 다해 지켜가려는 마음이 더욱 철석같이 굳어진다.

(평북도 염주군 향봉리 리당비서)

당 원

조성관

첫 당원증 가슴에 품던
갓스물 흥안의 나이 어제같은데
세월은 흘렀구나
허영계 머리우에 흰서리 내렸으니...

푸름히 밝아오던 토지개혁의 논둑길을 넘어
해방된 전구 남반부공작대의 나날을 거쳐
포연탄이 군복자락 스치던 전선길을 이어
눈부리 아리던 복구건설의 재더미를 헤쳐
사회주의 오늘에로 굽이쳐온 투쟁의 나날

돌이켜보면 우리 가고 온 길
삼천리를 돌고도 남았으련만
준엄한 투쟁의 길은 상기 앞에 있거니

누를길 없는 혁명의 자각이
이제 다시 되물으며 다짐한다

몸이 늙었다고 당원의 자각
당원의 량심도 늙을것인가
가슴에 첫 당원증을 품던
그날의 그 맹세로 오늘에도 살기를
그날에 뿔이던 피로 투쟁의 한생을 마치고

당원의 이름 지녔다고 당원이던가
당원증을 가슴에 품었다고 당원이던가
머리에 흰서리 내려 깨우치나니
고귀한 그 이름 당원이란
투쟁의 한생으로 이어지는것이라고

이웃들

최성진

우리 현관 7층 세대주들은 직종이 각이하다.

1호집이 품질감독원이라면 2호집의 나는 기사이며 3호집 아버이는 탄광기계공장의 오랜 로동계급인데 주물직장 고문격으로 일하고있다. 전쟁참가자인 아버이는 구역인민참심원이기도 하다. 그리고 4호집 세대주는 얼마전에 구역 식료독채 지배인으로 임명되었고 5호집 젊은이는 랭동차운전사이다.

넉달전 같은 날에 우리는 새 아파트에 이사를 와서 다정한 이웃들로 되었다. 하지만 우리 7층 세대주들이 한자리에 모여앉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것이었다. 품질감독원은 때없이 출장이 잦은 사람이었고 나 역시 취재와 집필차로 금년에만도 여섯달이나 북방의 한 립산사업소에 출장 나가살다가 들어왔다. 다른 세대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랭동차운전사는 하는 일이 돌아다니는 일이어서 때늦어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식료독채 지배인은 항상 쿵튀듯 뛰어나야 한다. 3호집은 3호집대로 분망한 나날을 보내는 아버지이다. 공장에서 새형의 착암대차를 만드는 것과 관련하여 까다로운 주물품을 생산보장하는 일이 험치 않은데다가 이따금 인민참심원사업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우리 세대주들이 지난 8.15날에는 이사를 온후 처음으로 랭동차운전사동무의 집에 모여앉아 요리전문을 나온 젊은 안주인의 음식솜씨도 칭찬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다. 바로 그자리에서 다음번 명절에는 우리 7층 세대주들이 가족들까지 모두 데리고 미림갑문언제우로 야유회를 나가기로 약속이 되었다.

일인즉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었다. 맹물만 마셔도 목이 난다는 뚱뚱한 품질감독원이 그날 넉죽한 얼굴에 취흥이 도도해가지고 미림갑문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요즘 미림갑문쪽이 풍치가 기막히다면서 새 유람선이 두척이나 뗏는데 그것만 타면 봉화리까지 산천구경을 하며 갔다올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좀 아는 사람들은 휴식날이면 대성산이나 모란봉보다도 미림갑문으로 찾아간다고 했다.

그는 모두의 귀가 솔깃하게 미림갑문에 대한 《선전사업》을 하고나서 속심을 꺼내놓았다. 오는 공화국창건기념일에는 준비를 잘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거기로 놀러가자는 것이었다.

《생활에 대한 요구수준이란 끊임없이 높아져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다가와는 국경절이야 방안에 틀고앉아 소주병이나 축대면서 설수 없지요. 자, 그

래 우리 7층 세대주들이 남보다 못한게 뭐겠소. 우선 이 집 새서방님만 보더라도 랭동차운전사였다 더 말할것 없지요. 탄광기계공장아버이야 오랜 공로자이구 인민참심원이니까 구역관내에선 안통할데가 없을게 아니겠소. 게다가 식료독채 지배인아버이까지 움직이면 원 이런 정도이겠나요. 그러니 쪼물쭈하게 놀 생각은 말구 오는 명절엔 우리 동네의 잠재력을 한번 시위해보자구들요.》

그가 우리 세대주들을 털거는 했지만 《쪼물쭈하게 놀 생각을 말라》고 한것은 식료독채 지배인을 끌리는 룡말이 분명했다.

그건 틀림없다. 신접살림인 랭동차운전사만해도 물 좋은 생선류나 그러루한것들이 생기면 이웃들에게 다문 몇마리씩이라도 나눠주어 맛보게 하는 성미이고 품질감독원자신은 지방출장길에 생긴 희귀한 특산물같은것들을 집집에 아낌없이 내놓는 인심 후한 사람인데 식료독채 지배인한테서는 그런 일이 드문 것이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날 우리 현관 세대주들 몇사람이 함께 출근길에 올랐는데 품질감독원 그 룡반이 속이 쿵쿵한지 식료독채 지배인에게 지배인뺨을 내지 않겠느냐고 룡말로 걸고드는 것이었다. 그때 지배인은 황황히 손을 내저으며 《아이구, 여보. 말두 마오. 아직은 체구실을 못하는 지배인이라니까.》 하고 말했다. 자기는 체구실 못하는 지배인이니 이웃들에게도 인사치레 못했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아예 무얼 얻어먹을 생각이냐 말리는 의미같았다. 룡으로 하는 말을 듣고도 얼굴이 빨개지며 바빠하는 이 고지식한 령감을 보며 능글맞게 웃던 품질감독원이 한수 더 뜯 생각을 했다. 그는 지배인령감과 갈라지자 나를 보고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이었다.

《기자선생, 저 령감이 말끝마다 체구실 못하는 지배인이요 하면서 가난한체하는데 그 엉치를 한번 든장질해보라오? 그러면 쪼물쭈한 령감이 마음을 쓸지 알겠소.》

음을 쓸지 알겠소.》

품질감독원은 그레놓고 지배인을 만날적마다 정말로 《든장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식료독채를 타고앉은 지배인이란게 통은 병아리엿통보다도 작다느니, 이웃사람 면무식을 영 하지 않다간 한 현관에서 다 살줄 알라느니 하고.

그랬던 품질감독원이 이번엔 우리 《동네》의 집

단야유회를 받기한것이다.

그의 제의는 모두의 찬동을 받았다. 세대주들은 열근해진 기본들이라 대뜸 거 쏠수다 하고 환성을 질렀다. 그중에서도 3호집 주물공아바이는 그날에 자기가 천렵솜씨를 좀 보이겠노라고 장담을 했다. 그러지 않아도 갑문우에 요즘 강우레기들이 나타나 낚시꾼들이 한창 재미를 본다고 하면서도 그럴 짬까지는 내지 못하던 아바이였다.

품질감독원의 제의는 특히 안해들과 아이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았다. 우리 집 안사람과 인민학교 4학년에 다니는 딸애는 너무 좋아서 어쩔바를 몰라 했다. 하긴 늘쌍 현지에 나가살다싶이하여 안해와 함께 딸애의 손을 잡고 유원지나 거리구경을 나다녀본적이 극히 드문 나였다.

우리 집 사람은 명절야유회준비를 미리부터 서둘렀다.

아마도 안해들이란 그런 일이라면 즐거운 부담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아직도 명절까지는 한주일이나 남았는데 가만 보니 식료매대에 들려 빛다른 식료품을 사오거나 지방의 친척네가 보내오는 특산물 같은것들을 야유회용으로 저축해두는 눈치였다.

내가 그것을 느끼고 《여보, 명절날에도 식료상점에서 의례히 다 공급해주겠는데 뭘 지금부터 그러오. 요란한 잔치라도 차릴것 같구만.》하면 안해는 안해대로의 생각이 있어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 7층집들에서 모두 함께 나가는 야유회인것만큼 자연히 어느 집이 제일인가 말없는 경쟁이 되었는데 기자선생네가 꼴찌를 해서야 되겠어요 하는것이였다. 《다른 집들에 비해 우리 집은 특별히 준비를 잘해야지 등의 가작에도 당선되기 힘들어요.》 안해의 말에 의하면 7층《동네》의 모든 집들에서 야유회준비를 버르어 하는 눈치라고 했다. 한아빠트의 같은 층에 이사를 와서 처음으로 조직하는 명절야유회라 은근히 승벽들이 작용하는 모양이였다.

우리 집 딸애는 매일 저녁이면 이웃집들의 야유회준비와 관련한 《블레썬》을 발표하곤했다. 옆집의 숙희네는 랑동기안에 남방특산물인 무엇무엇을 넣어두었다느니 또 누구네는 신포에 사는 할아버지가 보내온 평장히 큰 문어를 걸어놓고있다는 등.

그애는 집의 달력장에 매일매일 동그라미를 그으며 국경절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내가 북방의 립산로동자들과 작별하고 평양으로 올라온 다음 새로 번져놓은 9월달 력서장에도 여덟개의 동그라미가 생겨났다. 래일이 국경절인것이다.

직장에서 기념보고대회소식을 텔레비존으로 청취하고 집으로 퇴근해오니 집에서는 벌써 명절날이다. 안해는 식료상점에서 주민들에게 특별봉사를 하는 고급식료품들을 받아다 펼쳐놓은채 부엌에서 분주당을 피웠고 옥림이는 새옷과 모자와 등산용배낭을 준비하느라 방안을 한가득 널어놓았다.

그날밤은 나도 편안한 잠을 자지 못했다. 한것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장단소리며 지지고 볶는 료리냄새때문이었다. 아마도 안해는 음식을 한차판쯤 지저널 잡도리같았다.

참, 안해들의 이런 정력에는 놀라지 않을수 없다!

그네들은 남편들과 아이들을 위하는 부엌일이라면 온밤을 새워도 흥취가 나서 피곤을 모르는것 같다.

내가 아침에 늦어서 깨어나보니 안해는 밤을 꼬박 새운 사람같지 않게 어느새 명절옷단장에 화장까지 끝내고 옥림이의 옷차림을 봐주는데 여념이 없었다.

자연 이런 야유회에 자주 나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안해가 그렇게 환하게 차려입은것을 나는 이 근래에 와서는 처음 보는것 같다. 엷은 비로도치마에 눈부신 다색단저고리를 입고 트레머리를 한 안해의 모습이 한 십년은 더 젊어보인다. 사십대가 녀성의 전성기라는 말도 과시 옳은것 같다.

《여보, 빨리 일어나세요. 또 무슨 책이예요.》

딸애의 치마주름이 구겨졌다고 닦아세우던 안해가 머리맡의 소설책을 찾아드는 나를 보자 하는 지청구이다. 나는 그만 책을 놓고말았다. 그런데도 안해는 옆집의 주물공아바이네랑도 모두 떠날 차비라면서 의연히 부산스레 몰아뒀다.

집을 나서려던 우리는 한가지 일로 하여 지체하게 되었다. 예상치 않게도 술때문이었다. 식료상점에서 받아온 《송산술》병이 바닥 한구석에 놓여있는것이였다. 그 《송산술》로 말하면 우리 구역 일꾼들이 애써 노력한탓에 차려진 새로운 품종인데 식료공장에서 다량생산을 시작함으로써 뜻깊은 국경절을 맞으며 드디어 주민들에게 차례지기 시작한 것이였다. 내가 그 술병을 왜 내놓았는가고 했더니 안해는 오늘같은 날에 하필이면 그런것을 들고가겠느냐면서 가방을 열어보았다. 그안에는 정말 화려한 상표가 붙은 병이 두개나 들어있었다. 안해가 언제 그런 희귀한것까지 구해두었는지는 모를 일이였다. 하지만 나는 어쩐지 그날만은 우리 구역 일꾼들의 노력의 대가인 그 소박한 상표의 《송산술》을 가지고 가고싶었다. 구역주민들의 생활을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며 뛰어다니는 우리 《동네》의 지배인령감이며 주물공아바이에게 그 술을 한잔씩 부어드리고싶기도 했다. 나는 끝내 안해를 설복하여 목이 긴 술병대신 《송산술》을 가지고가게 하였다.

복도에서 우리는 5호집의 랑동차운전사부부를 만났다. 내외오누이라고 성격마저도 둘다 조용한편인 이들 젊은 부부사이에 약간한 싱겁이가 생기였다. 문밖을 나서는 멋진 양복차림의 남편을 따라나온 새색시가 혼장 달고가는것을 잊었다면서 국기훈장 3급 하나를 내주는데 새서방은 그것이 정말 혼장임을 알자 바빠하며 나를 얼른 바라보았다. 새서방은 얼굴이 빨갛게 되더니 안해쪽에 대고 재빨리

속삭이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웃겠소. 기념행사도 아닌데 혼장을 무슨 자랑거리처럼 달고간다고 그래.》

《어마나! 혼장이 어쨌다고 그래요. 오늘은 공화국창건기념일이 아니예요. 달고가셔야 해요.》

그들의 일을 지켜보던 나는 저도 모르게 속이悶클었다.

새색시의 말이 옳다. 오늘은 조국의 모든 국민들이 공화국을 축복해야 할 뜻깊은 국경일이 아닌가. 그 혼장 하나로 말하면 뺑동차운전사가 깨끗한 랑심과 성실한 로동으로 조국을 받들어온 공로에 대한 표창이 아닌가.

《운전사동무, 안해의 마음인데 달고가라구. 혼장이란 얼마나 자랑스러운거요.》 나는 자기도 모르게 조금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품질감독원내 1호집 문이 열리었다. 마침 그네들도 집을 나서는참이었다. 요란한 가정이었다. 벌써 얼굴색이 벌겋해진 품질감독원이 화려한 차림을 한 부인과 역시 아버지를 닮아 몸들이 좋은 아들들을 데리고 벽짝거리며 집을 나서는데 매 사람마다 크고작은 구렁이나 가방을 한두개씩 들었다. 중학교 졸업반에서 공부하는 딸의 손에는 번쩍거리는 신행록음기가 들려있었다. 음향조절을 전혀 하지 않아 록음기가 터질듯 울려나오는 《양산도》 가락이 온 복도를 진감시켰다. 옷차림이 요란스러운데 비하면 세련미가 덜한 안주인이 《양산도》 가락보다 더 큰 소리로 활 열려진 자기 집 문안에 대고 막내녀석을 불렀다. 그러자 인차 장난군으로 소문난 막내녀석이 야크투성이의 벌난 가방을 멘데다가 자기의 키만한 기타를 안고 걸어나왔다.

뺑동차운전사가 그들의 요란한 행차를 보더니 나를 향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평장한데요!》

《허허...》 나 역시 동감의 뜻으로 웃었다. 좋은 음악도 때와 장소에 어울리게 음향조절을 하지 않으면 어지러운 소음과 같이 들리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음악은 인간의 로쇠를 막지만 어지러운 소음은 수명을 단축시킨다던 말이 떠올랐다. 그래서 록음기의 음향을 좀 낮추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뺑동차운전사는 계단을 떠들썩거리며 내려가는 품질감독원네를 여전히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싱글벙글 웃는 것이었다.

사실 그가 그렇게 놀랄만도 했다. 우리 집 안사람이 밤새껏 자지 않고 준비했다는 것이 그리 크지 않은 가방 두개인데 뺑동차운전사네는 우리보다 더 간소했다. 그가 식료부문에 종사하는 대형뺑동차운전사이고보면 준비품이 요란할듯한데 새색시가 들고나온 들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그런데 품질감독원네는 얼마나 요란한가.

아파트아래에 먼저 내려간 품질감독원네가 집앞

으로 지나간 길가에서 빨리 오라고 우리를 소리쳐 불렀다. 그래서 가보니 뺑스 한대가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있었다. 마침 미림갑문쪽으로 가는 뺑스인데 품질감독원이 꽃밭이나 아는 그 운전수와 사업한 것이었다. 러파담배를 입에 문채 운전사가 바쁜일이 있는지 빨리들 오르라고 독촉했다.

《1호집 덕분에 호강하며 가게 됐군요. 이 신세를 어떻게 갚는다?》 주물공아바이네 마누라가 부한 몸을 뚱기적거리며 뺑스안으로 올라와 좋아서 수선을 피웠다. 그바람에 품질감독원이 흡족해서 입이 커졌다.

《허, 그러지 마시라고요. 사실이야 운전사동무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지요.》

《옳수다. 그야 물론이구요.》

《정말 고맙수다. 운전사동무!》

즐겁고 따뜻한 분위기가 흐르는가운데 3호집 마누라가 일동을 대표하여 운전사한테 진심으로 사의를 표했다. 그러자 또 여럿이 동을 달았다.

주물공인 3호집아바이 혼자 조용히 담배를 맛있게 피우고있었다. 언제 봐야 우리 7층 《동네》 적으로 제일 말수가 적은 아바이였다. 전쟁참가자이며 전후복구건설과 천리마운동을 거쳐 사회주의대건설에 이르기까지 간고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혁명의 매 단계를 살아온 아바이는 그사이에 다자란 아들 딸들을 세간내고 늘그막에 마누라와 단둘이 조용하게 산다. 그의 집에서는 시집간 딸들이나 한번씩 찾아오면 인척기가 들릴뿐이었다. 오늘도 아바이네가 일행이 제일 단출한편이고 그만큼 가지고가는 꾸레미도 소박해보인다. 그래도 아바이의 가방 한귀퉁이로는 조립식 낚시대가 비죽이 내밀려있다. 그 자신은 회색잠바옷에 밀짚모자를 쓴것이 고급한 낚시군의 차림 그대로이다. 내가 보기에 아바이는 우리의 야유회보다도 천렵에 더 흥미를 두고있는것 같다. 다만 그의 마누라만은 독수공방처지에서 벗어났다는 기쁨에 들떠있는것이 헛동했다. 그는 젊은이들과 아이들속에 곧잘 어울려 웃고 떠들면서 좌중의 분위기를 밝게 해주었다.

뺑스는 4호집때문에 인차 떠나지 못했다. 왜서인지 그 집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자, 이거 식료독채에서 평장스레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려는가보군.》

품질감독원이 아빠트를 올려다보며 약간 짜증기가 어린 소리로 중얼거렸다. 뺑스운전사가 시계를 들여다보며 바쁘다는 소리를 했다. 그러지 않아도 어서 빨리 갑문의 풍치를 보고싶은 심정들이라 모두들 느렁뱅이 지배인령감네를 두고 불만을 토했다.

《이 아바이 벌써 취해서 녹아떨어진게 아니요?》

《원, 그럴리가 있나요. 명절날이니까 좀 늦게 일어날수도 있겠지요.》

《그 아바이 매일 아침 마당청소는 먼저 일어나

하는걸 보문 그런것 같지도 않아요.》

《혹시 먼저 떠난게 아닐까요?》

《그렇수도 있겠수다. 새벽부터 그 집에선 조용하더라니까요.》

《그럼 공연히 기다리는게 아닌가. 아무래도 5호집 젊은이가 한번 수고를 하구려.》

4호집에 알아보러 올라갔던 땡동차운전사가 그 집의 마누라와 아이들을 앞세우고 나타났다. 지배인령감은 보이지 않았다. 체소하면서도 고결한 인품이 엿보이는 안주인의 말이 세대주가 새벽에 무슨 자동차걱정을 하면서 직장으로 나간후 여직 돌아오지 않아 기다리는중이라느것이였다. 말을 듣고 보니 그 집 아이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져있었다. 이런날 자기들의 아버지만이 없는것으로 하여 축잡혀 버린것이였다. 어린것들의 그런 얼굴색들을 보자 나는 속이 좋지 않았다.

(원, 지배인령감두, 오늘같은날에야 만사를 제껴 놓고서라도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어야지. 어디가서 돌아다니단말인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지배인령감을 모두 한정없이 기다리고있을수는 없어 우리는 그 집 식구들을 함께 태우고 먼저 떠났다.

큰길에 나서니 거리는 온통 명절일색이다.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의 물결이 길들을 메우며 흘러가고 기관청사마다에는 공화국기발이 게양되어서느러운 바람에 천천히 나뭇겼다. 기발은 집집의 로대며 창문들에도 내걸리였다. 많은 추억과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기발의 《바다》였다. 하지만 뺄스에 앉아가는 우리 일행은 즐겁기만한것이 아니였다. 지배인령감때문이었다. 4호집의 아이들은 행여나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을가하여 달리는 뺄스의 뒤를 돌아다보곤하는데 그 아이들로 하여 차안의 분위기는 자연 어성버성해졌다. 나는 또 속으로 지배인령감을 욕하기 시작했다.

지배인은 우리들이 호수가에 짐들을 내려놓은지 두시간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였다. 그 령감을 빼놓고 우리끼리 야유회를 시작할수는 없는것이였다. 그러면 가뜩이나 울적해진 4호집 아이들의 마음이 어떠하랴. 그래서 모두들 지배인령감을 두고 걱정도 하며 짜증도 내다나니 분위기는 도무지 밝아질줄 몰랐다. 그것을 느낀 품질감독원이 답답한듯 손을 뻗 내젓더니 큰소리로 떠들었다.

《자자, 자동차때문에 갔다니까 이제 한차판 싣고 척 나타날거우다. 두고보라니까요. 아무튼 우리 지배인령감이 오늘은 마음을 쓰려는게 분명하다니까요.》 그는 4호집 아이들을 돌아보며 이상하게 한쪽 눈을 찌긔해보였다. 기다리기에 지쳐가는 사람들의 기분을 돌리기 위해 우정 그러는것 같았다. 확실히 그의 말은 굴러가는 바퀴에 윤활유를 치는격의 작용을 했다.

《허-한차판 싣고온단말이지. 좋구만.》

《지배인이라면야 그쯤해야지요.》

《그걸 어떻게 다 처리한다?》

《은, 걱정할거나 있수. 우리 새색시 새서방님의 잔치를 다시 차려보자구요?》

《그게 좋겠수다. 헌데 내 모르겠다- 그 령감이 한차판 싣고 오거나 할걸 그러나?》

《자-틀림없다는데. 이 품질감독원을 믿수다. 이제 두고보시라구들요.》

《그럼 기다리세. 좌우간 오늘 야유회가 굉장해지겠는걸.》

모두 흥에 겨워 떠들어댔다. 행복의 수레바퀴는 살살 굴러가는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유쾌한 이야기관에 섭쓸리면서도 은연중 마음한구석이 껴름직했다. 그것은 지배인령감이 정말로 우리 현관 사람들을 위해 식료독채창고에 들리지 않았는가 하는데서 오는 감정이었다.

무엇을 《한차판》 싣고온다는것은 당치않은 일이지만 령감이 큼직한 독채의 지배인이겠다, 술 몇 병쯤이나 고급당과류같은 그러루한것을 얼마쯤은 내놓수도 있는것이였다. 꼬장꼬장하고 고지식한 지배인령감이 비위살좋은 품질감독원의 롱말들을 끝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오늘은 드디어 《큰마음》이라도 먹은것이라면, 그래서 야유회에 늦어지기까지 하는것이라면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

내가 이런 심사에 빠져있는동안 3호집 주물공아바이는 말없이 낚시터를 찾아갔다. 언제나 조용히 지내는 땡동차운전사는 자기의 아름다운 젊은 안해와 무슨 말인가를 속삭이고있었고 품질감독원은 아낙네들과 아이들의 기분을 취율리며 돌아치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유람선이 떠있는 잔교로 갔다.

거기 잔교에는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았다는 어느 건설사업소의 젊은이들이 유람선을 타려고 대기하고있었다. 품질감독원은 그들사이를 빠져 선장실로 올라갔다. 선장과 무슨 교섭을 하려는것 같았다. 참으로 우리의 1호집 사람은 지칠줄 모르는 활동가였다. 그는 대체로 자기를 언제나 깡그리 드러내고 남을 위해 뛰여다니며 헌신하는데서 기쁨을 찾는 그런형의 인간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생활에 비타민처럼 필요한 활력을 보태주는것이다.

그런데 나의 마음 한구석에 생겨난 그 껴름직한 생각은 도무지 사라질줄 몰랐다.

나는 3호집아바이가 있는 물가로 갔다. 어쩐지 아바이의 곁에 있고싶었다.

아바이는 벌써 잔과문이 퍼져가는 수면우에 낚시줄을 드리우고 앉아있었다.

《와서 구경하오. 내 이제 큰놈을 하나 건져내리다.》 아바이가 나를 향해 일부러스럽게 밝은 미소를 지어보이며 말했다.

《아바이.》

《왜?》

아바이는 나의 심중해진 낯색을 피뚝 건너다보았다. 나는 지배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야유회가 잘되어가는것 같은가고 물으려다가 아바이의 무척 선량해보이는 눈길에 질려 그만 단념했다.

나는 수더분하면서도 한편 많은것을 항상 사색하는것 같은 이 정확하고 깨끗한 아바이에게 조금전 생각을 그대로 털어놓을수 없었다. 산전수전을 겪을대로 겪어온 오랜 아바이앞에서 인간에 대한 결론같은것을 서투르게 말한다는것은 더없이 경솔한 처사일수 있는것이였다.

아바이도 나에게서 대답을 더 요구하지 않았다.

침묵하던 아바이의 두눈이 어느때부터인가 긴장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온 신경이 물우에 쏠리면서 차츰차츰 흥분하는것이였다.

《허, 저걸 보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조심스럽게 속삭거렸다. 《파문이 일지 않소. 우레기란놈이 놀고있소. 미끼냄새를 맡은 모양이지. 음, 물마루로 올라오지 말고 아래로 내려가라. 내려가! 원, 뜬미끼만 찾아 해매다니 멍청이같은놈들. 밑에 내려가야 먹이가 있지 음... 음...》

나에게는 물우로 번져가는 파문이 류다른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아바이는 고기의 움직임을 눈으로 보듯이 감각하고있는것 같았다.

그는 정말 낚시질에 옴해버리는듯했다.

가없이 푸르고 높은 하늘에서는 커다란 태양이 솟아올라 불덩어리처럼 이글거리였다. 참 좋은 날이였다. 파문이 퍼져가는데 따라 느물거리는 물마루에 해빛이 부서지며 눈부시게 반짝이였다.

빨간 라크를 맥인 감부기가 동 떠서 기척이 없더니 갑자기 숨박곡질하듯 물속으로 사라졌다. 웬일인지 한동안 중얼거리던 아바이는 꼼짝하지 않았다.

무슨 생각엔가 빠져버린것이였다.

어인 일인가 해서 한순간 멍멍해있던 나는 급기야 《아바이!》 하고 소리쳤다. 그제서야 아바이는 흠칫 놀라며 줄을 힘껏 쳤다. 하지만 늦었다. 고기란놈은 미끼를 떼먹고 달아난것이였다.

《마수거리를 놓쳤군요.》 나는 분해서 말했다.

그런데 아바이는 별반 아쉬워하는 기색이 아니였다. 낚시를 손질하여 다시 던져넣고 덤덤히 앉아있던 아바이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다.

《저 품질감독원랑반이 사람은 좋은데 룡말은 지나쳤거던. 지배인동무같은 사람앞에선 룡말도 그런 룡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건데. 그 고지식한 령감이 공연히 마음을 쓰게 만들었어.》

《?》

《하지만 그 사람 지배인은 좋은 사람이야.》

《...!!》 아바이는 조금전 나의 그 침묵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고있었던것이다. 예민하고 속깊은

아바이였다. 나는 무어라고 할말이 없어졌다.

갑자기 녀인들과 아이들이 있는곳에서 환성이 일어났다. 돌아다보니 품질감독원이 그네들속에 예워싸여있다가 빠져나오는것이였다. 무슨 좋은일이라고 생긴가보다.

《예, 힘들게 해결됐수다.》 낚시터로 기운차게 걸어오며 품질감독원이 말했다. 《스무명정도밖에 더 탈 여유가 없는데 건설사업소 친구들한테 양보하고나면 우리 자리가 없지요. 그런걸 그 친구들한테 량해를 구하고 겨우 유람선을 물려쫘수다.》 그는 제잡담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시계를 보았다. 번번하던 이마에 주름살 두개가 생겨났다.

《자, 이 령감이 왜 아직 안나타나? 배가 열한시엔 떠나겠다고 했는데.》

《4호집 세대주야 지배인이니까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못오겠지요.》 언제 옆에 와섰는지 랑동차운전사가 한마디 끼들었다. 이 침착하고 조용한 젊은이의 어조에도 순란치 않은 감정이 내뿜기였다.

나도 속이 좋지 않았다.

《여보시오. 옆집 사람!》

《왜 그러시오?》

품질감독원은 나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감을 느끼었던지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생각했던것보다 조용조용 말했다.

《이제말이요. 오늘은 모두에게 즐거운 명절이 아니요. 우리가 유람선에 먼저 오르는대신 저 건설사업소동무들이 남게 된다면 얼마나 서운해하겠소. 난 이렇게 생각하오. 양보는 그들이 해야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한다고말이요. 어떻소?》

《그렇게 하지.》

낚시대를 들고있던 아바이가 한마디 비치였다.

나는 랑동차운전사의 마음을 리해하면서도 일부러 그에게 눈길을 돌리였다.

《새서방님 생각은 어떻소?》

《그렇게 합시다.》

품질감독원도 인사불성은 아니였다.

《쫘수다. 모두들 같은 생각같은데 그럼 취소를 하고 오지요.》 그는 선선히 말하면서 손을 책 내것더니 랑동차운전사를 향해 눈을 꿈뻑했다. 《대중의 의사인데.》 하고 말했다.

그가 이 말을 어떤 다른 감정을 끼여서 한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분위기는 한결 밝아졌다. 사람들이 한마음되어 서로 리해한다는것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것이라고 해도 즐거운것이다.

《쫘구만!》 주물공아바이는 무엇이 좋다는것인지 모를 애매한 소리를 한마디 중얼거리더니 주머니에서 《경축》 담배갑을 꺼냈다. 그는 5호집 새서방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한대씩 권하고는 자신도 한대 붙여물었다. 바로 그 순간이였다. 물마루에 떠있는 감부기만은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있던 그의

눈이 통방울같이 커지면서 번쩍하고 광채를 뿜었다. 그와 동시에 낚시대를 휙 들어올렸다.

낚시대가 금시 푹 부러질듯 활동같이 휘여들고 팽팽 행거진 낚시줄에 고기의 목직한 요동이 실리는 것이 알리었다. 아바이는 침착성을 잃지 않은 민첩하고 정확한 동작으로 낚시줄을 감다가는 조금씩 놔주곤 했다.

(우레기요! 어허, 이놈봐라. 그래 그래... 음... 예크, 꽤 큰놈인걸.》

수면에 둥그런 파문이 일어나더니 허연 룬락이 드러났다. 장관이었다. 인간의 지혜에 걸려들어 맥을 말짱 뽑은 두어쌍 기장의 살찐 우레기가 기슭으로 순순히 끌려나오는 것이었다. 그놈은 물에 떨어지자 퍼들쩍거리며 자반뒤집기를 했다.

《우리 로친한테 가서 회를 칠 준비를 하라고 이르게. 마수거리가 좋은걸보니 뱃놈은 문제없다니까.》 낚시줄을 물속에 던져넣은 다음 흡족한김에 담배 한대를 새로 꺼내문 아바이가 유쾌하게 장담했다. 참 기막히는 일이 벌여졌다. 아바이가 담배 한대를 마저 태우기도전에 또 한마리의 커다란 우레기가 걸려들었다. 우레기는 련속 물려나와 30분도 되나마나한테 네마리나 잡았다.

아바이의 말에 의하면 굉장한 우레기무리가 명절을 축하하러 왔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펄펄 뛰는 우레기가 소행이 하나는 넘쳐나도록 생겼으니 우리의 야유회가 불만하게 됐다.

《아바이가 가방안에 낚시대 하나만 들고오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보니 우리 〈동네〉 적으로 제일 큰가방을 가져오셨수다!》

《역시 로동계급아바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줄 아신다니까요!》

《낚시군들도 무슨 협회인지 동맹인지 하는게 있다더니 거기 가면 위원장쯤 하시겠어요!》

모두 아바이를 추어올리며 즐겁게 웃었다.

이때 녀인들은 옥자같이 한발 깔린 평평한 공지를 차지하고 음식준비를 서두르고있었다. 날랜 손들은 벌써 요리감들을 손질하거나 곤로불을 피워올리었다. 유람선을 취소시킨 품질감독원은 또 거기에 끼여들더니 뭐라고 훈시를 하기 시작했다.

《저 광옥이 아버지는 직업을 잘못 선택했군요. 식당책임자를 하면 제격이겠는데요.》 랭동차운전사가 우레기궤미를 들고가며 슬그머니 속삭였다. 나는 절로 웃음이 나왔다.

《허, 그런것 같소.》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불안은 가시여질줄 몰랐다.

(지배인이 왜 아직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나는 또 생각했다.

해는 벌써 머리위에 걸려있었다. 점심참도 가까와오는것이다. 나는 그가 빨리 나타나기를 기다리

면서도 한편 나타날까 불안해하는 모순된 심리를 안고있는 자신을 느끼고 속으로 놀랐다. 내가 그 텅터부레하게 생긴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속이 달도록 신경을 써볼 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다.

나는 내자신이 그에게서 무엇을 바라고있는지를 분명 의식하고있었다. 그것은 소중한 감정이었다. 나는 3호집 아바이나 5호집의 새서방님도 나와 똑같은 심정이라는것을 느끼고있었다. 그렇다, 그들도 아직까지 까닭모를 일로 하여 우리의 명절야유회에 늦어지고있는 식료독채 지배인에 대하여 생각하고있는것이 틀림없었다.

이상야릇한 《주인공》인 지배인은 점심때가 다되어 우리의 다정한 녀인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릴 때에야 나타났다. 그것도 보통의 행차가 아니었다. 자기 아버지만이 없는것으로 하여 내내 풀이 죽어있던 4호집의 중학생이 《어머니, 저기 아버지가 와요!》 하고 소리치기에 모두 큰길쪽을 바라보니 원 이게 뭔가! 하얀 도색을 한 식료품운반용자동차 한대가 와닿았는데 미닫이식차문이 열리면서 식료독채 지배인이 내리는 것이었다.

열려진 문안으로 차에 가득 실은 지함들이며 병목이 비죽비죽 나온 비닐상자들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는 커다란 담벽이 와르르 무너져내리는것만 같았다. 멧모르는 아이들은 4호집의 기다리던 세대주가 왔다고 좋아들하지만 나에게서는 꼭 주위에 어둠이 짙 내려덮인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나는 이웃들의 굳건한 믿음을 저버린 지배인령감이 말할수 없이 미웠다. 어쩌면 우리 생활에 이런 일이 있을수 있단말인가! 원, 어쩌면!

나는 저도 모르게 사람들을, 정확히 말하면 우리 남자들을 둘러보았다. 모두들 엄청난 비애를 안고있는 사람들처럼 침중해버렸다. 사람좋은 3호집 주물공아바이마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황황히 담배갑을 찾았고 랭동차운전사는 자기의 새색시에게 뭐라고 조심조심 속삭이는 것이었다. 그런데 1호집 품질감독원은? 그 사람만은 자기의 실없는 룬담의 엄청난 결과를 놓고 기뻐할것인가? 나는 심장을 도난당한듯한 분한 마음을 목새기지 못하면서 그를 찾았다.

품질감독원은 녀인들한테서 조금 떨어진 물가에 있었다. 그는 갑자기 진액이 다 빠져버리고 허물만 남은 사람처럼 보이였다. 가까이 다가오는 지배인령감을 두려운 눈길로 바라보다가 무너져내리듯 풀판에 주저앉았다. 나는 그의 얼굴이 컴컴하게 죽어드는것을 분명 보았다. 아무렴 저 사람도 우리 현관의 여느 사람들과 다를바 없지 않는가. 우리와 같은 마음일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데 눈앞에 들이닥친 저 식료운반차는 도대체 어떻게 된것인가!

4호집의 막내인 중학생이 기고만장해져서 식료

차안의 지함들에 손을 뻗치려 하자 지배인이 제지시켰다.

《이녀석아. 그건 다치는게 아니야!》

지배인은 사람들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물넉에 차려놓은 음식가지들을 둘러보고나서 무슨 어마어마한 판결이라도 기다리고있는듯 주눅이 들어버린 우리 남자들을 보며 좀 이상스러워했다.

《이거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구만.》 그는 우리 남자들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제나름으로 이해하며 말했다. 《어제 저녁 우리 딸애가 직장에서 돌아오다 봤다는데 속도전청년돌격대 한개 소대가 구역관내에 와서 급히 천막을 치더라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 친구들이 명절림박에 이동하느라 명절준비를 웬걸 번번히 했겠소. 그래 아침부터 독채에 나가 조직사업을 좀 하다니니... 어찌겠소. 그들도 우리 구역의 주민인셈인데 한사람이라도 명절을 섭섭하게 쇠게 하면 안되지요.》

그가 무슨 변명이라도 하듯. 원 그 사람들도 명절을 쇠고 오던가 미리 올게지... 하긴 돌격대니까... 하고 동당지 않게 중얼거렸으나 나는 그것을 조금도 타타고싶지 않았다. 다만 그가 새벽부터 돌격대 한개 소대를 위해 운전사를 발동시키고 공급사업을 조직하며 뛰어다녔을 그 모든 수고가 헤아려져 머리가 숙어지는것이였다. 다른 사람들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생각들이 깊어진것이였다. 문득 어디선가 멀리 않은곳에서 와-와-하는 환성이 들려왔다. 뽕파리가 채령채령 울리였다.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듯 일제히 소리나는쪽을 바라보았다. 해빛이 자글자글 끓고있는 상류의 푸른 언덕반이아래에는 돌격대원들이 살고있는 자그마한 가건물 한채가 서있었다. 그 지붕위로 하얀 공이 높이 떠오르군했다. 뽕파리소리와 청년들의 합성은 그 공과 함께 날아오르는것이였다. 어떻게 되어 나는 인제야 돌격대원들의 집을 알아보았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니까 저 차안의것들이 모두 돌격대원동무들한테 실어가는 식료품들이란말이요?!》

《그렇수다. 3호집 아바이, 참, 글썽 나하나때문에 야유회가 너무 늦어질것 같아 걱정을 했더니 저 운전사동무가 하는 말이 그러면 되겠는가고 하면서 우정 여기까지 와주지 않겠소.》

《좋은 사람들이지. 모두 좋은...》 아바이는 갑자기 몸이 불편스럽기라도 한듯 말문이 막혀버렸다. 수북한 그의 장미가 떨고 울대뼈가 꿈틀거리였다. 한참후에야 아바이는 로동으로 커진 투박한 손으로 식료독채 지배인의 손을 꼭 쥐며 약간 짜증이 섞인것 같은 소리를 떠뜸거리였다.

《사람두... 제구실 못하는 지배인이란... 당치 않은 소리를 다시는 하지 마요. 당신이야말로 우리 구역의 착실한 주부웨다. 돌격대원들로 말하문야 그들도 우리 현관 사람들과 다름없소. 암, 한현관 사

람들이나 같지 않구.》

아바이의 말을 들으며 나는 가슴이 후터워왔다. 우리 구역의 주민이라, 그러니 저 지배인의 머리속에는 우리 7층 《동네》 사람들은 물론 방금 이동전개했다는 돌격대원 매명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언제나 걱정하며 돌봐주어야 할 《우리 구역 주민》으로 계산되어있는것이였다.

떠나가는 식료차를 바래워주고났을 때에야 누군가 출출하다는 소리를 해서 우리는 점심때가 되었다는것을 상기했다.

우리는 한가정처럼 녀인들이며 아이들과 어울려 깨끗한 자갈판에 둘러앉았다.

우리의 명절음식판은 요란했다. 산해진미가 다있었다. 불고기며 갖가지 신선한 담새료리며 편육접시들과 울긋불긋한 과일들과 그리고 지방특산물인 산채무침이며 문어료리며... 그 많은것들중에서도 주물공아바이가 낚아냈고 그 집 안주인이 솜씨를 보인 대동강의 우레기회가 이채를 띠였다.

《이거 굉장한데!》 누군가 흡족해서 부르짖었다. 그러자 음식판을 둘러보던 주물공아바이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아니야. 이거야 내인들이나 좋아하는것들이지. 뭐니뭐니해도 우리 사내들한테야...》

갑자기 물목이 터지듯 왁짜그르르하는 녀인들의 말소리에 아바이는 황겁해서 손을 뻗혀 내저었다. 그저 남자들이야 갈대 있나요. 술이라면 오금을 못쓰지요. 에이구. 술취한 령감은 곁에 오는것도 싫수다. 원, 하고 한마디씩 했다. 말이 없는 녀인이란 입을 가리우고 부끄러워하는 5호집 새색시뿐이였다.

녀인들의 유쾌한 반응이 잦아들무렵에 식료독채 지배인이 자기의 크지 않은 비닐가방을 열었다.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쏠리는가운데 지배인은 가방안에서 소박한 상표가 붙은 《송산술》 두병을 꺼내놓았다.

《이거 세대주동무들한테 안됐소.》

그는 몹시 미안해하며 얼굴을 붉히였다. 《식료독채 지배인이라는게 같은 층에 살면서 인사치레도 번번히...》 하고 주저주저 말했다.

조용해졌다. 하긴 무슨 말은 더하랴. 우리의 지배인이 가져온 《송산술》 두병의 래력을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아는것이였다. 그것은 바로 이번 국경절을 맞으며 그의 세대가 식료상점에서 받아온 것이였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는가운데 그래도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은 7층 《동네》의 년장자인 3호집 아바이였다.

《여보, 지배인동무. 그러지 마요. 뭘 미안해서 그러는거요. 말은 바른대로 사실이야 동무가 인민들에게 차려진 국가식료품을 당자들에게 골고루 가당 기도전에 지배인났을 내려고 한집 지고 여기에 나

타났더라면 오늘의 야유회가 어떻게 되었겠소. 참 시시하게 되었을거란말이요.》

아바이의 두눈이 이슬에 젖어 번쩍이었다. 그것이 좌중의 기분을 숙연하게 했다. 아바이는 갑자기 쾌활한 미소를 띄우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자, 뭇들 하고있소. 우리 공화국의 국경절을 기념해야지. 이 주물공령감도 뭐 맨손으로 온줄 아오》 아바이는 자기의 손때묻은 오랜 가죽들가방을 들추더니 같은 상표의 《송산술》을 꺼내들었다. 어이구, 이 정신을 보지. 나는 왜 그 생각을 잊고있었담. 나는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 안해를 향해 의미있는 눈짓을 해보이고나서 《송산술》병이 들어있는 가방을 찾았다. 그러자 모두들 일제히 가방 속에서 레의 그 《송산술》병들을 꺼내들었다.

《허허, 여보, 독재지배인, 이걸 보오. 당신이 늘쌍〈제구실못하는 지배인〉이라고 하지만 결코 가난한 지배인이 아니란말이요. 당신이야말로 잘사는 지배인이지.》 3호집 아바이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들을 둘러보았다. 《동무들, 이걸 우리 구역에서 다량생산에 들어간 첫 〈송산술〉이요. 오늘은 우리들이 첫 제품을 받아안았지만 난 확신하오. 이제 우리 조국은 더욱 부유해질거요. 내가 왜 이렇게 장담하는가? 그건 바로 인민을 위해 진심으로 일할줄 아는 이런 일꾼들이 있기때문이요. 이런 일꾼들을 낳은 공화국의 앞날은 창창하오!》

우리 사나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안해들이 부여주는 맑은 술을 받았다. 명절을 위하여! 고마운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머리로 솟아오른 술잔들에 해

빛이 한가득 차서 반짝이었다.

축배의 잔을 기울이는 나의 눈에 문득 품질감독원이 비쳐들었다. 그만은 잔을 들여다보며 움직일 줄 모르는것이였다. 심란한 생각에 잠겨버린듯한 그를 보자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욱 즐거워졌다.

《자, 좋은 술을 어서 들자구요.》 나는 품질감독원의 옆구리를 슬그머니 툭 치고나서 좌중에게 하듯 큰소리로 말했다.

록음기에서는 흥겨운 노래가락이 듣기 좋게 흘러나오는데 잔교쪽에서 유람선의 긴 고동소리가 들려왔다. 공화국기를 줄줄이 드리워 온통 명절장식을 한 화려한 유람선이 기슭을 떠나 푸른 호반을 향하고있었다. 배우에서는 아름답게 펼쳐입은 젊은이들이 우리를 향해 손을 저으며 뭐라고들 소리쳤다. 건설사업소의 노동자들이였다. 나의 눈길은 그들의 가슴마다에 번쩍이는 훈장이며 메달들에 가 멎었다. 문득 아침에 남편의 가슴에 굳이 훈장을 달아주던 새색시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공화국기가 장식된 훈장의 의미가 새롭게 안겨오는것이였다. 그러자 나의 눈앞에는 야유회를 나오면서 보았던 공화국기의 《바다》가 떠올랐다. 그 무수한 기발들이 눈앞에서 기운차게 나뭇기고 련이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가운데 나는 다정한 이웃들과 다름없는 사람들, 지난 몇달동안 정들여 사귀었던 평범하고 소박한 립산로동자들을 생각했다. 근면한 로동으로 한생을 성실하게 바쳐오는 그들이 오늘도 먼 북방의 산판에서 조국의 재부를 말없이 늘여가고있으리라.

또하나의 꽃분이를

김희종

가극이 끝나자

터져오르는 박수의 우뢰속을 헤치며

무대에 뛰어오른 수경이

꽃분이의 손을 뜨겁게 뜨겁게 흔들어주고있어라

투쟁 투쟁만이 살길이라는

하나의 진리를 가슴깊이 심어주며

30년대의 피바다 수만리길을

피뿌리며 헤쳐나가던 꽃분이

타오르는 그의 불길을

가슴에 옮겨지피며 수경이는 말하였어라

-나는 통일만이 살길이라는

그 하나의 신념으로 싸우겠어요

순간 그의 발밑에서 움썹움썹

남북 삼천리 온 땅이 무대에 이어지고

관객들은 그우에서 맞이하였어라

30년대의 꽃분이와 나란히 선

통일의 길에 태어난 또 하나의 꽃분이를

마흔세번째 제자

리규춘

1

3월 20일경이면 따듯한 절기가 시작되는 첫 문 어귀이다. 겨우내 혹한속에 얼어들었던 나무들에도 불그레하게 물이 오르고 가지마다 파릇이 움이 튼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제모양 제식대로 활기를 띠는 삶과 활력의 계절이다. 이 계절에 일흔여덟번째 생일을 맞는 송민교수의 머리는 백설처럼 하얗다. 체소한 몸매, 세월의 흐름이 그대로 흔적을 남겨 헤일수 없이 많은 주름으로 덮여진 인자한 얼굴... 장미가 수북한 눈기슭에 미소가 봄물처럼 흐른다.

송민은 이날을 얼마나 즐겨 기다렸던가. 자기 생일이라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제자들의 날이라고 해야 더욱 옳았다. 연구차로 먼 북방에 가있거나 외국에 장기출장을 떠난 제자들도 이날만은 시간을 내어 거의 년례행사처럼 스승을 찾아 모여들곤했다. 송민은 쏘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앉아 방금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있었다.

송민이 마지막 강의를 끝내고 자기방에 들어섰을 때 어느새 와서 기다리고있던 제자들이 와르르 쓸어들며 송민의 생일을 축하해주었다. 손에 손마다 꽃다발과 기념품들이 들려있다. 송민은 그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향기로운 꽃다발속에 묻혀버렸다.

서로 내여미는 꽃다발, 정다운 얼굴들... 송민은 어느 꽃을 먼저 받아야 할지 난감했다. 80고령을 바라보는 교수지만 이날만은 만시름을 놓고 그대로 어린애의 마음이 되어 마냥 즐겁기만 하다. 송민은 꽃다발을 받아 책상위에 놓고 자리를 잡는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여겨 살폈다. 누구라없이 처음은 흥안으로 교수의 곁을 떠났지만 찾아오는 제자들을 보면 각이했다. 머리에 흰서리가 앉은 70고령의 로학자가 있는가 하면 50대의 박사도, 40대의 현숙한 녀교수도 있다. 더우기 권위있는 학자교수들의 위엄있는 그 권좌에 나란히 자리를 함께 한것이 못내 송구스러운듯 조심스럽게 앉아있는 20대의 젊은 제자들은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마지막 한사람까지 훑어보고난 송민의 얼굴에는 옅은 그늘이 어렸다.

제일 먼저 교수의 방문을 두드리곤하던 채진성원사가 오늘은 보이지 않는다.

(채진성원사에게 무슨 일이 생긴게 아닐가. 그렇다면 기별이라도 했음직한데 왜 이때껏 감감 무소

식인가.)

송민은 불피코 그럴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거라고 자신을 위안하려 애썼으나 서운해지는 마음은 어쩔수 없었다. 사람들이 나이들면 하찮은 일에도 노여움을 사고 마음을 쓴다더니 송민은 자기에게도 레외되는 일이 아니라는 허구픈 생각까지 든다. 제자들이 모두 돌아간 다음에도 송민은 끝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쏘파에 몸을 묻고 제생각에 잠겨있었던것이다. 송민은 얼굴에 시계를 내려다보고 놀랐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나?》

퇴근시간이 켜 지났던것이다.

송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뒤에 있는 옷걸이로 다가가 주섬주섬 코트를 걸치고 가방을 챙겨들었다. 스적스적 문가로 다가서는데 갑자기 출입문을 두드리는 손기척소리가 났다. 송민은 흠칫 놀라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동안을 두었다가 손기척소리는 재차 다정히 누구를 부르듯 조심조심 들려왔다.

(헛참, 저렇게 조용한 소리에 놀라다니.)

송민은 허구픈 웃음에 이어 들어오라고 대답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회색코트에 머리가 은빛으로 빛나는 갱년한 사나이가 들어섰다. 그는 중절모를 벗고 교수앞에 깊숙이 머숙여 인사했다.

송민은 흘러내린 안경을 바로 잡고 잠시 중절모를 여겨봤다.

《아니, 이게 누군가 영, 채진성원사...》

송민은 가방을 그자리에 떨구듯이 놓고 두손을 앞으로 내밀고 허우적거렸다.

《선생님-》

송민은 두팔을 벌리고 다가오는 원사의 어깨를 그러안았다.

원사의 등을 어루만지는 송민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아직 단겨지지 않은 출입문으로 물려드는 시원한 바람에 원사의 은빛머리가 가볍게 날렸다.

진성원사는 송민이 키워낸 첫번째 제자였지만 이제는 함께 머리가 희어져서 누가 제자고 누가 스승인지 도저히 분간키 어렵다.

《선생님, 오늘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원사는 죄송한듯 어깨를 낮추었다.

《원, 별말을 다. 자, 어서...》

송민은 창가의 쏘파를 가리켰다. 그들은 쏘파에 가지런히 앉았다.

《선생님, 오늘 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강성시에 있는 영인화학공장 기사장이 제출한 연구논문 개요를 놓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외로 문제는 심중하게 번져져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슨 논문인데 그렇게까지...》

송민은 책상위에 있는 담배함에서 담배한대를 골라들며 의아하게 물었다.

《〈X-25-합성섬유〉입니다.》

《뭐라구?!》

송민은 담배불을 붙이려다 말고 진성의 얼굴에 시선을 준채 그 자리에 굳어졌다. 바르르 떠는 손에서 타들던 성냥가치의 불길은 손끝에 닿자 흠칫하며 정신이 들었다.

《〈X-25-합성섬유〉라니 그럼...》

진성은 스승의 놀라는 얼굴에 그 어떤 간절한 기대감이 어리는것을 측은히 바라보았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송민은 자신이 그 기대를 부정하듯 절레절레 머리를 저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은 절망과 후회의 빛이 어려 컴컴해보였다.

《X-25-합성섬유》는 이미 오래전에 교수에게서 떠나간 그의 마흔세번째 제자 서림수가 연구하던 과제였다. 그런데 그 제자는 지금 송민의 곁에 없다. 지금쯤 구라파의 어느 번잡한 도시에서 맥고모를 쓰고 긴 단장을 끌며 어느 공원기슭을 거닐고 있을지도 모른다. 끌며 어느 공원기슭을 거닐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송민은 어느때건 제자가 자기에게 찾아오리라 믿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은 송민의 간절한 기대를 너무도 가슴 아프게 짓밟아버렸다. 20대 홍안의 얼굴로 그의 곁을 떠나간 제자가 이제는 머리에 흰서리가 내렸을것이다.

송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창가에 다소곳이 하얀 꽃잎을 드리우고선 문주화를 펼리는 손으로 어루만졌다.

《서림수가 씨를 심고간것인데 해마다 꽃은 변함없이 피는구만.》

《선생님, 스승을 배반한 그런 인간을 영원히 잊어주시시오. 우리는 지금도 과학자의 량심과 사제의 도리마저 저버린 그런 인간을 증옅합니다.》

《아닐세. 그는 어느때건 나의 제자로 남아있을걸세. 나의 량심속에 지워지지 않네.》

송민은 흘러간 머나먼 그 세월에도 추억의 배를 거슬러올리듯 먼 하늘가를 바라보았다.

2

또 한기 졸업생들을 내보내는 대학은 흥성거렸다. 한껏 록음이 짙은 대학교정의 청청한 나무숲에서는 피플새들이 청아한 노래를 뽑아내고있었다.

졸업식에 참가했던 송민은 흥겨워진 마음으로 2호교사의 높은 창가에 서서 구수하게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정다운 대학교정을 부감했다. 마치 창공 높이 떠오른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듯이 눈아래로 펼쳐진 하얀 포도우로는 산뜻한 교복차림의 졸업생들이 물밀듯이 흘러갔다. 그런가 하면 본교사로 올라가는 돌계단우에서도 명량한 녀졸업생들의 청로운 웃음소리가 맑은 공기를 뒤흔들었다.

송민은 조용히 머리를 끄덕이며 얼굴에 흐뭇미소를 짓는다.

교정을 나서 한껏 나래를 편 저 푸른 청춘들이 이제 조국의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과학의 역센 기둥으로 조국을 참되게 받들어갈것이 아닌가.

송민의 가슴속에는 교육자된 남다른 긍지가 그들먹이 차올랐다.

《선생님.》

송민은 등뒤에서 울리는 조용한 목소리에 얼굴을 돌렸다. 흰칠한 키에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청년이 어쭙은듯 앞에 두손을 맞잡고 서있었다. 엷은 도수의 하얀 안경밑에는 예지로운 눈빛이 은은히 빛났다.

《아, 림수학생, 기다렸소. 어서 내방으로 가지요.》

송민은 림수를 데리고 청사의 남향에 자리잡은 자기방으로 갔다...

창문결 안락의자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하고 앉은 림수는 몸돌바를 몰라하듯 손을 만지작거렸다.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원에 입학한 서림수는 화학계의 권위있는 박사이며 교수인 송민선생이 자기의 지도교원으로 선택된것이 무한히 기뻐다. 동급생들도 림수가 부러워 죽을지경이었다.

《그래 어떤 분야를 연구해볼 생각이요?》

송민은 림수의 곁에 다가앉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외람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X-25-합성섬유〉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전 그것을 필생의 과제로 설정하겠습니다.》

《〈X-25-합성섬유〉를...》

송민의 얼굴은 심중해졌다. 교수는 지그시 눈을 감고 손끝으로 책상을 다독이였다. 조용히 흐르는 침묵은 림수의 가슴을 옥죄었다. 이도 나지 않은게 콩팥먹으려 한다고 욕이나 하지 않을가.

사실 《X-25-합성섬유》는 과학계에 관록을 가진 학자들도 손대기 저어하는 연구과제였다.

교수는 틀림없이 과제설정을 잘못했다고 추궁할것이다.

림수의 얼굴은 어느새 벌겋게 충혈되고 만지작거리던 손끝을 비틀어대기 시작했다.

천천히 눈을 뜬 송민은 처음보는 사람처럼 림수의 얼굴을 쳐다보며 좀 흥분된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동무는 무엇때문에 〈X-25-합성섬유〉를 연구째마로 잡았소? 그거야 동무도 아다싶이 보통 힘

든 연구과제가 아닌데...》

《저도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 수령님의 품속에서 배운 새 세대 과학잡니다.》

《그래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의 입은 문제를 푸시려고 며칠전에 함남도일대를 또다시 현지지도하셨습니다. 전 수령님께서 그토록 심려하시는 화학섬유문제를 풀고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 과학자인 우리가 맡아 수행해야 할 시대적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침착한 어조로 말끝을 맺는 림수의 얼굴은 더욱 근엄해진듯싶었다.

흥분한 교수는 제자의 손을 와락 움켜잡았다.

《훌륭하오. 우리 과학자들이 그런 충성심으로부터 출발한다면 〈X-25-합성섬유〉 연구는 문제되지 않을거요. 난 연구가 끝날 때까지 동무를 돕겠소.》

림수의 손을 움켜잡고 흔드는 송민의 목소리는 뜨거웠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림수의 눈굽도 후끈히 달아올랐다.

...한달후 스승과 제자는 동해안의 공업도시에 자리잡고있는 남평화학공장으로 내려왔다. 현실속에서 《X-25-합성섬유》 연구를 위한 기초를 튼튼히 닦기 위해서였다.

화학공장기술부는 교수와 연구생에게 공장의 유측 수삼나무 그늘속에 들어앉은 조용한 실험실을 제공해주었다. 송민은 강의가 없는 날이면 거의 남평에 내려와 림수곁에서 지냈다. 그동안 림수의 지식은 나날이 높아갔고 《X-25-합성섬유》 연구를 위한 확고한 기초가 마련되었다.

드디어 수억년동안 인류앞에 체모습을 드러내보이지 않은 《X-25-합성섬유》의 비밀요새로 육박해 들어갈 그 출전의 시각이 다가왔다.

박사원을 졸업한 서림수가 연구사의 자격을 가지고 《X-25-합성섬유》 연구를 위하여 남평화학공장으로 내려간것이였다.

그날은 바야흐로 겨울 추위가 닥쳐오기 시작한 11월의 어느날이였다.

3

신입생들과 연구생들의 강의때문에 1년나마 대학에서 자리를 뜰수 없었던 송민은 림수의 편지를 받고 마음이 썰렁해졌다. 림수는 《X-25-합성섬유》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이의를 표시해왔던것이다.

(림수는 무엇때문에 그런 소리를 했을까? 림수는 그 과제가 그토록 어렵다는것을 알고있지 않았는가. 《X-25-합성섬유》 연구를 놓고보면 과학자의 한생을 다 바쳐도 모자랄수도 있는 과제였다. 그러

면 부득이 선행과학자가 쌓아놓은 토대에 기초하여 다음세대 과학자가 이어받아 완성해야 한다. 그것을 림수가 모를리 없다. 그렇다면 과학앞에 반석같이 다진 그의 맹세는 허위였단말인가? 아니면 그 반석같은 마음의 틈새기로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단 말인가.)

송민은 도무지 안정되지 않는 마음을 건잡을수 없었다.

림수가 자기 연구에 대한 신심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X-25-합성섬유》는 시대뒤로 아득히 뒤걸음치게 되지 않는가.

송민은 그것을 생각만해도 가슴이 저렸다. 무서웠다.

그는 림수의 생활에서 나타난 심상찮은 굴곡이 자기 연구과제에 대한 신념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차라리 그 어떤 다른 리유에서 일어난 실책이기를 바랬다....

그해 가을 졸업생들의 실습지도를 끝마친 송민은 그길로 림수를 찾아 떠났다. 낮차에 내린 송민은 곧장 림수의 연구실로 향했다.

연구실은 텅 비어있었다. 어쭙은 손님처럼 실험실에 들어선 송민은 주위를 휘둘러보았다. 방금 실험하다가 자리를 떴는지 실험대우에 반응액이 담긴 시험관이 그대로 놓여있고 한옆에는 시편을 올려놓은 현미경이 놓여있었다. 송민은 주춤거리며 등받이가 없는 동그란 실험의자에 가앉았다. 별로 실험실안이 어수선했다. 옷단에 올려놓은 자주 쓰지 않는 시약병우에는 먼지가 뽕얇게 앉고 구석구석에는 깨어진 시험관과 플라스틱, 비커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송민의 얼굴에는 옅은 그늘이 비껴 지나갔다.

(림수가 혹시 연구사업에 불성실한게 아닌가? 대체 실험하다말고 어디에 갔을가?)

송민은 혹시 작업장에 나간것이 아닐가 하고 생각도 해보았으나 옷걸이에 그대로 걸려있는 새것그대로의 때묻지 않은 작업복과 작업모를 보고는 자기 생각을 부정해버렸다.

송민은 설렁해진 마음으로 구석구석의 오물들을 청소해내기 시작했다. 실험실안을 말끔히 가져내고 실험실주변에 한여름내것 묵여둔 잡풀들을 뽑아내고있는데 산뜻한 회색 양복에 제비꽃문양의 넥타이까지 드리운 서림수가 달려왔다.

《선생님, 언제 오셨습니까.》

림수의 얼굴에는 그리웠던 스승에 대한 정화가 함뿍이 피어올랐다.

《그건 제가 이번주에 시간을 내여 하자던건데...》

림수는 얼굴을 별정계 물들이며 송민의 손에서 호미를 빼앗아냈다.

《선생님, 어서 손을 씻고 숙소로 가십시오.》

림수는 호미를 들고 실험실로 뛰어들어가더니 소

독수 냄새가 풍기는 하얀 범랑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나왔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송민은 팔을 걷어올리며 일년새에 몰라보게 혈색이 좋아진 제자의 얼굴을 일별하며 조용히 물었다.

《그저 그렇게 지냈습니다. 실험두 하구, 과학협회두… 줌…》

림수는 별로 어색한 몸가짐으로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송민은 손을 씻으며 연송 머리를 끄덕이였다. 림수는 송민의 표정을 살피며 팔에 걸고있던 수건을 내밀어주었다.

《혼자서 고충이 컸을테지. 자주 내려온다는게 그만 못내려와 안됐네.》

송민은 수건에 젖은 손을 문지르며 자책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어서 숙소로 가서 피로를 푸셔야겠습니까.》

송민의 가방을 들고나온 림수가 재촉했다.

《여기가 좋구만. 시원한 저 나무그늘밑이…》

송민은 자귀나무밑에 놓여진 긴의자를 가리키며 제먼저 그곳으로 다가갔다. 송민은 림수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의자에 함께 앉았다. 왜그런지 마음이 불안스럽다.

《연구사업은 잘 진척되나?》

《그저 그렇습니다.》

림수는 맥빠진 소리로 중얼거리며 앞에 모두어진 손을 쥐어뜯고있었다.

(그러니 마음에 병이 든것이구나.)

송민이 제일로 두려워하던 그것이 초래된것이 틀림없었다.

《그렇다고 실험실을 마음대로 비워놓고 다니면 되나. 그리고 생활에서도 좀 성실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것 같구…》

송민은 끝없이 허전해지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다. 림수는 가슴이 뜨끔했다. 송민이 자기 행동을 그대로 지켜본것처럼 느껴졌다. 오늘도 실험도중에 무역부에 있는 어떤 동무와 만나기로 약속한것이 문득 생각키워 그길로 시내로 달려나갔다는 림수였다.

림수는 1년동안 《x-25-합성섬유》를 연구하는 과정에 과학탐구의 길이 평탄지 않음을 실지 뼈속으로 체험해보게 되었다. 게다가 《x-25-합성섬유》는 자기생전에 빛을 볼것 같지도 못했다. 성공하지 못한 과학자로 비난받기보다는 젊은 혈기가 스러지기전에 방향전환하는것도 현명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신념을 잃기 시작한 림수의 마음을 좀먹기 시작했다. 보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것은 번역물을 가지고 도움을 받으려고 림수를 찾아왔던 무역부지도원을 만난 다음부터였다. 무역부지도원을 통해 림수의 사람됨과 능숙한 외국어 소유를 알게 된 무역부과장이 림수에게 자기 부서에 와서 일해보고싶은 생각이 없는가고 정식 제

기해왔다. 림수는 처음 두려운 생각이 났으나 외국어실력도 높고 배운것도 많은데다가 어디간들 남이 하는것만큼이야 자기도 못하랴 하는 배짱이 들자 버쩍 그곳에 마음이 동해났다. 자기로서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군했으나 어디가던 자기 맡은 임무에 충실한 그것이 곧 애국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위안이 일단 풀리기 시작한 그의 마음을 부채질해주었다. 그렇듯 설동한 나날에 연구실의 실험관우에는 먼지가 앉고 연구실주변에는 풀이 돌아나기 시작했다. 림수는 송민이 자기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것만 같아 마음이 조여졌다. 그의 이마우에는 진땀이 빠직빠직 내뿜었다. 림수는 종시 바늘방석에 앉은것만 같았다. 말을 끊었던 송민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구, 공장에 나왔으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로동자, 기술자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착상도 무르익히고 연구과제를 추진시키는것이 옳지 않겠나. 로동계급의 혁명정신도 배우면서 말일세.》

림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송민이 없을때는 한해에 고작해서 두세번 현장에 나가볼가 말가한 림수였다.

길게 한숨을 내그으며 의자앞을 오가던 송민이가 걸음을 멈추고 안절부절 못하는 림수를 바라보았다.

《금년 연구지표들은 어떻게 됐나?》

송민은 림수가 선뜻 대답못하고 갑자르는것을 보기가 못적었던지 주머니에서 담배갑을 찾아 담배가치를 뽑아들었다. 림수는 얼른 물색고운 가스라이타를 꺼내 불을 켰다.

《하느라구…에는 써봤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래년에 다시…》

림수는 송민의 꾀꾀해지는 눈찌를 흘끔 쳐다보고는 수수범벅처럼 물든 목뒤통을 슬슬 긁었다.

송민의 입과 코구멍으로 비자루같은 연기가 내뿜겼다.

《지금 로동계급은 1년분 생산과제를 4.15까지 완수하고 인민경제계획과제분을 단 몇해동안에 해내겠다고 와악하는데 동무는 자기 과제를 다음해로 미루겠단말이지. 과학자의 량심이 그것을 허락하던가.》

송민은 높은 고개를 뚫아 령마루에 올라선 늙은이처럼 거칠게 숨을 내뿜었다.

《전 과학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그래서…》

송민의 성난듯한 눈이 수궁이 머리를 떨구고 앉아있는 림수를 쏘아보았다. 얇은 도수안경밑으로 축잡힌듯한 림수의 눈빛이 맥없이 번쩍었다.

그것을 보자 본격으로 격해졌던 송민의 가슴이 와그르르 무너지고 온몸의 맥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처럼 예지에 빛나던 눈이 저렇듯 축잡히다니.)

송민은 입학당시 중사의 노란 연장을 단 군복을 산뜻하게 차려입고 인물심사를 받으려고 자기 앞에 앉아있던 서림수를 상기했다. 그는 다른 제대군인과는 달리 얇은 도수의 안경을 끼고있었다. 수험생을 찬찬히 살펴보던 송민은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선친이 시력이 나빴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80이 되도록 안경을 끼지 않았습니다.》

중사는 씩씩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그런데 동무는 왜 시력이 나빠졌소?》

《전 중학교때부터 책을 읽었습니다. 군대가서도 근무시간외에는 모두 책을 읽는데 시간을 바쳤는데 그때부터 눈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는 조용히 머리를 끄덕이였다.

《어디를 지망했소?》

《화학학부입니다.》

《그럼 토스만의 〈화학의 근원〉을 읽었소?》

《읽었습니다. 그것은 필자의 그릇된 견해가 표현된 편협한 책입니다. 필자는 자기의 저서에서 화학의 힘으로 세상의 근원을 결정적으로 변경시킬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옆의 심사원들도 놀라온듯 수험생을 바라보았다. 입학후 학부의 총아로 뛰어나게 공부하는 그에게 송민은 남다른 열정을 쏟아부었다. 권위있는 교수의 지도밑에 그는 몰라보게 과학자의 풍모를 갖추어가기 시작했다. 더더구나 립수의 박사원기간은 교수의 높은 지식과 경험, 학구적 진지성까지도 그대로 넘겨받는 결실의 시기이기도 했다. 송민은 립수를 자기의 길을 이어줄 제2의 송민으로 관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과학탐구앞에서 흔들리는 제자를 보자 자기 생의 중심을 떠받들고있던 기둥이 일시에 빠져버린듯한 허전한 심정이였다.

(그처럼 높이 쌓아준 지식의 탑이 파연 허사란말인가. 과학의 신념이 투철하던 그가 무엇에 축잡혀 저리도 허둥거리는것일가.)

《선생님-》 스승의 기분을 느꼈는지 립수가 주저하듯 입을 열었다.

《전 한생을 두고 저를 키워주신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전 기어이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라 나의 의무요. 난 립수동무가 우리 당의 과학자로서 주체과학의 회원우에 당당한 자기 위치를 차지하기를 바랄뿐이요.》

립수는 조용히 한숨을 짓더니 황황히 눈길을 피했다.

4

그해 겨울은 여느때없이 추위가 더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정치공작대로 남진하는 인민군부대들과 함께 양양계선까지 나갔던 송민은 한도

시 돌과전투에서 몇군데의 부상을 입었는데 그 후파가 먼후날까지도 말뚝을 일으킬줄은 몰랐다. 남평에 갔다가 립수를 만나고 온 정신적타격과 계절의 혹독함때문인지 그때부터 상처자리가 도져나기 시작한것이 이제는 병원침대에 눕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송민은 병원침대우에서 다음해 봄을 맞았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그의 생각은 학생들이 기다리는 강의실과 남평화학공장의 서림수결에 가있군했다. 하루하루가 천년같이 지루했으나 엄격한 담당의사는 그를 병원올타리밖으로 나가는것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남평으로부터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남평화학공장 실험실에서 일하는 한 기사가 평양에 올라왔다가 립수가 다른 직종으로 조동되었다는 소식을 남기고 간것이였다.

송민은 도저히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때를 같이하여 병원에 면회는 안해가 자기의 조동을 알려온 립수의 편지를 가지고와서야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편지를 받은 송민은 며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란다에 나가 줄담배만 피워댔다. 나흘째 되던날 송민은 더 참지 못하고 담당의사에게 때를 쓰다싶이 하여 퇴원했다. 그는 그길로 립수가 새 일터로 정했다는 해안도시로 갔다. 그날 늦개비는 안개처럼 소리없이 흘날렸다. 아직은 철이른 때라 싸늘한 대기속에 일새들이 돋지 않은 나무줄기들은 축축히 젖어있었다. 올해에는 류별나게 때이른 봄비가 내린다.

비웃을 걸친 송민은 항구도시의 비릿한 해감내가 풍겨오는 해안가도로를 따라 한참 걸다가 사람들이 가르쳐준대로 정향나무로 둘러싸인 연분홍빛2층건물을 찾아갔다. 장식문양을 놓고 옷끝을 창끝처럼 뽀족하게 모를 낸 철울타리를 두른 건물은 아담하고 조용했다. 정문 양옆으로 아직 잎이 피지 않은 커다란 자귀나무 두그루가 서있고 그리 넓지 않은 마당에는 고급승용차 두대가 서있었다. 송민은 접수원에게 무역부 사지구청사인가를 확인하고 접수했다. 철쭉처럼 검은 머리를 어깨뒤로 드리운 녀인이 상냥하게 웃으며 건물 2층에 올라가면 과장을 만날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송민은 왜서인지 낯설은 이국땅에 발을 들여놓은듯 서먹서먹했다. 허나 온랭풍기가 온도를 맞춤하게 조절해놓은 과장의 방에서 송민을 맞아준 위풍있는 40대의 일군이 얼마나 친절하고 허물없이 대해주었던지 생생생생하던 마음이 좀 밝아지는듯했다...

《터놓고 말하지만 서림수동무만한 일군을 얻기란 쉽지 않지요. 처음해보는 일이지만 막히는게 없이 척척... 기특할 정도지요. 사람이 인품까지 겸비한데다가 외국어까지 막히지 않으니 정말이지 그런 일군을 키워주신 교수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의 혈색 좋은 얼굴은 만족하여 더욱 벌거우려 해졌다. 송민은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물기가 흐르는 창밖으로 흐릿한 바다를 내다보았다. 과장은 좋아하는 자기의 성원의 옛스승을 만난것이 그 리도 기쁘지 쉽없이 입을 열었다.

《그렇지 않아도 림수동무는 스승을 찾아가 뵈겠다고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외국에 나갈 일이 생겨서... 이제 3일후면 도착하게 되지요.》

《과장동무, 제가 림수동무를 만나보고 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동안 해안려관에서 묵겠습니다.》

《해안려관은 좀 복잡한데 제가 호텔을 알선했어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해안려관에 접수를 했는걸요.》

송민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과장에게 레를 표했다.

《우리는 한달후에 림수동무를 서구라파쪽에 무역거래로 상주시키려고 합니다. 아마 오래 걸릴것 같습니다. 가족도 데려가니까요. 림수동무는 이곳에 가셔도 자기임무를 훌륭히 수행할겁니다.》

과장은 계단을 따라 내려오며 잊었던듯 급히 말을 이었다.

송민은 전기에 감전된듯 흠칫 몸을 떨며 과장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침착한 자세로 계단을 내려섰다.

3일째 되는날 저녁에 서림수는 해안려관으로 스승을 찾아왔다. 송민은 제자의 너무도 달라진 모습에 아연해졌다. 길게 길러 넘긴 머리에 살색까지 해말썽해졌는데 눈에는 부엉이눈을 연상시키는 크고 값진 금테안경이 번쩍거렸다. 얼룩얼룩한 점무늬의 고급양복에 화려한 넥타이까지 드리운 그의 몸에서는 진한 프랑스 향수내가 코를 찔렀다. 림수는 밑에 바퀴가 달리고 허리를 넘을만치 큰 러행용 트렁크 두개를 들고있었다. 마주 달려나오는 스승을 본 림수는 그자리에 바위처럼 우뚝 굳어졌다가 허둥거리며 송민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림수-》

송민은 제자를 굳게 포옹했다. 학생때 소박하던 모습은 다 탈피해버리고 외국공의 사나이처럼 변했지만 제자를 보는 순간 불같이 일어났던 노여움은 어디로 다 사라지고 제자에 대한 사랑의 정화가 몽클 가슴을 덮었다.

《선생님께서 병환에 계신단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외국으로 떠나게 돼서...》

그리웠던 스승의 얼굴을 쳐다보는 림수의 안정밀에는 어느새 이슬이 척척이 고여올랐다.

《고맙네. 덕분에 이렇게 건강할세. 자, 어서 들어가자구.》

송민은 림수를 자기 방으로 안내했다. 송민이 안내한 쏘파에 몸을 묻은 림수는 몰라보게 축이간 스

승의 얼굴을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오래동안 헤어졌던 제자를 만난 기쁨으로 하여 흥그려워졌던 송민의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가 과학계를 떠나 다른 길에 들어선 제자라는 생각이 줄곧 송민의 결백한 마음을 아프게 자극했던것이다.

더이상 자리에 앉아있기가 괴로웠던지 쏘파에서 몸을 일으킨 송민은 무겁게 드리운 문보를 제끼고 창문을 열었다. 저녁 락조가 비낀 컴컴하고 습윤한 바다는 무거운 저기압에 짓눌려운듯 거칠고 숨가쁘게 출렁거리고있었다. 그것은 답답한 송민의 가슴마저 짓눌려버리는듯싶었다. 거칠게 숨을 토폴며 어두운 심연속으로 사라진 바다 한끝을 바라보던 송민이 갑자르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림수, 난 아직도 자네가 왜 그길로 갔는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네.》

림수는 스승의 목갈린 음성에 흠칫 몸을 떨며 당황해하는듯하더니 인차 자기의 평온한 상태로 돌아왔다. 아니 부러 침착한 태도를 보이려 한것같았다.

《선생님, 용서하십시오. 과학자가 자기 연구에서 성공못할바에야 차라리 일찌기 자기가 할수 있는 초소에 나가 조국을 위해 무엇인가 바치는것이 옳은 처사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쏘파의 팔걸이에 손을 올려놓은 림수는 약간 머리를 숙이고있었으나 그 태도는 침착하고 당당해 보였다.

송민은 가슴속이 에이는듯 저려들었다.

과학만을 지향했던 제자가 어찌면 저런 생각을 다 가지게 됐는가? 놀라왔다. 허전한 마음은 믿음의 기둥을 여지없이 허물어낸다. 답답한듯 길게 숨을 토폴은 송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난 그러라고 10년동안 동무에게 화학을 배워준게 아니요. 〈X-25-합성섬유〉는 동무의 한생에 끝을 보지 못할수도 있소. 그렇다고 과학자마다 그 분야를 비워놓으면 조국은 귀중한것을 잃게 될것이요. 비록 동무의 한생에 완성은 못한다 할지라도 동무가 땀으로 이룩한 그 높은 토대우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올라서게 될게구 종당에는 그렇게 〈X-25-합성섬유〉가 이 세상에 빛을 뿌릴게 아니요. 난 동무에게 과학자의 그 량심을 바랬댔소. 물론 무역사업도 중요하지. 그러나 그건 화학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능히 할수 있는 일이 아니겠소. 나라에서 귀중한 돈을 들여 하나하나 키운 화학자가 그래 무역분야에 좀 재간이 있다해서 장사하러 온데를 떠돌아다녀야 옳단말이요?》

송민은 격한듯 목소리가 떨렸다. 창밖을 내다보는 그의 눈에는 노여움이 번뜩였다. 림수는 스승의 그 눈길과 부딪칠가봐 저어하듯 몸을 웅크리고 앉아 머리를 푹 떨구었다. 화끈 단 철판우에 올라선듯 온몸으로 땀이 흘러내렸다.

《동무가 그 누구도 감히 택하지 못하던 〈X-25-

합성섬유》연구과제를 서슴없이 택했을 때 나의 가슴은 우리 시대의 새 과학자를 발견한 공지로 가슴 벅찼겠소. 나의 지나온 생도 운택한듯 느껴졌겠소. 나의 삶이 즐겁고 환희로웠단말이요.》

송민은 창가에서 맥없이 눈길을 떼고 축 처진 어깨로 쏘파앞을 거닐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생은 왜 그리 쓸쓸하고 허전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소. 난 깨끗한 탐구자의 열정과 신념으로 우리 과학의 한 분야를 참되게 받들어줄 줄 알았던 림수동무가 나의 마지막 제자로 남으리라고는 생각 못했겠소.》

송민은 몸을 더 지탱하고있을 힘이 없었던지 천천히 쏘파에 주저앉았다.

림수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스승앞으로 다가가 머리를 숙였다.

《선생님, 난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학의 신념이 약한 인간은 높은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서도 우리 과학을 떠받들지 못한다는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 선생님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저를 인간이라고 찾아주신 선생님께 뭐라고...》

림수는 목이 갈려 더 말끝을 잇지 못했다.

송민은 지그시 눈을 감은채 깊은 한숨을 내뿜었다. 울분갈기도 하고 슬픔갈기도 한 야릇한 감정이 가슴을 휘저어놓았다.

《그래 언제 떠나겠소? 내 파장동무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겠소.》

송민은 지그시 눈을 감은채 중얼거리듯 물었다.

《늦어도 래번주에는... 떠나야 합니다. 선생님을 두고가는 제자의 마음이...》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은 감사하오. 아무튼 맡겨진 일을 잘해주길 바라오.》

송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겨들었다. 기차를 타려고 역전으로 나가려는 모양이다.

림수는 당황한듯 서두르며 들고온 트렁크를 송민이 앞으로 가져왔다.

《선생님, 우리를 키워주신 선생님을 위해 뭘 준비했는데 너무 약소해와서...》

림수는 트렁크를 원탁우와 쏘파우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다.

《이건 최근에 나온 최신형 고급립체록음기입니다. 아마 연구사업을 하시다가 머리심을 하실 때 동무가 패주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구한겁니다. 그리고 이건 전자설비가 갖추어진 소형 온랭풍기고... 이 트렁크엔 선생님의 옷가지와 병치료에 쓰실 약품들이 들어있습니다.》

림수가 각가지 약병들과 압풀, 번쩍거리는 상표들로 장식된 약품들이 들어있는 트렁크를 열자 향긋하면서도 알싸한 약냄새가 코를 찔렀다.

송민은 어쭙어하면서도 자기 만족에 차서 빙긋이 웃는 림수의 얼굴을 한참동안 쳐다보았다.

《그래 이젠 동무를 배워준 나의 수고에 대한 대

가겠소. 아니 말하자면 진한 인사차림일테지...》

송민은 기둥뿌리가 뽑혀진듯 허전해진 마음으로 허구프게 웃었다.

《선생님, 우리때문에 작히나 속을 태우시고 애쓰셨습니까. 약소하지만 우리 성의로 아시고 요긴하게 써주시면 더 바랄것이 없겠습니다.》

송민의 얼굴에서 서서히 웃음이 사라져버렸다.

《난 동무들에게 오직 과학으로 조국을 성실히 떠받들어주길 바랬겠소. 그것만이 나에게 줄수 있는 동무들의 대가요. 림수동무, 부디 건강하여 일잘하시오.》

송민은 나직한 목소리로 말끝을 맺었다.

《아니, 선생님...》

림수는 당황하여 열려진 트렁크와 송민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허둥거렸다.

송민은 간편한 손가방을 들고려관을 나섰다.

황황히 역전까지 따라나온 림수가 서둘러 차표를 떼고 송민의 자리를 잡아주었다. 기관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서리맞은 호박같은 어깨를 떨구고 차창밖에 서있던 서림수가 얼굴을 들었다. 순간 송민은 림수의 절망에 찬 눈빛속에서 무엇인가 역센빛이 번쩍 광채를 뿌리는것을 감촉했다. 코허리가 시큰하며 눈뿌리가 아찔해졌다. 영원히 헤어지는것 같은 제자와의 작별의 아픔이 가슴을 꽉 지지눌렀다. 송민은 열려진 창문으로 상반신을 내밀고 손을 뻗었으나 스러지는 저녁노을속에 그 모양으로 굳어진듯 서있는 제자의 모습이 끝내 저만치 사람들의 뒤로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러갔었다.

송민은 서글픈 생각으로 창가에서 눈을 땀다.

《진성, 난 그래도 림수가 나에게 꼭 돌아올줄알았네. 언젠가는 꼭. 〈X-25-합성섬유〉를 다시연구하리라고 믿었지. 그런데 〈X-25-합성섬유〉는 다른 사람이 연구했구만. 어떤 기사인지 보고싶네.》

《선생님, 과학위원회에서는 선생님께 영인화학공장 기사장의 논문을 내려가보고 그 실효성을 판정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거 잘 됐네. 내 내려가보지.》

송민은 진정 흥분과 기쁨을 금치 못해했다.

5

강성시에서 서쪽으로 마치 시가지를 보위하고있는듯이 휘우듬히 뻗어간 무암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영인화학공장 기사장은 30대의 아련한 녀인이었다. 서글서글한 검은 눈에 늘 부드러운 웃음을 담고있는 기사장은 송민을 해빛이 잘 드는 실험실로 안내했다. 송민은 빠진것없이 그존하게 꾸려진 실험실설비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4급 기업소의 작은 실험실에 이렇게 완숙된 실험설비들을 갖추어놓기까지의 이곳 기술일꾼들의 남다른 노력이 었

보였다. 송민은 놀라운 눈길로 실험설비들과 너기사의 숨씨인듯 박속같이 알뜰히 꾸려진 실험실안을 두리두리 살펴다가 창가에 놓여진 실험의 자에 다가앉았다.

《선생님, 변변치 못한 논문인데... 욕 많이 해주십시오.》

너기사는 수줍음을 타는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고 송민이앞에 머뭇머뭇 자기 논문을 내놓았다. 1,000매 남짓해보이는 두툼한 원고지를 받아든 송민은 그것이 무슨 커다란 보물이기라도 한듯이 귀중히 어루 쓸어보았다.

그때부터 너기사의 논문에 흥취된 송민은 실험실 창가에 거미한 땀겨미가 찾아들 때야 비로소 논문에서 눈길을 뗀다. 흥분과 찬란, 기쁨과 놀라움으로 하여 송민의 가슴은 조용히 오르내렸다.

송민의 앞에는 방금 일터에서 돌아온듯 작업복처럼 그대로의 너기사가 시험관앞에 앉은 학생처럼 머리를 숙이고 앉아있었다.

《기사장동무, 이렇게 훌륭한 원고를 읽게 해주어서 정말 고맙소.》

송민은 원고의 마지막장을 덮고 흥분을 누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얼굴을 든 너기사는 교수의 그 말이 취소되기라도 할듯 겁먹은 눈길로 송민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훌륭합니다. 조국은 또하나의 주체성유를 가지게 됩니다. 성공을 축하합니다.》

송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너기사의 손을 굳게 잡았다. 너기사는 송민의 손을 잡은채 얼굴을 돌렸다. 송민은 너기사의 어깨가 조용히 떠는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흐느끼고있었던것이다. 성공의 기쁨에서 오는 흐느낌만이 아니라는것을 느낀 송민은 너기사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기사장동무, 무슨 일이요?》

송민은 너기사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히 물었다.

《교수선생님, 이 논문은 제가... 연구한것이 아닙니다.》

너기사는 조용히 흥분을 억제하며 손수건으로 눈굽을 닦았다.

《무슨 일인지 어서 이야기하오.》

어딘가 심상찮은 일을 느낀 송민은 너기사를 의자에 앉혔다. 너기사는 이윽히 마음을 가다듬더니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 공장이 갓 세워졌을 때 젊은 기사장이 부임돼왔습니다. 무역부에서 일하던 그 젊은 기사는 바퀴가 달린 큰 트렁크 두개와 지합 여덟개를 수화물편으로 가지고 왔더군요. 그때 화학전문학교를 갓 졸업하고 이 공장에 배치된 저는 실험실조수로 그의 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서로 과학자로서 마음이 통하여 인차 친해졌습니다. 기사와 조수의 사이라기보다 다정한 오누이같은 각별한 관계였지요.》

너기사는 회한했던 그 시절을 회고하듯 해사한

얼굴에 밝은 미소를 지었다....

영인화학공장 기사장은 부임하자바람에 변변히 꾸리지 못했던 공장실험실을 번듯하게 꾸려놓았다. 실험실이 완전히 꾸려진날 기사장은 반응직장 귀금속창고속에 귀중히 보관했던 8개의 지합과 두개의 바퀴달린 트렁크를 실험실로 날라왔다. 그때 너기사는 자기 오빠같은 기사장의 트렁크를 넘보았다. 그속에는 틀림없이 값비싼 귀중품들이 가득히 들었을것만은 틀림없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지합과 트렁크를 헤쳤을 때 너기사는 아연해지고말았다. 아연해졌다기보다 실망에 가까운 섭섭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속에는 여러가지 값비싼 실험기구들만 들어있었기때문이었다....

너기사는 열적은듯 빙긋이 웃고는 말을 이어갔다.

《기사장은 허전해하는 나의 마음을 느꼈던지 빙긋이 웃으며 나의 어깨를 쓸어주더군요. <인숙아, 나를 원망하겠구나. 그러나 너두 이제 더 나이가 들면 모든것을 알게 될게다. 무엇보다 과학자의 량심이 제일 중요한게다. 과학자는 과학외에 그 무엇에도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과학자로서의 끝장을 의미하는것이니까. 인숙아. 우리 실험실을 잘 운영하자. 우리 후세들도 이 실험실에서 마음껏 실험도 하고 과학도 연구할수 있게 말이다.> 이러더군요. 기사장의 마음을 알게 된 저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단에는 과학자가 되겠다고 화학전문도 나오고 실험실에도 배치받았으니 더욱 그랬지요.》

너기사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하여 피아노의 가벼운 선율처럼 떨렸다. 그때부터 너기사는 《X-25-합성섬유》연구에 전심하는 기사장을 힘껏 도와주면서 그가 연구하는 새 섬유를 습득하기 시작했다. 기사장은 연구기간은 물론 기타 여유시간까지도 그당시 조수였던 너기사의 실력을 높여주는데 힘을 아끼지 않았다. 기사장은 너기사의 진정한 스승이며 참된 동지였다....

《〈X-25-합성섬유〉가 퍼그나 진척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잠시 말을 끊은 너기사의 얼굴은 갑자기 검은 구름이 밀려든 하늘처럼 흐려졌다.

고충을 묵새기듯 머리를 떨구고있던 너기사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그때 반응직장을 새로 꾸리느라고 건물을 짓고있었습니다. 벽체를 쌓고 트라스를 올리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갓 퇴근했을 때 태풍이 온다는 비상통보가 전해졌습니다. 나는 정신없이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벌려놓은 건설장이 근심되더군요. 건설장에는 벌써 사람들이 한벌 덮여있었습니다. 세멘트를 치우고 위험개소를 퇴치하고... 모두들 바빠 서둘더군요. 이미 터지기 시작한 태풍속에서 기사장이 사람들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려놓은 트라스하나가 기울어지면서 그밑에서 일하던 수십명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번개

처럼 벽체의 흠을 타고 트라스있는데까지 올라간 기사장이 넘어지는 트라스에 몸을 내대고 빨리 피하라고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무사히 피했으나 기사장은 끝내 중상을 당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기사장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나를 찾았습니다. 내가 달려갔을 때 기사장은 간절한 눈길로 나를 오래도록 쳐다보더니 〈x-25-합성섬유〉 연구를 기어이 끝내달라고 부탁하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나의 곁에 살아있는것만 같습니다. 정말 기사장은 우리 공장의 자랑이었습니다. 낡은 기대들을 더 개조하여 매해 생산계획을 완수하는것은 물론 27종의 새 제품들을 개발했지요. 참사람중에 참사람이었어요.》

한손으로 이마를 짚고 고통을 이겨가던 송민이 놀라운듯 머리를 들었다가 절망에 잠겨 천천히 얼굴을 떨구었다.

《선생님, 서림수동지를 아십니까?!》

너기사는 놀라운듯 휘둥그렇게 눈을 뜨고 물었다. 송민은 금시 숨이 넘어갈듯 온몸의 활동이 일시에 멎어버리는것만 같았다.

《서림수는 나의 마흔세번째 제자요.》

송민은 두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놀라움에 찼던 너기사의 눈에 환희와 동경의 빛이 번쩍 빛을 뿌렸다. 그 눈은 점점 빛을 잃더니 어스레 맑은 이슬이 척척이 고여올랐다.

《전 교수선생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어느때건 만날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지요.》

너기사는 손수건으로 눈기슭을 조용히 닦아냈다.

《서림수동지는 늘 자기 스승에 대하여 외우곤했습니다. 스승이 아니었다라면 자기는 다른 길로 가버렸을거라면서 자기를 배워주고 이끌어준 스승의 의리를 저버린 인간은 조국을 위해 참되게 복무할수 없다고 늘 나를 가르쳤어요.》

송민은 감동에 젖어 머리를 끄덕이였다.

《기사장동무가 그 논문을 마저 완성하느라고 오랜 세월 고생인들 얼마다 많았겠소.》

송민은 경건한 마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교수선생님. 〈x-25-합성섬유〉는 전적으로 서림수동지의 한생이 그대로 비껴진 그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너기사는 당황한듯 교수의 말을 밀막았다.

《훌륭하오, 기사장동무. 동무들과 같은 과학자들이 있기에 조국은 더욱 아름답고 위력한것입니다.》

송민은 너기사의 손을 정중히 잡았다.

《선생님, 그것은 결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만사람의 눈에 아름답게 비친 한송이 꽃도 그밀에 보이지 않는 훌륭한 뿌리가 있어 피어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송민은 조용히 머리를 끄덕이며 너기사의 말을 음미해보았다. 서림수와 지낸 많지 않은 나날들이 화면처럼 눈앞을 스친다. 학생시절과 박사원기간 그리고 길지 않은 현장에서의 연구생활의 나날들...

이제는 서림수와와 생활이 영원히 끝났단말인가.

일순간 쓸쓸하고 서글픈 생각이 가슴을 찢는다. 아니, 그의 생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과학의 상상봉에 높이 서있다. 그는 인류력사와 함께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다.

송민은 터질듯 가슴이 뻘뻘해움을 느꼈다.

뿌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청청한 잎새와 만발하게 피어나 꽃을 위해 더 깊이 내려지는것이 아닌가.

열려진 창문으로 향긋한 장미꽃향기를 실고 바람이 조심조심 새어들었다. 백설처럼 깨끗하고 하얀 교수의 머리칼이 부드럽게 날렸다.

제자와 후대를 위해 그 한오리 한오리가 것처럼 승업하고 아름답게 희어진것이 아닌가.

너기사에게는 그 모습이 끝없이 승업해보였다.

(창립 45돐을 맞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내가 사랑하는 노래

오순옥

교정길 어디서나 즐겨부르는
나에겐 룡남산의 노래가 있네
부르면 그이 영상 눈앞에 어리고
부르면 그이 음성 정답게 들리네

세상엔 노래가 많고많아도
룡남산의 노래가 나는야 좋아
부르면 이 가슴엔 열정이 샘솟고

부르면 이 가슴엔 기쁨이 넘치네

해쉴는 룡남산 마루에 서서
우리의 지도자 부르신 노래
해와 별 빛나는 조선을 받들어
내 한생 영원히 부르며 살리라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창작과 학생)

눈내리는 창가에서

리명월

눈내리는 대학촌의 밤
그 어느 호실에선가 울리는
정다운 손풍금소리에 실려
송이송이 눈송이도
못잊을 사연을 싣고오는가

불밝은 기숙사창턱에
조용히 내리고 쌓이어
잠 못드는 이 마음 이끌어가는
눈송이 함박눈송이...

그날도 눈내리는 저녁이었지
찬눈을 맞으시며 소문도 없이
룡남산 기슭 너대학생기숙사에 찾아오신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

친팔을 찾아오신듯
스스럼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실제
그이의 젖은 옷자락에 얼굴 묻고
어깨를 들먹이던 그날의 감격을
눈송이야, 오늘도 못잊어
속삭이며 끝없이 내리느냐

아 잊을수 없는 그밤
키낮은 책상앞에 오래도록 마주앉으시여
나이며 고향이며 물어도 보시고
춤지는 않은가고
벽에 걸린 온도계 눈금도 가늠해주실 때
고향의 어머니품에 안긴듯
목메여 눈물짓던 그밤이여

세월은 멀리 흘러갔어도

찬눈을 맞으시며 오시여 주신 그 사랑
공부를 잘하라고
찬바람을 맞으시며 가시며 주신 그 믿음
눈오는 이런 밤이면
더더구나 눈물에 젖는 이 마음

창가엔 소리없이
맑은 눈이슬이 구슬져 흐르고
불밝은 호실엔
그날에 남겨주신 뜨거운 그 은정이
포근한 온기로 언제나 넘쳐나
한생 식지 않을 충성의 더운 피로
이 가슴에 탐구의 열정 높뛰게 하거니

아, 그날의 그 사랑 못잊어
잠 못드는 이 마음
글이면 다 적을가
노래면 다 담을가

말해다오 눈송이야
대학촌에 새겨가신 사랑의 그 자욱
그 자욱 더듬으며
하늘에서 이 땅을 찾아내리는
눈송이야, 네가 다 이야기해다오

수령님 다녀가신
축복받은 그 저녁을
행복의 천만날로 속삭이며
세월을 이어 끝없이 내리여다오
따사로운 이 창가에
충성에 불타오를 이 마음속에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창작과 학생)

부 리

-장산혁명사적지에서-

박시호

흰포도송이마냥
아카시아꽃 만발한 장산에
류달리 푸르른 소나무 한그루
서른해전의 추억을 불러내누나

포화에 불탄 산등성이에 올라
아카시아나무모를 심던 그날
줄을 맞추려는 그 한생각에
내 무심히 애솔고기 뽑으려 했을 때

조용히 결으로 다가오신 김정일동지
허리굽혀 애솔의 푸른 잎새 쓰다듬으시며

아 뜨겁게 울리신 뜻깊은 그 말씀

-이 애솔은 분명
전쟁의 불길속에서 뿌리내린것이요!

하시며 손수 북을 돌구시던 그이
이 땅의 불굴의 기상을 보시는듯
전승의 하늘아래 새 살림 펼치는
조국의 모습 갈다시며 기뻐하셨어라

아, 못잊을 그날부터
그이의 사랑을 년륜으로 감으며

장산의 애슬은 하늘높이 자라나
또 하나 위인의 전설 속삭여주나니

한그루 소나무와 함께

그이의 애국의 뜻이 깊이 뿌리내린곳
유서깊은 장산에 오르니
오늘도 그 뿌리 마음속에 내리어라!

(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창작과 학생)

나는 어머니의 자옥을 찾습니다

송정우

한결음 또 한결음
생각에 잠겨
나는 어머니의 자옥을 찾습니다
력사의 그날 룡남산 언덕에 찍으셨던
어머니의 자옥을 찾습니다

어디쯤입니까
수령님 모시고 준공식에 나오셨던 그날
너무도 기쁘시여
어머님 떠날줄 모르시던
그 뜻깊은 자리는

술포기우에 휘날어진 나리꽃
저기는 아닙니까
바람에 설레이는 푸르른 소나무
어서 오라 반겨주는
혹, 저기는 아닙니까

다가서면
있을듯싶습니다
아니, 꼭
어머님 그날처럼 환히 웃으시며
창립절 맞는 대학생 우리 모습 보시는듯싶습니다
뜨겁게 말씀하시는듯싶습니다

준공식 하던 날이
옛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흔다섯해가 흘렀다고
감회가 깊으시여
아, 어머님 말씀하시는듯싶습니다

어디쯤입니까
찾고만
찾고만싶습니다

어디선가 어머님
꼭 그렇게 서계실것 같습니다
향도의 자옥이 어려있는
웅장한 대학을 한품에 안으시며
그날처럼 웃음짓고 서계실것 같습니다

장군님의 전사로
백두의 산야를 주름잡아 달리시던 그 자옥
건국의 초행길 남먼저 헤치시며
장군님 받들어 섬모르시던 어머니의 그 자옥
그대로 수놓아진
룡남산언덕, 여기가 아닙니까

비오는 날이나
눈오는 날이나
늘 이 언덕을 지나는 순간이면
어디선가 어머님 우릴 반겨 손저어
부르실것같습니다
그러면 달려가
어머님앞에 머리숙여
그날에 못드린 우리 인사 드리고싶은 마음입니다

인제는 자라나는 후대들도
우리의 대학에서 마음껏 공부하게 되었다고
감격에 겨우시여 하시던 말씀
아, 그 말씀은
대학의 미래를 내다보시던
어머니의 숭고한 념원이 아니었습니까

어머님 바라시던 그 념원의 자옥에 떠받들려
하늘가에 솟은 대학 번영하는 이 대학이
향도의 별로 빛나는
친애하는 그이를 모셨던 영광의 대학이라고

여기서 대를 이어 배워간다고
어머님의 두손 잡고서
기쁨에 목매여 아뢰고싶은 우리 마음입니다

아, 못잊어
늘 불러보는 어머님
10월 1일 뜻깊은 이날 되니 더욱 그리워
나는 어머님의 자옥을 찾습니다
세월은 흘러 강산은 변했어도

거룩하신 그 자옥이야
천만년 이끼로도 감출수 있겠습니까

한결음 또 한결음
뜨거운 생각에 젖어
나는 어머님의 자옥을 찾습니다
어머님을 다시 모시고픈 간절한 심정
그 자옥과 속삭이고 싶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창작과 학생)

선뜻 문을 열수 없음은

황용남

즐거운 방학차로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으니
열고 들어서면 금시라도
어머님과 동생들이 달려나오겠지만
사립문이며, 왜서인지 선뜻
너를 열지 못하겠구나

추억을 일으키는 고향집 사립문이며
누구나의 어린 시절이 그렇게 흘렀듯이
나의 어린 시절도 그렇게 흘렀노라
고향집 키낮은
사립문 열고 닫으며

아담한 문화주택
울안에 두그루 앵두나무 서있는 나의 집
해빛 반짝이는 창문을 바라보며
어릴적 사립문을 열고 들어설 때는
얼마나 즐거웠던가

고추잠자리를 쫓아 달리던 가을날
길가에 홀린 벼이삭 안고 들어섰을 때
바로 여기서 아버지는
넙름-머리우로 나를 들어주었더라
새옷에 흠칠한 장난도 탓하지 않으시고...

5점맞은 학습장 가방에도 넣지 않고
손에 쥐고 한달음에 달려와
너를 열어젖힐적
부엌문이 열리며 달려나온 어머니
나의 두볼을 감싸주는 그 손길은
얼마나 그 얼마나 파스했던가

함박눈 프락에 쌓이던 어느 겨울날엔

자전거의 방울소리와 함께
나의 애어린 목소리 시줄에 담겨
한장 신문이 사립문을 넘어섰고
담장넘어 키높이 강냉이가 이삭패던 그날엔
한장의 입학통지서가 프락에 들어섰거니

룡남산 배움의 높은 창가로 이 몸을 불러준
그 사랑에 이끌려 내 떠날 때
나는 사립문넘어 고향집프락을 나선것이던가
나는 그때
조국이라는 커다란 프락에 들어선것이여라

사립문이며 사립문이며
너는 나에게
조국이 시작되는 첫 출발점이였고
고향집 프락에서 움틔운
조국애의 어린 씨앗이
드넓은 대지로 떠나간곳이었거니

푸른 교복을 입고 다시 찾은 오늘엔
어릴적 그날처럼
한 부모의 믿음만이 아닌
고향과 조국의 믿음이 실려있어
나에겐 네가 이리 무거운것인가

고향집 사립문이며
네앞에서 다시 한번 다시노라
별로 달려가고 별에서 돌아오는 나의 부모님들
때이른 새벽에 너를 열지 않도록
깊은 한밤중에 너를 열지 않도록
과학의 성문을 그들앞에 열어야 할
대학생의 맹세를!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창작과 학생)

단편소설창작에서 특색있는 인간관계의 설정과 세부형상

박성전

오늘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우리 문단에는 당사사업의 요구에 맞게 새롭고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는 단편소설들이 많이 등장하고있다. 이런 단편소설들에서는 시대에 대한 작가의 열정이 뜨겁게 안겨오고 꾸준하고 인내력있는 탐구적노력과 련마된 창작적기교가 느껴진다.

단편소설 《박동》(박태수, 《조선문학》 1991. 2호)과 《로반에서 만난 녀선생》(김창옥, 《문학신문》 1991. 5. 10일부)이 그런 작품에 속한다. 이 소설들은 인간문제가 새롭고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가치있는 해답을 준 작품들이다. 이 소설들의 주인공들인 은야란광초급당비서 윤영준과 녀선생인 영란의 성격들은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있으며 독자들에게 생활의 참된 진리를 인상깊게 깨우쳐주고있다.

이 작품들이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된 중요한 비결의 하나는 작품의 종자에 맞게 인간관계를 특색있게 탐구설정하고 심화시키거나간데 있다.

작품의 종자가 주인공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실현된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창작실천에서 독창적인 종자를 인상깊은 성격창조로 실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종자를 골라잡았다고 해도 그 실현에 알맞는 인간관계를 특색있게 탐구설정하지 못한다면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개성화할수 없고 따라서 작가의 창작적의도도 옹게 실현할수 없다. 그것은 작품창작에서 인간관계의 형상적위치와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크기때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물관계를 옹게 설정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작품의 내용을 예술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가 못보여주는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모순들을 정확하게 그려내는가 못그려내는가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며 구성의 짜임새와 립체성을 결정한다.》

문학작품창작에서 인간관계의 설정이 이처럼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것은 묘사대상인 인간의 사회적본성과 관련된다.

인간은 사회적존재이다. 인간의 본성인 자주성은 타고나는것이 아니라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는 과정에 형성되고 발전하는 사회적속성이다. 인간생활은 자주적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활동과 투쟁으로 표현된다. 인간의 자주적인 목적은 사회

적관계속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과 그 생활을 반영하는 문학작품창작에서도 자주적인 요구를 실현해나가는 주인공의 성격을 옹게 보여주자면 종자의 특성에 맞는 인간관계를 탐구설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색있는 종자를 실현하자면 그에 적응한 특색있는 인간관계를 탐구설정하여야 한다. 그래야 작품에 제기하는 인간문제도 새로울수 있고 그들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생활세부도 뚜렷한 개성을 가질수 있다. 특색이 없는 인간관계에서는 새로운 인간문제가 제기될수 없고 인간문제가 새로지 못하면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생활도 새로운 인상을 줄수 없다.

특색있는 인간관계란 작가에 의하여 새롭게 탐구된 뚜렷한 개성을 가진 인물들의 관계를 말한다. 비반복적인 성격들, 개성이 뚜렷한 인간들의 호상관계에서는 새로운 인간문제가 제기되기마련이고 그들에게서만 볼수 있는 고유한 생활세부들이 생겨나기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새로운 인간문제와 개성적인 생활세부는 특색있는 인간관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단편소설 《박동》은 인간관계를 특색있게 설정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취급하고있는 사건은 수렁에 빠진 1호박토기구조작업이다. 이 사건은 박토기를 해체하는 방법으로 꺼내는가 그대로 건져내는가 하는 기술실무적인 문제를 안고있다. 해체하는 방법으로는 한달이라는 기일이 걸려야 하고 통채로 건지면 사흘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해체하는 방법은 안전하지만 그채로 건져내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위험하며 그 안을 선택하자면 《운명을 모험》해야 한다. 소설은 이런 정황을 제시하고 주인공인 탄광의 초급당비서 윤영준을 《운명을 모험》하는 위치에 세우고 기사장 송정규를 안전한 방법인 해체안을 고집하는 위치에 세워놓음으로써 기술실무적인 문제를 인간문제로 전환시키고있다.

이 소설에 설정한 이러한 인간관계가 특색을 가지게 된것은 주인공 윤영준과 그 상대인물인 기사장의 성격을 인물배치에 합당한 성격, 비반복적인 성격으로 규정한데 있다. 작품에서는 초급당비서 윤영준이 《운명을 모험》하는 길을 택하게 되는 그의 심리세계를 깊이있게 파헤치고있다. 그에게도 없었다. 그러나 그 방법을 택하자면 국가로부터 받

은 석탄생산계획을 수만톤이나 미달하는것을 리용해야 한다. 이것이 그의 량심에 걸리게 된다.

자기 《운명을 모험》하는 길을 택하게 된 중요한 내심세계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그에게는 기술적으로 위험한 일을 하다가 큰 사고를 저지룰수 있고 그렇게 되면 책벌을 받고 현직에서 물러날수도 있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목이 떨어질가봐 량심의 빛을 지고 살수 없다는것이 그의 인생관이었다. 그는 자신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명예도 조국의 리익을 위해 바칠줄 아는 성격이다. 작가는 주인공이 당일군이라는 특성을 새롭게 강조하기 위하여 그가 《모험》의 길을 택하면서 행정기술일군이 저야 할 모든 책임까지 자신이 결머지고 나서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되기까지 심리적기초를 진실하게 밝혀주고있다. 그것은 자기 명예를 위해 안전한 길만 주장하면서 주인공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고있는 기사장에 대한 그의 행동에서 뚜렷이 표현된다.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의 충고를 듣지 않는 기사장이지만 그는 어머니당의 일군으로서 그의 정치적생명과 사업권위를 끝까지 지켜주기 위하여 높은 혁명적의리를 가지고 애쓴다. 인간에 대한 이 뜨거운 사랑이 바로 그로 하여금 《모험》적인 길을 택하지 않을수 없게 한것이다. 작가의 발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작품은 주인공의 성격을 생동한 개성으로 형상하기 위하여 그 상대인물인 기사장과의 관계에서 빛어지는 생활을 생동한 세부형상으로 인상깊게 보여주고있다. 그리하여 상대인물인 기사장의 성격도 새롭게 형상하고있다.

기사장의 별명은 빠스볼트 즉 《사용설명서주의자》였다. 《모든것을 사용설명서대로 하자. 그것은 기술자의 지평이다.》 이것이 그의 기술적신념이였고 생활철학이었다. 그는 대학동창생인 공무직장 기사 김광국이 박토기 무인화를 실현하려고 했을 때에도 《설명서》가 없는 일이라는 리유로 그가 보장해달라는 고압차단기를 주지 않았다. 그때문에 김광국은 고장난 고압차단기를 가지고 실험하다가 주전동기를 태워먹는 엄중한 사고를 저지르게 했다. 이런 기사장이 함몰된 박토기를 그채로 꺼내자는 김광국의 발기를 반대하는것도 《설명서》가 없는 일이기때문이었다. 그런 일을 하다 실패하면 자기가 책임지게 될것이 두려워 초급당비서의 권고도 접수하지 않게 된다. 윤영준이 그 안을 당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집행하기로 결정하였을 때도 그는 구조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인정과 우의도 모르는 그의 이런 보신성으로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가계획까지 조절해보겠다고 꺼리낌없이 말하게 된다.

이처럼 뚜렷한 개성을 가진 두 인물의 관계는 강한 대조를 이루면서 그 특색을 살리고있다.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그 개성의 대조를 선명하게 주는것은 인

간관계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기본수법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특색있게 설정하자면 무엇보다도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깊이있게 파고들어 새로운 특징을 찾아내야 한다. 성격의 개성화는 그 성격의 깊이에서 이루어져야지 생김새나 옷차림, 직업이나 연령과 같은 현상적인데만 치우쳐서는 아무런 의의도 없다.

단편소설 《박동》에 설정된 인간관계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당일군과 행정기술일군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아무런 특색도 없다. 현상적인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반복과 도식적인 인간관계로 될것이다. 당일군과 행정기술일군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두번만 보아왔는가! 물론 독자들이 알지 못하고 또 지금까지 누구도 취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직업분야나 외형적인 특징이 류다른 인물들의 관계도 그 특색을 창조하는데 작용하게 되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그 외적인 특성이 인물들의 성격속에 내재하는 본질적특성을 깊이있게 파고들어 그것과 조화를 이루게 될 때에만 그들의 관계가 진실한 특색으로 될수 있다. 특색있는 인간관계라면 반드시 새롭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안고있어야하고 성격형상을 통하여 생활의 진리를 새로운 각도에서 인상깊게 강조할수 있게 되어야 한다. 생활분야나 다르고 직업이나 옷차림이 아무리 새롭다 해도 그들의 성격이 인상깊게 안겨오지 않는다면 그런 인간관계는 특색을 나타낼수 없다.

단편소설 《박동》에서 당일군과 행정기술일군의 관계를 취급하면서도 그들의 관계가 특색있게 안겨오는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심리세계를 진지하게 파고들어 그들의 성격을 인상깊은 개성으로 그려준데 있다.

단편소설 《로반에서 만난 너선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현상적으로 볼 때는 이 작품에 설정한 인간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된다. 우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취급한 소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아무런 특색도 찾아볼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읽고나면 그들의 관계가 새롭고 특색있게 안겨오는데 그것은 인물들의 성격을 남다른 각도에서 깊이있게 파고든 데 그 비결이 있다.

이 작품에 설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교정이 아니라 압록강반에 로반을 닦는 건설현장에서 다시 만나게 한것도 일정한 특색으로 된다. 작품에서는 그들이 서로 교정에서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성격적특징을 탐구하여 인상깊게 형상함으로써 이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생활을 특색있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는 3년전에 돌격대에 나온 제자 리광준과 이제 나온지 며칠밖에 안되는 학교사로청지도원 영란선생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들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우리 시대 청년들의 명예와 위훈에 대한 문제에 새로운 해답을 주고있다.

분대장 리광준은 대자연을 정복하는 어렵고 힘든 투쟁의 나날을 보람있게 수놓아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는것으로 돌격대생활의 마감을 장식하려고 한다. 명예와 위훈에 대한 그의 이런 관점때문에 손푼금을 잘 타는 자기 소질도 묻어두면서 남들의 눈에 잘 띄우고 성과가 뚜렷하게 평가될수 있는 일만 찾아하게 된다. 그가 스승인 영란이를 위해주려는 의리심도 명예와 위훈에 대한 제나름의 관점에 기초하고있다. 즉 영란선생이 돌격대에 나온것을 보람찬 건설장에서 당원의 영예를 지니려는 목적때문일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그에게 남들의 눈에 잘 띄우는 일만 시키려고 한다.

리광준의 이러한 시점에 비친 주인공 영란의 성격은 그의 예상을 뒤집어놓게 된다. 그는 입당을 위해 돌격대에 나온것이 아니라 평범한 시절에 조용한 교정에서 당에 입당했기때문에 자신을 어려운 일을 하고있는 청년돌격대원들속에서 허심히 배우고 당성을 단련하기 위해 입대했던것이다. 다시말하여 광준이가 돌격대생활의 종착점으로 정하고있던 그 영광의 날을 영란은 새 삶의 출발점으로 삼고있는것이다.

이 소설에서 인간관계의 특색을 살릴수 있는것은 주인공의 이 새로운 성격적특징을 발견한데 있다.

주인공의 이러한 성격에 자신의 수양보다 명예를 더 증시하는 광준의 성격을 대조시킴으로써 인간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그들의 심리세계를 깊이있게 그려낼수 있는 충분한 전제를 마련할수 있었다.

인간관계를 특색있게 탐구설정하는것은 인상깊은 생활세부를 찾을수 있게 하는 전제로 된다.

인상깊은 생활세부를 탐구묘사하는것은 작품의 주제와 사상을 정서적으로 밝히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생활이 있어야 문학이 있을수 있고 생활을 풍부하고 깊이있게 그리는 문제는 새롭고 인상적인 생활세부에 대한 탐구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 철학적깊이가 있는 작품을 창작하자면 생활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생활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주전을 가지고 독창적으로 해석하여 그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묘사할줄 아는 창작적재능이 요구된다. 새로운 생활세부는 등장인물들의 뚜렷한 개성이 체현된 구체적인 생활이다.

이러한 생활세부는 특색있는 인간관계에서만 찾을수 있다. 그것은 구체적인 모든 생활세부가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는 인간들의 고유한 성격의 발현이기때문이다. 특색있는 인간관계는 개성이 뚜렷한 인간들의 관계이므로 새로운 생활세부들을 탐구묘사할수 있는 가능성으로 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옮겨 리용하여 그들에게만 고유한 생활세부들을 탐구묘사하여야 그들의 미묘하고 웅심깊은 세계를 인상적으로 파고들수 있다.

단편소설 《박동》에서 탐구묘사된 생활세부들은 매우 인상적이다. 자체모순에 빠진 기사장이 화

김에 술을 마시고 구조현장에 나오지 못하고있을 때 그의 집으로 찾아가간 초급당비서의 심리세부, 술에 만취되어 깨지 못하는 그에게 남겨둔 편지에 반영된 그의 심리세부는 그의 뜨거운 인간애와 참된 동지적의리와 믿음과 사랑을 인상깊게 강조하고있다. 또한 기사장이 박토기구조현장에 나와서 초급당비서에게 피로운 심정을 고백하며 욕을 해달라고 했을 때 초급당비서가 자신의 믿음과 기대가 헛되지 않았다는 기쁨에 소탈하게 웃으며 일을 욕으로 치고 성공으로 자기비판을 대신하자고 하는 생활세부는 일군들을 아껴주고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지켜주는 당일군의 개성적품모를 인상깊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로반에서 만난 녀선생》에 묘사된 생활세부들도 주인공 영란이와 광준의 성격대조속에서 탐구되고 창조된 생활세부들이다. 일손이 서툰 옛스승에 대한 동정과 제나름의 의리심을 잃지 않고 그를 위해주려는 다양한 세부들과 부러진 메자루를 보충하기 위해 산에서 나무를 마구 찍는 생활세부, 손푼금을 잘 타면서도 그것을 숨기려고 애쓰는 생활세부들은 그의 성격을 인상깊게 보여주고있다. 특히 주인공 영란이가 남들의 눈에 잘 띄우지는 않지만 생활에 필요한 일이라면 남먼저 몸을 잠그는 생활세부들과 눈석이에 강물이 불어나는바람에 떠내려가는 휘틀을 건지려고 강물에 서슴없이 뛰어드는 생활세부는 당원이라는 자각과 자신을 단련하려는 그의 의식적인 노력을 정서적으로 강조하여주고있다. 이 모든 인상적인 세부들은 인물들의 개성적특성을 부각시키면서 작품의 주제사상을 감성적으로 밝혀내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인상적인 생활세부창조는 작가의 환상과 허구의 능력을 요구한다. 특색있는 인간관계를 설정하였다고 하여 기름진 생활세부가 저절로 생겨나는것이 아니다. 특색있는 인간관계설정은 세부창조의 전제조건으로, 가능성으로 될뿐이다.

작가에게 현실체험에서 얻은 생활이 아무리 풍부해도 그것이 그대로 작품에 옮겨지는것은 단 하나도 없다. 그것은 작가가 작품에 설정한 인물들의 성격이 현실속에서 발견한 원형에 기초하여 시대의 요구와 작가의 미학적견해, 창작적의도에 따라 재창조된 성격이기때문이다. 작가의 재창조가 없이 원형그대로 옮겨놓은것이라면 그것은 창작품이 아니다. 작가는 사실을 그대로 옮겨놓는 기계가 아니라 창조적인 환상과 허구의 도움으로 보다 새롭고 의의있는 생활로 재창조하는 창작가이다. 단편소설

《박동》과 《로반에서 만난 녀선생》에 설정되고 묘사된 특색있는 인간관계와 인상깊은 세부들은 창작가의 본분에 맞게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생활탐구과정에 얻어낸 귀중한 창조물이다.

작가의 탐구적노력과 작가의 창조적환상과 허구에 의하여 예술적으로 재창조되지 못한 작품들은 잘 읽히지 않고 읽고난 다음에도 남는것이 없다. 시

대와 함께 부단히 전진해야 할 우리 문단에 아직 이런 작품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올해 《문학신문》 4월 26일부에 발표된 단편소설 《달래》(동성립)와 6월 21일부에 발표된 《수리날》(박명수)이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단편소설 《달래》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느 한 전선에서 인민군 취사병이 놈들의 포탄에 쇠가마가 부서져서 가마를 구하러 마을에 내려갔다가 마을의 민청위원장이 캐온 달래를 보고 자기가 얻으려던 쇠가마 생각은 잊고 밭에 나가 달래를 캐가지고 고지에 올라온다. 그런데 그것이 병사들에게 애뜻한 고향의 정서를 불러냈고 갑자기 달려드는 놈들을 무섭게 죽쳐낼수 있게 한 힘을 날게 하였다. 주인공은 달래의 힘이 이토록 큰데 놀라게 된다. 더우기 중대 꼬마병사의 죽안에서 먹지 않고 건사한 달래를 본 그는 다음날 다시 마을에 달래 캐러 내려간다. 그는 마을처녀들의 도움으로 달래를 캐가지고 돌아오다가 소구역에서 부상을 당한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포탄구멍이밖으로 기여나가 땅우에 흩어진 달래를 움켜쥐고 쓰러진다. 그는 중대 병사들에 의하여 구원된다.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고지에서 싸우는 전우들에게 고향의 향취를 안겨주고 그것으로 애국심과 적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려는 취사병의 소박한 심리세계를 그리려 한것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시도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주인공의 성격에 뚜렷한 인간문제를 체현시키지 못하고 따라서 그의 성격을 깊이있게 형상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이 작품이 상식적인 이야기로 끝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소설에는 취사병외에 중대장, 꼬마, 마을로인, 달미, 쌍태머리처녀 등 여러 인물이 등장한다. 주인공은 이들 모두와 관계를 맺기는 하나 그속에서 인간문제는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 인간문제를 체현시키지 못한 데로부터 취사병의 내면세계를 그려낼수 있는 생활전제를 마련할수 없었던것이다. 이 소설이 인간학적인 이야기로 되지 못한것은 작가의 탐구적노력과 열정이 없이 손쉽게 붓을 든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

한다.

단편소설 《수리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소설에서는 농장기사장이 김매기실적이 오르지 않아 10개의 작업반 반장들을 모여놓고 협의회를 가지는것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여기서 새로 배정된 새로운 동력제초기 석대를 1, 3, 5반에 배정한다. 이때 10반 반장이 불만을 터뜨려 옥신각신하게 된다. 기사장이 로력문제를 따지고들다가 10반에 있는 자기 사촌누이동생 레영이라는 처녀가 허파에 바람이 불어 날아갈 궁리만 하고있다는것을 알고 말문이 막히게 된다. 이런 때 관리위원장이 수리날이를 평장하게 조직하자고 한다. 그것이 사람들의 찬동을 받게 되여 수리날 다양한 경기를 요란하게 조직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김매기실적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오르고 저마다 새로 나온 제초기를 달라고 하던 반장들이 그것을 서로 양보하게 되었으며 농장을 뜨려고 하던 레영이도 안착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주로 농장원들의 심리를 알아주는 관리위원장과 영농기술과 작업실적밖에 모르는 기사장과의 관계를 통하여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성격을 개성화하지 못하다보니 그들의 관계에서 제기된 인간문제가 너무 상식적인것으로 되고말았다. 인간성격에 대한 탐구가 없이 설정된 인간관계인것으로 해서 독자들은 그속에서 빚어지는 생활에서 그 어떤 인간문제를 감득하는것이 아니라 단오날의 경기조직이 과연 그런 은을 낼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을 품는것이다.

작품에 제기하는 인간문제가 상식화되는 주요한 원인은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없고 그들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인간문제에 대한 깊은 파악이 없이 서둘러 붓을 든데 있다.

그러므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 철학적깊이가 있는 단편소설을 창작하자면 새롭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체현한 특색있는 인간관계탐구에 보다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교원)

대학시절과 한생

윤두만

탐구의 노력은 힘에 겨워도
탐구의 열매는 향기로운것

스승의 자양분을 받아안은 시절이라
내 만약 열정의 등불 끄고 때일찍

꿈나래 핀다면

제발로 가야 할 혁명의 먼길에
한생은 열매없는 과원처럼 향기 없으리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교원)

민족문학의 어제와 오늘을 두고...

문예출판사대표단은 중국 《천지》 잡지사를 방문하고 창립 40돐을 축하하여주었으며 기념좌담회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중친선은 오래고도 깊은 역사적뿌리를 가지고있으며 조중관계의 년대기는 수많은 감동적인 사실들과 미담들로 가득차있습니다.》

조선과 중국은 형제적린방이며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속에서 서로 어깨걸고 생사고락을 같이한 계급전우이다.

문예출판사대표단은 이번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 조선민족문학 출판일군들과 작가들을 수많이 만나 보았으며 서로 가지고있는 의견들을 허물없이 나누었다.

잡지 《천지》 창간 40돐 기념좌담회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자

배민옥 (문예출판사 부주필)

리상각(《천지》잡지사 책임주필, 시인)

김호근(《천지》잡지사 부주필, 시인, 좌담회 사회자)

리성인(시인)

정국권(부교수, 시인)

채택룡(시인)

림원춘(소설가)

김해진(《천지》잡지사 전 책임주필)

리원필(연변인민출판사 부주필, 소설가)

리혜선(소설가)

최삼룡(평론가)

리홍규(작가)

권 철(평론가)

최현숙(소설가)

김호근; 오늘 잡지 《천지》 창간 40돐 기념좌담회에는 연변조선족 자치주에 계시는 조선민족문학 출판일군들과 이름있는 작가들을 비롯하여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는 조선에서 온 문예출판사대표단이 자리를 같이하여준것은 우리를 매우 기쁘게 해주고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기념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지》 월간사 책임주필 리상각동지의 기본발언이 있고 이어 조선 문예출판사대표단 단장 배민옥동지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리상각; 우리 잡지 《천지》 창간 40돐 기념좌담회에 조선 문예출판사대표단 참가하여준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영광이며 자랑이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

다.

저는 이자리에서 우리 잡지사의 이름으로 조선문예출판사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무리 잡지사가 걸어온 40년의 로정에 대하여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전인 1951년 6월 록음방초가 우거진 계절에 경사가 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나라에서 조선말로 된 문학잡지가 고고성을 울리며 세상에 태어난것입니다.

일제시기 말과 글을 빼앗겼던 우리 민족이 당과 정부의 배려밑에 자기의 민족문학잡지를 가지게 되었던것입니다. 처음에는 4x6배판에 54페이지잡지로서 5,000부가량 발행하였습니다. 창간호에는 우리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 주임의 글이 실리고 영웅적인민들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들이 편집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호를 내고는 그만 정간되고말았습니다.

그런것을 여기 앉아계시는 채택룡동지의 도움으로 1956년에 다시 복간되었습니다.

《연변문예》, 《아리랑》으로 잡지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1961년에 많은 잡지들이 폐간될 때 우리 잡지는 4x6배판에 48페이지로서 1만부가량 발행하였습니다.

그후 《문화대혁명》이 일어나 연변지구의 많은 잡지들이 폐간되었습니다. 《문화대혁명》후 다시 《연변문예》로 복간되었습니다.

1978년 이후 우리 잡지는 번영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1982년에는 8만부를 발행하여 인구 19명당 한부씩 차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해에 7천여명의 작품이 투고되고있습니다.

우리 잡지사에서서는 단행본 《천지의 물줄기》와 《백두의 녀》을 발행하였으며 《천지문학상》을 제정하고 매해 현상응모를 진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잡지는 조선, 미국, 일본 등에도 배포되고있습니다.

잡지 《천지》는 말그대로 우리 민족의 거울이라고 말한수 있다고 봅니다.

배민옥; 우리는 잡지 《천지》 창간 40돐을 함께 기념하기 위하여 수천리 만길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의 가슴속에는 하고싶은 이야기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를 초대하여준 《천지》잡지사 일군들과 중국조선문단의 여러 작가동지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천지》잡지사 창간 40돐을 축하하여주는 우리 나라 출판일군들과 작가들의 부락을 안

고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서자라 서툰살이 넘어서야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배려로 조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천지》잡지사는 파란곡절의 역사를 가져왔지만 그속에는 눈물도 많았고 웃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민족정책이 올바르게 구현되어 조선민족문단이 당당히 머리 들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예출판사는 우리 나라에서 유일한 문예출판종합출판기지입니다. 우리 출판사에서는 《천리마》잡지를 비롯하여 《조선문학》, 《청년문학》, 《아동문학》, 《문학신문》 등 잡지와 신문들이 발행되고있으며 예술잡지들도 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형상한 총서작품들과 덕성실기 도서들, 주제적문예사상을 해설한 리론총서들이 출판되며 장중편소설들과 고전문학을 비롯한 외국문학작품들도 발행하고있습니다. 또한 종합작품집들과 음악예술도서들도 체계적으로 출판합니다.

저희들이 할수 있는것은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의 작품들을 소개해주고 작품집들을 내주는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여기에 계시는분들의 생활을 우리 인민들에게 알려주는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근: 좋은 말씀들을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실분들이 있으면 계속 이야기해주시시오.

리철인: 나는 중국에 있는 조선민족 시인으로서 오늘 우리 좌담회에 조선 문예출판사대표단이 함께 참석하여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연변문학》과 《대중》을 발행하는데 참가하였습니다.

그때는 메달 발행부수가 2천부정도였습니다. 곱월간으로 냈지요. 그런데 지금은 8만부라니 대단합니다. 또한 지금 작가대오를 보면 대단히 기쁩니다.

그때는 채택룡, 김인삼, 극작가 황용국 등 몇사람뿐이었습니다.

《천지》잡지가 조선뿐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도 나간다니 놀랍습니다. 《천지》잡지를 본 소감을 좀 말씀드린다면 쌀에 누가 있는것처럼 만족을 주지 못하는 작품들도 가끔 읽게 된다는것입니다. 6개호를 보았는데 사상에술적질이 올라간것이 알립니다.

단편소설 《젊은이》를 좋게 보았습니다. 어떤 동무가 평론을 썼는데 일반적인 개념화된 리론을 전개한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고선일동무의 소설을 비판한 평론을 읽어보았는데 그렇게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극권: 저도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조선에서 태어나 일제시기 살길이 없어 씨비리로 건너가 헤매이다가 여기로 왔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우리 말을 빼앗고 우리 글을 빼앗아 설

음을 안고 살다가 해방후 당의 민족정책에 의하여 우리 말을 가지고 민족문학운동을 하였습니다.

저의 가슴속에 고이 간직된것은 어떻게 하면 떠난 고국산천에 대해서 그럴것인가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품이 고국의 지면에 소개되었으면 하는것이 소원입니다. 립원춘동무의 단편소설 《몽당치마》와 문창남동무의 시들이 고국의 출판물들에 소개되는것을 보고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허나 이것은 개별적인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고국의 문학을 간단히 소개해주고있습니다. 우리는 한 조상의 일을 타고 문학을 시작하였고 고국의 문학을 많이 보고 연구합니다.

조선에서 우리 작품을 내준다니 그 기쁨을 무슨 말로 다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제시기 쪽박을 차고 두만강을 건너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것을 아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호근: 그러면 다음 순서로 채택룡선생이 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택룡: 오늘 이 좌석에 조선 문예출판사동무들이 참가해서 더 감개무량합니다. 《연변문예》를 전신으로 하는 《천지》잡지사가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지 있었던 일들을 더듬어보면 어떤것들은 생생히 떠오르는데 또 어떤것들은 알듯말듯한것들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난 조선전쟁시기 우리 잡지를 꾸리던 때를 제일 잊을수가 없습니다.

중조선협회의 자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잡지를 편집하고있을 때 조선에서 오동은, 김상오, 마우룡 동무들이 왔다갔습니다. 조선에서 전쟁을 한창 진행하던 때였으니까 아주 간고한 때였습니다.

그때 오동은 선생은 우리를 찾아와서 애국자들을 키우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작품을 많이 쓰게 중요하게 아니라 참살구맛이 나게 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수준상 관계로 그때 선배들이 준 조언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립원춘: 불원천리하고 조선에서 온 대표단동지들을 만나고보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배민옥동무의 량친은 우리를 배워준 선생님들입니다.

배동무와 함께 여기서 문학공부를 같이한 길동무라고 우리는 말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 따뜻한 혈육의 정을 느끼게 되는것을 어쩔수가 없습니다.

저의 변변치 못한 작품을 조선에서 《통일문학》잡지에 내주었을뿐아니라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많은 책들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자리를 빌어 저의 감사의 인사를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꼭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는바입니다.

위대한 당이 있었기때문에 전쟁의 포화가 휩쓸고 있을 때였지만 우리 《천지》잡지가 태어날수가 있었습니다. 창간된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잡지 《천지》는 실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작가들은 자기 위치를 확고히 차지하고 한마음한뜻이 되어 당과 인민이 준 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자기의 본분을 다했다고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리상각: 김해진선생은 30년간 우리 잡지사의 주필로 일을 하셨는데 동란후 잡지를 복간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셨습니다. 한마디 좀 말씀해주십시오.

김해진: 저는 1955년부터 잡지 《천지》에서 일하였습니다.

저는 10년을 교육사업에 참가하고 30년을 편집사업에 바쳤습니다. 《연변문예》와 《청년생활》을 꾸리다보니 한생이 다 갔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지지와 방조를 받았기 때문에 잡지들을 꾸려나갈수가 있었다는것을 말하게 됩니다. 사실상 편집원들은 권리가 없는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편집을 잘못해서 의견도 받아보고 늘 근심속에 살게 되는것이 편집원인것입니다.

작품을 투고한 사람은 편집자의 이야기를 심중하게 듣는데 저는 경솔하게 행동한 때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편집원은 늘 심중해야 하고 또 책임성이 높아야 합니다..

편집에서 개념화를 범하고 공식화된데로 나갈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남의 작품을 기존틀에 맞추어 의견을 주게 되고 자기 작품도 그렇게 쓰게 되는것입니다.

편집원들은 또한 문학후비들을 키워내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연변의 문예사업은 영원히 계속될것이며 세계를 놀래우는 그런 명작이 나오리라는걸 기대하게 됩니다.

리원길: 《천지》잡지사 창간 40돐에 즈음하여 머나먼 평양에서 달려온 조선 문예출판사동무들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선은 우리 민족의 터전이며 조선말은 우리 문학의 길잡이이며 번영의 피줄기입니다.

나는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사람으로서 어려서부터 조선의 문학을 통하여 눈을 뜨고 기교를 배웠습니다. 저에게 영향을 준것은 조선의 문학이었습니다.

리기영선생의 《땅》과 조기천과 김소월의 시들이었습니다.

천세봉선생의 장편소설 《대하는 흐른다》, 《석개울의 새봄》, 《축원》과 석운기선생의 《시대의 탄생》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기회를 리용해 이런 책들을 찍어내는데 힘을 기울인 조선 문예출판사동지들에게 고맙다는 인사

의 말을 드립니다.

우리 중국의 조선족 민족문학은 조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보다 더 넓은 범위로 활동무대를 넓혀나가고있습니다. 조상의 말과 글로 또 조선의 우수한 작품들을 섭취하면서 중국의 실정에 맞는 민족문학을 개척해보려는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조선에서 우리의 작품들이 더 많이 소개된다면 기쁘기 한량없겠습니다. 우리 《연변인민출판사》는 정치, 경제, 문학, 어학, 체육부문까지 다 포괄하여 책들을 찍어내는 종합출판사입니다.

그러면서도 문학예술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리혜선: 조선에서 온 대표단동지들과 한자리에 이렇게 앉으니 정말 기쁩니다.

이번 대표단 단장도 녀성일군이고 또 우리와 같이 문학공부를 함께 하던분입니다.

조선의 녀성작가동지들에게 우리의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고국의 문학과 우리의 문학이 한 지면에 나가게 된다니 정말 행복합니다. 저의 할아버지도 조선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조님들의 분묘가 있는 땅에서 우리의 문학작품이 출판된다니 꿈만 같습니다.

저는 잡지 《천지》창간 40돐을 맞으며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의 처녀작도 잡지 《천지》에서 내주었습니다. 문학상도 잡지 《천지》를 통해 받았습니다. 이자리들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최삼룡: 잡지 《천지》창간 40돐을 맞고보니 감개무량합니다.

《천지》라는 무대가 없다면 운동장이 없는것과 같으며 민족문학운동도 빌릴수 없는것입니다.

저는 중국 조선족 문학사 집필에 참가하면서 생각되는바가 많았습니다. 잡지가 서론종이나 있는데 그중 문학잡지가 열종가량 됩니다.

그 가운데 95프로의 작품은 잡지 《천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민족문학의 발전의 견지에서 놓고보면 《천지》잡지가 논 역할이 대단히 큼니다.

《천지》잡지사 일군들은 모더니즘에도 빠지지 않았을뿐아니라 그 어떤 류파에도 휘말려들지 않고 오직 사회주의사실주의기치를 끝까지 들고왔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존경하게 되며 《력사는 결코 잊을수 없다》에서 제가 쓴것처럼 생활에는 봄만 있지 앓고 눈물도 있었지만 력사는 지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결코 잊지 않을것입니다.

리홍규: 오늘 녀성들의 옷이 다양해지고 시장에 나가면 없는것이 없는것처럼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정신문명운동을 하여 잡지들도 많아지고 글의 종류도 늘어났습니다. 50년대와 60년대에는 작가들이 많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 수가 비할바없이 많아졌습니다.

만가지 꽃들이 만발하고있는 현시기 우리 문학은 인간을 그리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쓰는 작품들이 나가서 어떤 인식교양적기능을 수행하겠는가 하는것을 생각해야 하지만 틀에 박힌 글은 쓰지 말아야 합니다.

잡지 《천지》가 잘 꾸러진 이 기회를 리용하여 방향타를 잘 쥐고 나가는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화에 대한 경종도 울려야 합니다. 특히 젊은 동무들이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을 바로 세우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권철:저는 잡지 《천지》 창간 40돐을 맞으며 이 잡지사 일군들의 사업기풍에 대해서 좀 말하자고 합니다.

편집실에 아무때나 들어가 보아도 질서정연하고 정숙이 보장돼있는가 하면 사업에 몰두하고있는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이 동무들의 손을 거쳐서 나온 작품들은 민족의 재부이고 좋은 작품은 인류의 재부입니다.

이번에 귀가 번쩍 띄는것은 조선에서 우리의 작품을 소개해준다는것이였습니다. 이런 길이 열린것은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라고 봅니다.

중국의 소수민족가운데서 잡지 《천지》만큼 발행부수가 많은 잡지는 없습니다. 유감스러운것은 아직 조선작가들이 다른 민족출신 작가들을 놀래울수 있는 그런 작품을 들고나오지 못하고있는것입니다.

리상각:제가 오늘 모임에서 알려줄 일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정기룡선생은 대수술을 하고 우리 잡지 창간 40돐 행사에 참가하지 못한 아쉬움을 편지로 써보내왔습니다. 최현숙선생도 앓고있는 몸이지만 오늘 행사에 기어코 참가하겠다고 손녀의 부축을 받으면서 나오셨습니다. 조선 문예출판사에서는 축기와 기념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잡지가 걸어온 과정에 잡지 《조선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잡지를 저음 꾸릴 때에도 잡지 《조선문학》을 보고 참고를 했던것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우리 잡지 《천지》가 작은 잡지라고 여겨오었는데 40돐을 맞으며 조선에서까지 축하해주러오고 각계 인사들의 반향을 들으면서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잊을것 같지 않습니다.

최현숙: 오늘 조선동지들과 한자리에 앉고보니 마음이 뜨겁고 자꾸 눈물이 앞섭니다.

나는 작가로서 또 편집일군의 한사람으로서 별로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람찬 한생을 보냈다고 긍지있게 말할수 있는것이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눈이 보이지 않아 남보고 글을 읽어달라고 해서야 작품의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리원길동무의 장편소설도 그런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무들의 마음이나 병석에 있는 내 마음이나 같다고 봅니다.

한사람이 없다고 혁명을 못하는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은 항상 열정으로 불타고있습니다.

저는 조기천의 시를 베끼는것으로부터 편집을 시작하였고 문학창작도 하였습니다.

좋은 작품을 만났을 때에는 밤길을 걸어서라도 필자를 찾아가 수정작업을 하곤하였습니다.

일생에 제일 재미있는것이 편집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늙어서 그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결코 그 대오에서 떠났다고는 어느 한시도 여겨본적이 없습니다.

조선에서도 우리들의 작품을 내준다니 행복하기 그지없는데 이제는 그 책들을 제논으로 직접 읽지 못하게 된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는가봅니다

조선말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있는데 우리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말입니까?

남의 말을 잘해도 자기 말을 할줄 알아야 그것이 씨앗이 박힌 사람이라고 보아집니다.

아무리 다른 민족을 부러워한다 해도 자기의것을 사랑할줄 알아야 똑똑한 사람이 되는것입니다.

젊어서 오래 살고 늙어서 빨리 죽는게 아니라 문제는 민족의 녀를 지니고 살아야 오래 산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김호근: 방금 최현숙선생이 훌륭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자기 민족을 사랑할줄 알아야 훌륭한 글도 쓸수 있고 노래도 지을수 있는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좌담회에서 지나온 나날도 추억하였고 걸어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도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선생님들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념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홍현양

충 복

리 석

아직도 그 어느곳
설친데는 없는지
아직도 그 어느 구석
손길이 미치지 않은데는 없는지
깐깐히 살피고 살피는
우리 비서동지

기초를 파고 벽체를 세우던 때부터
화려한 꽃무늬도배 할 때까지
마치 제집 꾸리듯
그리도 마음 쓰더니
아직도 그 무엇이 모자라는가

건설자들은 새로 정한 구획으로 옮겨가고
활짝 열어놓은 현관문은
새집들이 할 주인들을 기다리건만

이 집에서 살게 될 세대주가 된듯
운나는 수도꼭지도 틀어보고
번쩍이는 가구를 만져도 벼며
창문도 열어놓고
시원한 강바람을 가슴에 안아보는 저 모습

아, 저 모습 아니던가
언제나 마음의 첫자리에
인민을 두고계시는

친애하는 그이의 높은 뜻 받들어
기초공사장에서 보장우에서
우리 함께 구슬땀 흘리며
완공의 오늘에로 떠밀어주던 그대

인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저하늘의 별도 따다가 안겨주는
은혜로운 그 사랑 그대로 비껴
저 집들은 하늘높이 키를 솟구고
층층 창문들은 눈부신 빛을 뿌리는것 아닌가

새집들이 경사로 설레일
환희로운 광경을 눈앞에 그려보며
선뜻 층계를 내려서지 못하는 그대
빈터우에 새집을 일떠세우고
하늘가에 푸른 창문을 닫아주는것만으려야
어찌 친애하는 그이의 뜻을 다 꽃피웠다 하랴

이제 새집들이 그날
여기서 주인들의 웃음소리 넘치고
기쁨이 줄곧 피어나도록
건설자의 자각과 사명을
깨우치며 이끌어줄 한마음 다지며
그대는 선뜻 떠나지 못하네
떠나지 못하네

조선은 끄떡없다

(중국) 문창남

온 세계 착한 사람들아
 맑은 아침의 동녘을 우러러
 한집안 일로 주시하고
 한집안 일로 우려하는 마음들아
 그대 사랑하는 조선의 산과 들, 도시와 마을
 아무데나 오늘 다시다시 여겨보라
 인간복락의 봄이 머문 강산
 설음을 주던 꽃들도
 웃음진 망울 숨은 향기 가만히 아끼더니
 천출위인의 만경대 봄명절 기다려
 와와 꽃파도 이루어 소리치며 피는곳
 만경봉 감도는
 대동강 푸른 물 전설의 갈피우엔
 조용히 갈매기 난다
 유유히 조선의 흐름을 지켜본다

샤만호 불타 처박히던곳은 어디
 삼도왜적 무릎떨며 두팔 든곳은 어디
 양키 미제 코대껌고 피발톱 움츠린곳은 어디
 정치매춘부들 정수리에 된벼락 안겨주고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주체의 화불 더욱 세차게 밝혀올린곳은 어디

세상 그 어떤
 폭풍도 우뢰도 사나운 격랑도
 주체의 구심축 화불앞에선
 치떨며 신음하리니
 나라가 작다고 알보지 말라
 사람이 적다고 깔보지 말라
 하늘이 무너져도 용용히 솟아나는 조선!

조선사람의 가슴마다엔 백두산이 솟아있다
 세기적풍운에도 끄떡없을 백두산이 솟아있다
 태어나서부터
 소백수밀영의 눈보라가 해숨으로 피어난 품에 안겨
 피어린 자옥의 덤불길이 보석밭으로 펼쳐진
 궁전에서
 첫걸음을 떼나니
 심장의 첫박동엔 만경대의 맥박이 어려있고
 눈동자 첫시야엔 광명성의 밝은빛 비껴있어라

분명 철부지시절 어린 또래건만
 꿈에도 볼수 없던 천국의 보좌에 앉아
 수놓이하면 일등품이요

기악을 올리면 국제콩쿨인듯
 단추를 누르면 전자의 툴동이요
 사진을 찍으면 우주 별나라
 무릉도원의 신동이 아니고서야
 저럴수 있으랴

어른이 다 되어서도
 떠나면 한시도 못살 그 품이 있어
 생각만해도 가슴뜨거워지는
 자애로 어버이 있어
 한평생 로고의 그 영상 우러러도
 눈물짓는 아이
 청순한 일심
 착한 조선의 심장들...

천추에 빛날 거룩한 동상
 심장 가까이 모신다
 누가 뭐라던 천어버이로 모신다
 론리와 상습이 아닌
 절로절로 북받친 혈육의 정으로 모신다

인류력사에
 배신자의 신념이 사막화되어갈 때
 조선의 수령, 당, 인민처럼
 운명의 전일체로 철통같이 뭉친 힘
 그 언제 있었던가
 일심단결은 조선의 기상!
 일심단결은 조선의 위력!
 준엄한 시련 험난한 풍파속에
 일심단결로 싸워이긴 조선이기에
 오늘은 세계혁명의 백두밀영으로
 당당히 일어섰노라

폭풍취우 피바다 칼산
 악어, 여우, 승냥이, 이리떼면 어떠리
 혀를 꿰어 비밀지키고
 바다에 몸을 던지면서도
 물 한방울 젖을세라
 장군님영상 가슴에 새겨안은
 결사의 애국투사들
 장군님따라 천만리 불구름 헤쳐 천만리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겨
 충직한 근위대로 영생하나니

이리봐도 저리봐도
 끄떡없는 조선이여
 불패의 요새화된 조선이여
 무적의 정신핵무기 대국이여
 원수들은
 빨래줄 내려봐도 지뢰선으로 놀라리라
 전차이음대 바라봐도 고사기관포로 치떨리라
 솟굴을 쳐다봐도 지하갱도라 환장하리라

나라는 작아도 통이 큰 조선
 귀한것 많아도 인민을 위해서라면
 천금을 아끼지 않는 조선
 부귀비천이 없이 골고루 사는 나라
 산새물새도 비둘기되어 창가에 날고
 꽃사슴 춤추며 반겨주는 나라
 돈의 관념이 짓밟히고
 사람의 가치가 금은을 초월한 나라
 정녕 하느님이 있다면
 조선에 에덴동산을 새로이 꾸려놓은듯...

저 금강의 샘물보다 맑은
 조선사람의 웃음을 보라
 저 송학의 날음보다 활기로운
 조선사람의 걸음걸이를 보라

어디서나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신념화된 가슴들에서 터져나오는 메아리어

언제나
 《수령님 밤이 펴 깊었습니다...》
 《지도자동지 날이 또 밝습니다...》
 한밤을 지새우시고도 환히 웃으시며
 온 나라의 피곤을 한몸에 안으시고
 조선혁명의 항로를 풍랑헤쳐 개척하시는
 아버지따라 어머니따라
 눈물짓는 해바라기들...

그 누가 보던 말던 시키던 말던
 가로수 조약돌 씻어주는 마음들
 령고개 디딤돌 고여주는 마음들
 조신이 나갈길 알고있다
 조선이 올라갈 령마루 알고있다

이렇길래
 조선사람은 한사람이 백사람 당하고
 천리마의 기적이 온 나라에 나래친다
 《저 수평선을 지평선으로!》
 한마디 부름에 바다는 잔물을 줄이고

꿀과 젖이 흐를 등판을 드러낸다

《저 락랑벌에 새거리를 일떠세웁시다!》
 한마디 웨침에 한적하던 벌판은
 움썽움썽 구름우에 통일거리 일떠선다
 천리물길도 산넘어 옥토벌 적시고
 만년바위도 부드럽게 생동하는 보석화로 꽃핀다...

온갖 반동의 정치미싸일 날아들건말건
 온갖 음흉한 경제죄사슬 죄여들건말건
 조선사람은 끄떡없이 웃으며 산다
 평화로운 꽃동네의 복락을 안고산다
 인민군용사들은 총대신 건설의 용접봉으로
 원수의 가슴팍 뚫듯 하늘에 불꽃날린다
 이 땅의 처녀들은 서슴없이 동지의 눈이 되어
 다리되어
 인류도덕의 정상을 꽃피운다
 사람도 산천도
 만년일출의 영웅을 닮은듯
 안팎이 아름다운 조선!

정녕 아름다워라
 주체조선의 고매한 그 덕성
 대를 이어 빛내가는 이 강산
 말없이 착하고 강한
 조선사람 닮아 금강산이 솟아나듯
 속깊이 담차고 신비로운 향도의 별빛아래
 무릉도원의 새 조선 세상만방에 빛뿌리거니

보라
 속이 든든하길래
 누굴 보나 시름없는 웃음
 막강한 국력이길래
 어딜 보나 평화로운 건설

바로 이 티없는 웃음 평화로운 건설이
 핵폭발보다 더 무서운 힘인줄 알라
 아무리 코대 큰 나라도 비정행패할제면
 조선의 된 방망이 먼치 못하리라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천재만고의 신령의 도사
 삼천리를 움직인다
 지구의 력사를 빛내인다

조선의 원수들은 전몰하라
 미제침략자는 당장 물러가라
 이 세상에 빙하기가 다시 와도
 조선은 끄떡 없다!
 조선사람식으로 살아간다!

시의 운률을 더욱 세련시키자

현종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시창작에서 산문화를 극복하고 운률을 살릴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신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갔다.

이 기간 우리 시문학은 운률을 살리고 산문화를 극복하는 면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찌기 시의 운률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시인들의 운률의 본질에 대하여 옳은 이해를 가져야 하며 실천적으로는 시문장을 음악적흐름에 맞게 잘 짓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시에 운률이 없으면 정서도 없게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 이 명제는 시창작에서 운률이 노는 기능과 의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점을 가지게 한 강령적지침으로 되며 내용만 중시하고 운률을 홀시하는 그릇된 현상에 중지부를 찍은 빛나는 정식화로 된다.

이 고전적명제가 천명된 이후 우리 시인들속에서는 열정만 있고 복받치는 정서만 있으면 운률은 스스로 생기는 법이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하는 현상이 근절되게 되었으며 시를 지으면서 그 내용뿐 아니라 운률적형식미에 대해서도 응답한 관심을 돌리는 창작적기풍이 서가게 되었다.

1

10년동안에 이룩된 시의 운률령역에서의 성과는 그사이에 창작된 성과작들을 묶은 시집 《1980년대 시선》에 집약적으로 반영되어있다.

가는 길이 멀어서
홀로는 못가
내 한생 따르며 의지하는
그런 손길이 있습니다

안아주어 살뜰할 때도
꾸중으로 엄할 때도
운명의 피줄처럼 쥐고 따르는
그런 손길입니다
(오영재 《세상에 오직 하나》 중에서)

시의 다정스러운 감정은 차근한 톨조속에 친근하게 안겨온다. 시인은 자기가 한생 따르며 의지하는

그런 손길이 자기에게 있다고 정답게 노래하면서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런 당의 손길을 따라 오늘까지 혁명의 길을 걸어올수 있는 자기의 보람에 대하여 세련된 운률속에 노래하였다.

그의 시어음절군들은 사람의 호흡에 거친데 없이 음악적으로 잘 흐르며 시행과 시행내부의 음절군들은 서로 성음적으로 조화로운 대응을 이루면서 순탄한 균형을 보장하고 부드러운 톨조를 산생시킨다.

이런 성과는 이전시기 이 시인의 작품에서 보던 운률보다 그 운률미가 한층 더 세련되어있다.

이런 운률적성장과정은 박호범의 《태양은 빛나라》, 차영도의 《축원》, 동기춘의 《인생과 조국》을 비롯하여 시선에 오른 많은 시인들의 작품들에서 찾아볼수 있다.

시인 김철의 《어머니》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에서 성장한 우리 시인들의 정치사상적준비정도를 반영하고있는 동시에 시의 산문화를 극복하고 운률을 살리기 위한데서 거둔 주체적시문학의 성과를 뚜렷이 보여준다.

내 이제는
다 자란 아이들을 거느리고
어느덧 귀밑머리 희여졌건만
지금도 아이적목소리로 빼없이 찾는
어머니, 어머니가 내게 있어라

기쁠 때도 어머니
피로울 때도 어머니
반기여도 꾸짖여도 달려가 안기며
천백가지 소원을 다 아뢰고
잊을번한 잘못까지 다 말하는
이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

이 시인의 최근년간의 창작에서 보인 운률적기교는 시 《용서하시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있다.

그 시들의 운률적성파도 역시 시문장을 음악적흐름에 맞게 잘 지어 류창하고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흐르게 한데 있다. 그것은 시어음절군들의 내외 두부분이 성음상 조화로운 균형적대응을 이루면서 거침이 없이 흐르는데서 나타난다. 바로 시인은 조선시가운률의 민족적기초원리를 잘 구현하기 위하여 시어음절들을 적중하게 선택하며 선택된 시어를 다시 짝고 다듬고 반복시킨다. 다섯번이나 반복시켜

시의 룰조를 강화한 시어 《어머니》, 조화로운 균형형을 보장하기 위해 짝고 다듬은 시어 《희여졌건만》, 《아이적목소리》, 집접적으로 대응을 형성한 음절군들인 《기쁠 때도 어머니 피로울 때도 어머니》, 시의 내용적정서에 상응한 음악적흐름의 부드러움을 보장하기 위하여 애쓴 95프로의 고유조선어 시어, 이외에도 운률학적견지에서 보면 더 많은 문제를 말할수 있다.

2련의 시어들에서 류달리 많이 반복시킨 《도》의 토. 1련의 마지막 시어에 쓰인 《있어라》의 《卜》와 2련의 마지막 시어에서 쓴 《못살아》의 《卜》의 음향적호응, 두번 반복해 쓴 부사 시어 《다》 등도 모두 시문장을 음악적흐름에 맞고 룰조가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선택한것으로서 범상한 음절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시인 오재신의 《무산이라 철산은》은 7.5조 운률수법을 잘 살리고있다.

무산은 어디메나
어디메나
차유령너머 그리운고장

굽이굽이 수백리
걸어서 사흘길
수송관 따라 하루길

이렇게 시작된 시는 마지막을 현대적미감에 맞는 7.5조향토시의 룰조로 다음과 같이 끝맺고있다.

아, 무산이라 철산은
김철의 생명선
떨어져선 못사는 고장이랴오

여기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어선택과 시어들의 배열 특히 《어디메나 어디메나》, 《굽이굽이 수백리》, 《걸어서 사흘길》, 《수송관 따라 하루길》, 《무산이라 철산은》, 《그리운고장》, 《고장이랴오》 등 시어와 문장이 풍기는 정서적색갈과 룰조는 지난날 향토시가에서 많이 쓰인 《리》의 자모를 운률적 견지, 특히 음상학적수법의 견지에서 잘 구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르쳐주신 시의 운률을 살리며 산문화를 극복할데 대한 혁신의 길은 새 세대 신진시인들의 앞길에도 은혜로운 빛을 뿌려주었다.

신진시인이였던 주옥양의 서정시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는 그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예방침관철을 위하여 시의 운률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가고있던 때 자기 시창작을 시작한 신진

으로서 창작의 첫걸음부터 운률에 대한 높은 기교를 보여주고있다.

아버이수령님 우러러
내 만일 한점의 티라도 낀다면
어디서나 다시 백두산에 오르리
내 만일 꽃으로 폼다 시들면
여기 올라 다시 필자리 찾으리

아, 내 한생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
삶의 순간마다
언제나 그 언제나 백두산에 오르리

백두산에 오른 사람은 저마다 느끼는 감정이지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승고한 정서로 정화시켜주는것이 특징이다. 시인은 자기 마음속에도 만일 한점의 티라도 낀다면 그를 깨끗이 정화시키기 위하여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리라고 다짐하였다.

길지 않은 두련의 시구절가운데는 세번 반복되는 시어음절군 《백두산에 오르리》가 운률적으로 띄여지고있다. 시어음절과 시행들은 모두가 균형적으로 부드럽게 대응하는 두부분의 모두가 내외적조화를 이루고있다. 그 어디에도 음절군의 파부족으로 조화로운 음악적흐름새, 다시말하여 장단이 고르롭고 고저가 아름다우며 강약이 규칙적인 흐름새를 깨뜨리는 느낌을 주는곳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음악적룰조를 조성시키는데 효과있게 이바지하는 교차반복의 두어음절군 《내 만일》, 교착가운의 기능을 수행하는 반복음절 《--면》, 다섯번 교차반복된 자음반복 《--리》, 《--리》, 《언제나 그 언제나》의 상투적인 민족적반복수법 그리고 《 폼다 시들면》이 아니라 《 폼다 시들면》, 《여기 올라와서》가 아니라 《여기 올라》에서 보는 랍음수법 등 이 모든것은 조선어시가의 운률적기초원리의 구현을 담보해주면서 주체형의 우리 시대 주인공의 혁명적수령관을 풍부한 운률로서 표현할수 있게 하였다.

우에서 지적한 몇편의 실례를 가지고도 우리는 지난 시기 적지 않은 시들이 문장을 끊어서 절로 나누었으니 시처럼 보였지 쪽 면결해놓으면 하나의 산문과 같이 되던 그런 산문화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났다는것을 확인할수 있다.

이것은 시인들이 작시법의 요구에 따라 운이나 글귀를 맞추는것만으로는 시에 열정과 정서를 충만시킬수 없으며 또한 사상감정만 호소해서도 시의 기능을 다하게 할수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생활을 정서적으로 깊이 파고들며 그를 음악적흐름에 맞는 시문장에 실어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운

물에 대한 소양을 높이는데 큰 힘을 경주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그러나 70년대의 전성기를 이은 80년대를 승리의 년대로 보낸 오늘의 우리 시대에는 아직도 산문화의 경향이 남아있어 여전히 독자를 잃은 시작품들이 일부 있는데 대하여 간파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1986년 초에도 우리 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었으며 그와 비슷한 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오늘도 계속 씌여지고 있다.

상품들을 보러 왔다고
웃으시며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각가지 매대들을 다 돌아보시고
령너머 가구공장의 새 제품인
책장과 이불장을 보시었어라

향긋한 칠감냄새 가지지 않은
책장을 쓸어보시고는
그 무슨 희귀한 물건을 보시는듯
문도 손수 열어보시고

이불장유리에 그려놓은
한쌍의 피콜새를 보시고는
그 노래소리를 불러내실듯
가볍게 두드려도 보시고
(김종백 《산촌의 밤길》 중에서)

이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어느 한 두메산골에 자리잡고있는 소박하고 이름없는 농촌상점이며 가구공장을 찾으시여 현지지도의 사랑을 안겨주신 감동적인 사실을 소재로 하여 12련에 걸쳐 쓴 시의 한부분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옛날부터 훌륭한 시는 인민들의 사랑속에서 그대로 노래로 되어 불리워졌다.》

설명과 미사려구가 많고 번잡한 이와 같은 시련에서 음악성을 느낀다던가 노래가 나올 가능성을 찾는다는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인자하신 영상을 시로 노래하려면 그만큼 시의 작시원리를 충성을 다해서 최상의 수준에서 노래가 나올만큼 구현해야 한다. 로동계급의 수령과 후계자의 형상창조에서는 사소한 흠집도 있어서는 안되며 고도의 사상예술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시는 글귀는 맞추느라고

하였으나 애초에 서정시로 되지 못하였으며 일종의 산문과 같은 원칙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시는 소설과 같이 생활을 묘사하는 문학이 아니며 생활에 의하여 환기된 시인의 감동적인 정서적체험세계를 토로하는 문학이다. 시문학은 이런 자기의 고유한 형태적특성을 견지해야 산문화를 막기 위한 전제를 마련할수 있다.

시 《산촌의 밤길》은 바로 이상과 같은 시창작의 출발부터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원래 서정시에는 자기 서정의 생활적진실성을 위하여 시적계기를 보여주는 서사적요소가 침투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시인에게도 구체적이며 인상적인 생활세부가 있는것이 좋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나 그런 서사적요소는 서정시에서 그의 형태적요구에 맞게 가장 집약화된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시는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 솔직히 말하여 이 시의 양상은 절반이 서사적인것이고 후반부 절반만이 서정적으로가 안겨오는데 그 서정적으로에는 다음과 같은 두개의 명백치 못한 련이 포함되어 있다.

잊을수 없으라
어둠속에 묻힌 골짜기를 누벼
굽이굽이 험한 령길을 넘어
멀어져가던 그밤의 그 불빛

뜨거운 눈물에 젖어 바래우고
천리만리 따라서던 그 길로
산촌의 기쁨이 해빛처럼 피어나고
새 상품 가득 싣고 자동차가 넘어오던 길을
두고두고 못잊어할수록

이것이 서사적요소를 시화한 부분이 아니라 서정적으로라면 그 표현은 매우 거칠고 초보적인 뜻조차 쉽게 통하지 않는다. 《두고두고 못잊어할수록》의 주인은 누군가? 뒤련과 련결시켜보면 그것은 산촌의 인민들로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못잊어할수록》은 《못잊을수록》으로 되어야 할것이다. 이 시인은 시어사용에서 락음법에 대한 체득이 매우 약하며 따라서 시어음절에 생략해야 할 토를 닳음으로써 시를 산문화의 길로 이끌고 있다. 《새 상품 가득 싣고 자동차가 넘어오던 길을》에서 밀점

을 친것은 운문시가의 표현에서는 불필요하다. 그런 표현은 앞에 있는 《희귀한 물건울》, 《노래소

리를》, 《새 가구들을》 등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시 《산촌의 밤길》과 같은 결함은 90년대에 들어선 오늘의 시창작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에만 하여도 다양한 주제의 시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으나 일부 시작품들은 서정성이 부족하여 거기서 음악성과 참다운 운율을 느끼기는 매우 어려운 독자없는 작품들이 많다. 그런 작품들의 서정적 및 운율적품위는 서로 비슷비슷한 저조한 상태이므로 여기서 어느것을 특별히 례증하여 지적하기란 곤란한 형편이다.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작품들의 논의는 《산촌의 밤길》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사실은 산문화를 극복하고 운율을 살리기 위한 논의 이전의 문제이며 서정시의 본성 및 형태적특성과 관련한 초보적인 문제이다.

서정시 《기쁨의 계절》(오필천)도 사정은 비슷한 작품가운데 하나이다.

한대의 모를 꽃아도
온 나라의 식탁에 흰쌀밥이 오르고
고기국이 오르게 하시려는
수령님 뜻을 꽃피우는 그 길이
오늘의 모내기예 있어
경쟁기발 날리는 들판은
그대로 불도가니처럼 끓어라

이 시구절의 경우에도 그것은 노래가 나올 음악성이란 전혀 없고 산문화된 경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심한것은 《수령님 뜻을 꽃피우는 그 길이 오늘의 모내기예 있어》와 같은 표현이 과연 형상을 생명으로 하는 문학작품의 표현으로 되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수령님의 간곡한 뜻을 꽃피우려는 그런 마음이 오늘의 모내기들판에 굽이쳐 작업장은 불도가니와 같이 끓게 되었다는 뜻인데 그 표현은 고도의 추상성을 띤 철학적론설체이다. 《모내기예 있어》는 참으로 혼돈하기 쉬운 표현으로서 주관에 의해 쉽게 씌여졌다고 말할수 있다. 이것을 만약 《모내기예 있어서》로만 감득하고 읽는다면 그아래 석줄은 갈피를 잡을수 없게 된다. 시문장에 이런 개소가 있으면 그 시는 벌써 죽은것이다. 세세년년 진행되는 모내기전투를 시적소재로 잡아 《기쁨의 계절》만큼 시를 쓰는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이 작품은 전반적수준이 여지없는 그런 작품이라고는 할수 없다. 그러나 작품은 분석된것 같은 결함을 발로시키므로써 자기 시전체를 훼손시켰다.

최근 시들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불패의 위력과 참다운 우월성에 대한 주제가 너무도 저조한 시정신과 협소한 시점과 직설적인 자세로 쓰임으로써 시의 산문화경향을 피할래야 피할수 없이 한 작품들이 적지 않다.

가사는 서정적방식의 문학형태의 정수라고 하지만 그러나 시작품에 흘러야 하는 음악성을 종당에는 음악선율이 보충완성시켜주는데도 시문장이 음

악적으로 될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하물며 음악의 도움이 없는 서정시에서 시어음절군들의 엮임새에 의한 음악성을 보장하여 끝내 자기자신의 힘으로 독자에게 음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적지 않은 시들이 보여주는것과 같이 글귀나 운을 호흡에 맞추어 시행이나 미끈하게 갈라놓는 정도로서는 그것을 절대로 해결할수 없다.

근래에 시평가들의 론설, 평론들에서 조선시가의 운율적기초원리에 대한 문제가 강조되니 우리 서정시들이 시어음절군을 그 기초원리에 따라 파부족이 없게 대응시키고 시행도 그 원리에 기초하여 호흡에 맞게 가르는데 힘쓰고있는것은 긍정할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글귀나 맞추어놓은것, 이를테면 말라버린 나무잎새와 같은것이 피여서는 효과가 없다. 그런것은 참다운 조선시가의 운율적기초원리의 구현이라고 할수 없다.

운율이란 간단히 말하면 시문장의 음악적물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은 시작품의 형식에 속하는 개념이다.

인간의 생동한 생활적인 사상감정을 직접 랑송할것을 전제로 한 시작품인 우리의 현대자유시에서 주관적상념속에 내재하는것을 운율이라고 간주하거나 시의 형식미의 밑바닥에 흐르는 감정정서의 기복으로 운율을 대치해서는 시의 산문화를 극복하고 운율을 살리기 위한 당의 방침을 관철할수 없다. 당은 운율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문장을 음악적흐름에 맞도록 짓는데 힘을 넣어야 하며 특히 서술문장을 금하라고 하였는데 우리 시의 운율이 내용적인 감정정서에 의한 내재물이라면 그런 시작품의 형식문제를 풀 수사학적작업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겠는가? 우리 시에서 운율을 더욱 풍부화하고 세련시키자면 반복법에 깊은 주목을 돌릴 필요가 있다. 련속반복, 교차반복, 자음반복, 시어반복, 시행반복, 시련반복, 두어반복, 겹어반복, 세번반복 등 반복법을 비롯한 보조적운율수법들은 작품의 사상감정을 시어의 의미론적범위위상으로 훨씬 더 풍부화해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날바다 한복판에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다바람 일던곳에
버바람이 인다

...

...

오, 바람이 분다
날바다 한복판 20리 언제 우에
사랑의 바람이 분다
벼바람이 분다
(정화흙 《날바다 한복판에 벼바람이 분다》 중에서)

이런 표현이 좋다고 인정된다면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적극 장려하고 내놓고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대의 우리 시작품들은 반복법과 같은 초보적인 운률수법조차 잘 쓰지 않고 시행에 글자수만 가득 채우고있다.

반복법과 아울러 비유, 상징의 형상수단들이 동원되지 않고 좋은 시작품을 창작한다는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서정시 《어머니》는 시제목부터 비유법이며 그 내용에는 진한 비유와 세련된 반복법이 적용리용되고있다. 문제는 그 수단, 수법을 정확하게 쓰는데 있으며 내용을 돈구는데 이바지되도록 하는데 있다. 비유, 상징, 반복 등 수단, 수법들은 인간의 형상적사유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직설적인 서술문장을 피하게 하고 시의 산문화를 극복하게 하며 운률을 풍부하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한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 우리 작시법에 관한 독창적이고도 풍부한 리론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고 실천에 구현함으로써 주체시대를 보다 더 감동적으로 노래한 운률적인 시를 창작하기 위하여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야 할것이다.

이 환호, 이 기쁨

석광희

듣느냐
하늘가에 메아리치는
저 환호소리를
보느냐
웃으며 눈물에 젖는
저 얼굴들을

먼먼 하늘길을 날아와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그만에야 땅을 뒤흔치게 하는
《전대협》의 대표
박성희 박성희
담찬 처녀여

어디 한번
부둥켜안아보자
어서 한번
굳게 잡아보자
부드럽고 억센 그 손길을

애오라지
둘로 갈라진 한겨레를
하나로 되게 할 그 마음이

깊은 바다도 건너 높은 하늘도 날아
헤아림없이 서슴이 없이
어린 나이 단신으로 찾아왔나니

수풀처럼 추켜든 손과 손들이
너를 머리우에 받들어올려
온 세상에 보여주고싶노라
이것이 우리의 딸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누이라고

눈물에 가리워
천송이 만송이 꽃으로 어려오는
아름다운 네 모습
어찌보면 수경이처럼 삼삼한데
다시보니 미소짓는
너는 박성희

백만 학도의 《전대협》 사절
너를 맞아 터져오르는 이 환호
통일의 광장에 이어져
7천만이 부르는 대합창으로
절정을 이룰 그날은 오리라
오, 그날은 기어이 오고야 말리라

늪은 내외 바다가에 앉아 외 3 편

리영삼

여보, 여지 바위우에 앉아
바다속을 들여다보구려
해초 너울거리는 푸르른 물속
꿈같은 세계를 들여다보구려

우리 섬을 까며
부부로 뗏어지던 그날은 언제던가
귀밑에 서리불린 오늘에도
바다는 변함없이 푸르구려

노하면 사나워
사랑도 모르던 이 바다
파도에 밀려간 해녀를 찾아
바위를 걷어차며 뛰어들었던 이 바다

생각하면 어제 같구려
가난한 어부들 힘을 모아 살라고

수령님 무어주신 수산협동조합의 첫 간판이
구원의 등불처럼 솟아 빛나던 때가

조국과 그물코처럼 엉켜진 운명이어서
열밤을 새워도 지칠줄 몰랐던 시절
언제나 만선의 배고동으로
집집의 창문을 두드렸던 때가

노대를 움켜잡고
조국을 위해 한생을 바치지 않았다면
우리 바위우에 이렇게 앉았어도
마음은 그 얼마나 서글프겠소

늪어지니 생각도 많아지는구려
손주녀석 원양에서 돌아오면
좋은 말 많이 해주시구려
자식들도 먼 후날 후회가 없도록

제방길에서

봄이 짙어 여름이 왔구나
더위에 입다문 개구리
벼그루밑에 알낱이를 서두르고
제방쪽에 새풀 무성히 자랐구나

좋아라
내가의 굵은 모래는
발에 밟혀 스르륵이고
나는 풀잎을 뜯어 씹으며
눈을 찌르는 해별을 막아 손을 쳐든다

나는 안다
이 여름 피약별아래
오곡의 단즙이 모아지고 영근다는것을

시내가에 뛰노는 아이들 키가
물라보게 어른스레 자란다는것을

마을길 꽃밭을 직심스레 가꾸는
이웃집 할아버지에게
나는 꾸벅 인사를 한다
세는 나이는 많고많아도
흰머리 하나없이 젊어 사신다고

아, 고향아
어머니조국아
네우에 평범한 우리 생활
해빛안고 피어나는 꽃과 같구나

고개가 숙여지누나

꿀짜기에 들어서니
바지는 푸르스레 이슬에 젖고
바위를 뛰어내린 개울물에
하늘은 비좁게 비쳐있구나

숨가빠 마셔도
코가 마르지 않는 맑은 공기여
슬쩍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도
보약처럼 느껴지는 상쾌함이어

오늘은 내가 일하는 사람 같지 않구나
산마루에 올라 바라보는 공장 풍경
한장의 그림처럼 안겨오고
하늘에 맞닿은 수평선은 더 뚜렷하구나

흰 울타리를 둘러친 학교 마당은
꽃이 핀 정원인가

뛰노는 아이들모습 즐겁고
음에서 오는 빠스의 경적소리
손님처럼 나를 찾아 인사를 하누나

종구나 가까이에서 느낄수 없었던
내 고향 요람이어
덤불속 까치밥도
따스한 정 깃들여
소리쳐 부르면 모두가
금시 달려올것만 같구나

하지만 너는 고향에
무엇을 하여놓았는가
돌이켜 생각하니
절로 얼굴이 붉어지고
무겁게 고개가 숙여지누나

봄이여, 전하여다오

흙갈이를 끝낸 벌은
신부의 첫날 이불처럼 흰
두터운 눈을 다 녹여 마시고도
훈훈한 방안처럼 몸 더워하누나

밤새 물리간 추위에
시대가 버들가지며 건늬돌이
수정같이 얼어붙었어도
양지바른 잔술발 잔디보다 먼지
강냉이 형제들이 뿌리를 내렸다누나
안꿀덕이에 오른 양수기
종다리 동지를 타고 앉았다누나

봄이여 전하여다오
행복한 사랑에 겨워
정든이 가슴에 몸을 맡기듯
김서린 땅에 불을 대인
처녀의 희망이 무엇인지

아직은 보이지 않으나
기어이 안아줄 이삭풍년을 두고
꿈같이 속삭이는 말
첫마디부터 마지막마디까지 전하여다오
가을은 네 소식을 기다린다

행복

리수덕

행복은 검은것과의 대조속에서 그 속성과 차이점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것처럼 행복은 불행과의 대비속에서만이 그 진가가 더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것은 너무두 명백하고 단순한 생활의 진리이다. 그러나 누구나가 다 이 의심할바 없는 진리를 생활속에서 늘쌍 자각하고 체감하며 사는것은 아니다. 나는 이런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전에 뜻하지 않은곳에서 한 외국사람을 만나 큰 충격을 받아안았던 일을 감회깊이 다시 더듬어보곤한다.

신록이 짙어가는 5월의 어느날 오후무렵이었다. 농촌생활을 취재하러 시내에서 20여리 떨어진 덕해리로 나갔던 나는 오랜만에 별바람도 쏘이고 농촌풍치도 구경할겸 그닥 넓지 않은 길을 따라 스적스적 걸어서 돌아오고있었다.

내가 한동안 걸어 그닥 높지 않은 등성이에 이르렀을 때였다. 느닷없이 뒤에서 승용차경적소리가 울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길여가리에 비켜선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얼마큼 앞서가던 승용차가 툭 멎고 앞문이 열리더니 후리후리한 키폴에 연자주빛 색안경을 낀 사나이가 별쭉 웃으며 나를 향해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리동무! 어딜 갔다오오? 어서 와서 타게.》

내가 의아해하자 그는 색안경을 벗었다.

그제서야 나는 그가 대외무역부문에서 통역원으로 일하는 고동무라는것을 알아차리고 달려가 반겨 맞으며 인사를 하였다.

《아니 넓은 길을 두고 어떻게 이런 시골길에 들어섰나?》

고동무는 그럴 까닭이 있다고 하면서 어서 차에 오르라며 뒤문을 열더니 나의 등을 떠밀었다. 그의 호의를 고맙게 생각하며 승용차를 탄 나는 이미 곁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어딘가 좀 어색한 감을 느꼈다. 술많은 눈섭에 류달리 검은 눈동자 그리고 젊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기른 까슬까슬한 코수염... 얼핏 보아 외국인이 틀림없었다.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승용차안의 후사경을 통해 나의 기색을 알아차린 고동무는 앞자리에서 나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이렇게 말을 뱉었다.

《리동무! 뭐 이상할것 없네. 자네 곁에 앉은 사람은 지금 남포항에 머무르고있는 빠나마선박의 선원이네. 난 지금 그와 함께 산소엘 다녀오는 길일세.》

《외국인과 함께 산소엘?...》

나는 더욱 궁금해지는 마음을 감출수 없었다.

비록 전공학부는 달랐지만 고동무와 나는 대학시절부터 각별히 가까운 사이였고 졸업후에도 비록 초소는 달랐지만 한고장에 사는것으로 하여 자주 만나 정을 나누는터여서 피차의 집안형편을 손금보듯 하는 처지였다.

도대체 고동무에겐 산소에 갈일이란 없었다.

그런데 청명날도 한가위날도 아닌 때에 산소에 갔다온다는것은 무슨 영문일까? 그것도 외국사람과 함께??

내가 이런 의문부호를 달고있음을 눈치챈듯 다시 뒤좌석쪽으로 몸을 기울인 고동무는 내곁에 앉은 외국사람에게 나를 소개하고나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 이 젊은 외국선원의 아버지묘지엘 갔다오는 길일세. 이렇게 말하면 자네 더 궁금해지겠지? 외국선원의 아버지가 어떻게 조선폰에 와서 묻혔는가구... 그럴 사연이 있었네.》

고동무는 이렇게 이야기꼭지를 떼고나서 나의 궁금증을 더욱 돋구려는듯 달리는 차창밖을 점도록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을 이었다.

《아마 나의 이 이야기가 자네한테 좋은 글감이 될걸세.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민족의 행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데 대한...》

드디어 고속도로도로에 나선 승용차는 공업, 문화항구도시, 락원의 거리를 향해 살같이 달렸다.

달리는 승용차안에서 고동무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몇해전 일이었다. 남포항에 빠나마선박 《와이트후지》호가 입항하게 되었다. 워낙 이 배는 세계의 이러 나라 항구들을 오고가면서 샅짐을 싣고 부리는 대형집배로서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의 많은 항구들에 레사롭게 드나들고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남포항에 정박한 이 배에는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겼었다.

그것은 이 배가 벌써 먼 나라의 항구를 떠날 때부터 급병으로 앓고있던 한 선원이 공해상에서 운명했던것이다. 이 배에는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돈에 팔리워온 사람들이 선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있었는데 죽은 그 선원 역시 고용된 필리핀 사람이었다.

애당초 그 대형집배가 다른 나라항구를 떠날 때 그를 그곳에 남겨 병치료대책을 세웠더라면 환자는 살수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귀중히 여기는 자본주의사회의 생존법칙이 그대로 지배하는 그 배에 꺼져가는 타국의 한 선원의 생명을 건져줄 구원의 손길은 그 어디에서도 뻗쳐올수

없었다. 결국 그 선원은 자기 자식들에게 다시는 배에 오르지 말게 하라는 유언을 같이 고용되었던 자기 나라 친구에게 남기고 운명하였던 것이다...

《리동무! 생각해보게. 자본주의나라 한 선원의 그 비참한 처지와 대비하면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에서 사는 우리 인민들은 얼마나 행복한가를...》

끝없는 자랑과 공지에 넘친 고동무의 말이였다.

고동무의 그 말속에 얼마나 깊은 뜻과 못사연들이 안배되어있는가를 생각하는 나의 뇌리에 번개치듯 스쳐지나가는 화폭들이 있었다.

인도아양의 창파를 가르며 아프리카를 향해 가던 《혁신》호에 뜻하지 않게 두명의 중환자가 생겼을 때 항로를 바꾸어 미드라스항에 정박하도록 해주시고 치료대책을 세우도록 하시여 끝내 그들을 기적적으로 살려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량 없는 은정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며 불의의 정황속에서 얼음장을 타고 서해로 떠내려간 한 처녀를 구원하기 위하여 비행대와 함선까지 출동시켜준 고마운 당의 그 손길!

그리고 이름없는 한 공민의 병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해 대양과 대륙을 넘어 수륙만리에 비행기까지 날리는 어머니조국의 한없이 따사로운 그 품!

정녕 이것은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사람을 위해 모든것을 복무케 하는 주체조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있을수 있는 위대한 사랑의 정화가 아닌가!

생각할수록 축복받은 시대에 사는 끝없는 공지와 행복감으로 나의 가슴은 부풀어올랐다.

한편 수난당한 자본주의나라의 한 선원, 바로 내 곁에 앉은 그 젊은이에 대한 동정심이 가슴가득 피어올랐다.

이 순간 나에겐 내가 누리는 행복이 그가 당한 불행앞에 미안스러운 생각까지 들었다. 그래서 나는 고동무에게 늦게나마 나의 조의의 뜻을 선원한테 전해줄것을 당부했다.

고동무는 에스빠냐어로 나의 뜻을 곧 그에게 이야기해주었다.

《루젠 피 메틸라! (그 선원의 이름이였다.) 나의 친구이고 대학동창생이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께 대한 이야기를 들은 나의 친구는 깊은 동정과 조의의 뜻을 당신한테 전해줄것을 부탁하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루젠은 얼굴에 담았던 수심의 빛을 일순간에 밝은 미소로 바꾸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루젠은 나의 손을 무작정 뜨겁게 감싸쥐며 기쁨에 젖어 어쩔줄 몰라했다.

차안에는 봄정기와도 같은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한동안 감돌았다. 주고받는 이야기속에도 제법 즐거움이 움트는듯싶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얼마후에 문득 내가 던진 질문이 우리들의 대화를 또다시 침중한 세계에로 가라앉게 했던것이다.

《고동무! 루젠은 어떻게 되어 여기에 오게 되었나? 일부러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보려구?...》

내가 묻은 이 말에 고동무가 이렇게 대답했다.

《일부러 온것은 아닐세. 루젠은 그사이 떠나마 선박의 선원으로 고용되었지. 그런데 그가 탄 선박이 마침 이번에 남포항에 들어오게 됐거든. 그래서 배가 머물러있는 기회에...》

《아니 루젠의 아버지야 자식은 절대로 배에 오르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어째서 부디 선원이 됐단 말인가?》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아버지의 유언을 감히 어기면서까지 돈에 팔려서 떠나마 배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는 바로 거기에 루젠의 한 가정의 비극만이 아닌 자본사회의 모순이 있단 말일세.》

고동무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구체적인 사연은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 듣자고 하면서 루젠에게 나의 질문을 전한후 그 대답을 요구했다.

청을 받은 루젠은 말을 떼기가 피로운듯 손에 쥐고있던 잡지를 애꿎게 둘둘 말았다 폼다 하다가 침울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가정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합쳐 모두 여섯 식구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떠나자 온 집안은 끈 떨어진 조롱박신세가 되었다. 맏이인 루젠도 어머니도 직업을 구하려 무등 애를 썼지만 일자리를 도저히 찾을길 없었다.

그래서 1년나마 품팔이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해왔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비보와 유언을 전달해 준 바로 그 선원의 알선을 받아 루젠 역시 외국선박에 고용되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이다.

《아마 아버지도 땅속에서나마 나와 우리 가정의 딱한 형편을 리해하신다면 유언을 지키지 않았다고 저를 욕하지 않을겁니다. ...제가 다시 배를 타지 않았던들 아버지의 산소를 언제한번 찾아볼수나 있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한데니까요.》

조점을 잃은 두눈에 이슬을 담고 루젠이 하는 말이었다.

어느덧 승용차는 항구도시의 아름다운 거리를 누비며 쾌속으로 달리고있었다.

차창으로 웃음꽃피는 고층살림집들의 불빛 넘치는 창문들과 백화원공원에서 휴식을 즐기는 근로자들의 행복한 모습들, 줄을 지어가는 학생들의 활기찬 모습들이 얼핏얼핏 비껴들었다.

우리를 태운 승용차는 네거리에 이르러 잠시 멎었다. 건늌길로 울긋불긋 색동옷 단장을 한 유치원 꼬마대렬이 교양원의 인솔하에 지나가고있었던것이다. 오고가던 버스도, 화물차도, 승용차도 어린이들에게 길을 내주며 모두 멈춰섰다.

사뭇 생각이 깊어지는듯 냇을 잃고 이 정경을 바라보던 루젠이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서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고 어린이를 이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는 조선의 참모습이 지금 이 네거리에도 비껴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시각 나의 고향집엔 저 유치원꼬마들만큼한 내 막내 동생이 집에 갇혀 집을 지키고있을겁니다. 어머니의 동생들은 품팔이와 신문팔이 등으로 떠돌아다닐 테니까요...》

울적해지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말하고난 그는 한숨 돌리고서 손에 쥐고있던 잡지를 펼쳤다.

외국어로 간행한 잡지 《오늘의 조선》이었다.

그는 밑줄을 그어가며 읽은 잡지의 페이지들을 번다다 말을 계속했다.

《나는 지금까지 신문, 잡지나 출판물을 통해서만 조선을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시나마 조선땅에 발을 딛고 생활의 이모저모를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생각되는게 많습니다. 실업자가 없고, 세금이 없고, 먹고 입고 쓰고살 근심걱정이 없는 나라! 무상치료, 무료교육이 꽃피어 얼굴마다 건강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나라! 이 좋은 제도에서 사는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금시 가슴이 찢릿해움을 느꼈다.

《행복!》, 《행복한 사람들!》

나는 지금까지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고나 역시 그런 말을 자주 입에 올려왔었다.

그러나 나는 이 순간처럼 행복이란 말마디가 그토록 웅심깊은 의미를 띠고 폐부를 자극하는것은 처음인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생각했다. 그것이 단순히 외국인의 시점에서 본 우리의 행복이 나의 가슴속 감정의 금선을 류다른 충격으로 통겨준때문인가?

아니었다. 겨울추위의 맵짠 맛을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봄빛의 따스함을 더 절절히 통감하는것 처럼 불행의 쓴맛을 너무나도 진저리나게 체험한 루젠이었기에 짧은 순간에나마 행복의 단맛을 사무치게 절감한 그의 느낌이 그렇듯 뜨겁게 나의 가슴을 두드렸던것이다.

나는 고동무와 루젠을 항구어구에서 배려주고 집을 향해 봄빛 넘친 거리를 걸으면서도 내내 흥분된 기분이였다. 활기있게 오가는 못사람들, 부두에서 울리는 배고동소리, 배란다우에서 비둘기를 날리는 귀염둥이 어린이들... 보통날엔 레사롭게 보고들던 그 모든것이 여느때없이 정겹게 안겨들며 내 가슴에 그 무엇인가를 속삭여준다.

나는 다시 행복에 대한 생각을 이어갔다. 우리 생활에는 행복! 그것이 봄빛처럼 꼭 차있어서 그것을 웅당한것으로 생각하는데 습관된 나머지 웬간해서는 자신에게 차례진 행복의 폭과 깊이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것이 나 자신과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마치 사람이 그것 없이는 순간도 살수 없는게 공기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혜택을 잇고 사는것처럼...

나는 루젠과의 우연한 만남을 여간만 다행스럽게 생각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잠들지 말아야 할 때 잠에 취한 사람을 흔들어깨우듯 주위의 모든것을 보다 새롭게 보고, 듣고, 느끼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바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에 팔리워 불행한 운명의 길을 걷는 루젠이 비단 나혼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에 대한 반증자로 되기를!